

2016년 국가자격 청소년상담사 인력 현황 조사

책임연구자 : 이 동 혁 (건국대학교 교육학과)

보조연구원 : 이 송 하 (건국대학교 교육학과)

정 혜 윤 (건국대학교 교육학과)

차 지 숙 (건국대학교 교육학과)



청소년상담연구 198

2016 국가자격 청소년상담사 인력 현황 조사

인 쇄 : 2016년 9월

발 행 : 2016년 9월

발 행 인 : 권 승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7층~10층)

T. (051)662-3082 / F. (051)662-3006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신일디앤피

비매품

ISBN 978-89-8234-631-6 94330

ISBN 978-89-8234-001-7(세트)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

2016년 국가자격 청소년상담사 인력 현황 조사 / 책임연구
자: 이동혁 ; 보조연구원: 이송하, 정혜윤, 차지숙. -- 부산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6
p. ; cm

권말부록: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지 ; 청소년상담사 연
구 결과 표 111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

ISBN 978-89-8234-631-6 93330 : 비매품

ISBN 978-89-8234-001-7 (세트) 94330

청소년 상담사[靑少年相談士]

청소년 복지[靑少年福祉]

338.5-KDC6
362.7-DDC23

CIP2016027355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는 2003년 시작되어 2016년까지 14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는 국가자격제도를 통해 배출되는 국내 유일의 상담 관련 전문 인력으로, 2016년도까지 약 12,000여명이 양성되었습니다. 청소년상담사들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외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시설과 학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근무하며,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를 시행하면서 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해 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 인력의 사후관리를 위해 2006년부터 2~3년을 주기로 인력현황을 조사해 왔습니다(2006, 2008, 2011, 2013년 실시). 이 조사는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자들의 기초정보 및 취업현황, 업무 특성, 자격증의 기여도 등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활용도를 파악하고 자격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원에서는 2016년에도 청소년상담사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조사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2013년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의무화 시행 이후 실시되는 첫 조사이므로 보수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였고, 기존에 사용했던 문항의 구성을 보다 체계화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의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영역에 대한 본 조사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과 정책 반영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 적극 참여해주신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구를 수행해 주신 건국대학교 이동혁 교수님과 연구 작업에 함께 참여한 연구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가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의 발전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6. 9.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 권승



초 록

청소년상담사는 국가자격제도를 통하여 배출되는 국내 유일의 전문상담 인력으로, 첫 시행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약 1만 여명이 양성되었다. 이들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복지관, 대학, 공공기관 등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 문제에 대한 청소년상담사의 사회적 역할과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2년 ~ 3년마다 청소년상담사들의 취업 현황 및 실태, 기초 정보, 업무 특성, 직무 적합도,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기여도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번 인력현황조사연구에서는 2016년 상반기까지 배출된 11,7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연구 내용은 크게 취업현황 전수조사와 설문조사, 2개로 구분된다. 연구 결과 중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청소년상담사 취업현황 전수조사에서는 설문응답자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관리 시스템을 통해 도출된 정보를 통해 총 4,85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청소년상담사들의 주요 취업기관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초·중·고등학교, Wee 스쿨·센터·클래스 순이었다. 둘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설문 응답자 중 취업자의 많은 수가 비정규직이고, 교육수준에 비해 낮은 소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취업과 상담자로서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청소년상담사들이 상위 등급의 자격증 취득을 원하고 있었다. 넷째, 현장에서 청소년상담사들의 주요 상담 대상은 학령기 이동 또는 청소년이며, 주요 상담 내용은 대인관계문제와 학업 및 진로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첫째, 지속적으로 자격 취득자가 증가하는 만큼 청소년상담사들이 일할 수 있는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상담사들의 비정규직 문제와 낮은 급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 활성화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 내담자들에게 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상담사들의 전문성 개발에 대한 상담자 스스로의 적극적인 태도뿐 아니라 소속 기관들의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앞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정책 반영과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목 차

I. 서 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2. 연구 영역 4
- 3.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 5

II. 청소년상담사 취업현황 전수조사 / 11

III. 설문조사 / 17

- 1. 설문조사 대상 19
- 2. 설문조사 절차 21

IV. 설문조사 결과 / 23

- 1. 청소년상담사 기본 정보 25
- 2. 청소년상담사 취업 실태 36
- 3.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활용 56
- 4.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66
- 5. 청소년상담사 상담내용 69

V. 설문조사결과요약 / 81

- 1. 청소년상담사 기본 정보 83
- 2. 청소년상담사 취업 실태 84
- 3.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활용 86
- 4.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87
- 5. 청소년상담사 상담내용 88
- 6. 청소년상담사 현황 변화 90

VI. 제언 / 93

Ⅰ 참고문헌 / 96

부록 / 97

- 1.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지 99
- 2. 청소년상담사 연구 결과 표 119

Ⅰ Abstract / 165

표 목 차

표 1. 청소년상담사 급수별 취업 현황	14
표 2. 연도별 청소년상담사 취업 현황	15
표 3. 성별에 따른 전체 설문 대상과 설문 참여자 분포 비교	19
표 4. 자격증 급수에 따른 전체 설문 대상과 설문 참여자 분포 비교	20
표 5. 최종 설문 문항 구성 내용	21
표 6.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급수	25
표 7. 응답자의 연령별 급수	26
표 8.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취득년도 (중복취득자 포함)	27
표 9.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자격취득 이유	28
표 10.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최종 학력	30
표 11.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최종 졸업 학과명	31
표 12. 응답자의 상담 관련학과	32
표 13.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현 근무지역	33
표 14.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자격 취득 현황	34
표 15.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현재 소속기관	36
표 16.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미취업 이유	37
표 17.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미취업 이유	38
표 18.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채용 우대 자격증	39
표 19.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근무형태	40
표 20.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근무형태	40
표 21. 응답자의 역할별 근무형태	41
표 22.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주당근무시간	42
표 23.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평균근무시간	42
표 24.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업무 비율	43
표 25.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주요 역할	44
표 26.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교육 지원 내용	45
표 27.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교육비 지원 한도액	46
표 28.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월 평균 소득	47

표 29.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희망 월 평균 소득	48
표 30. 응답자의 연령별 처우 개선 희망 내용	50
표 31.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취업 정보 취득 경로	51
표 32.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배치 확대 희망 기관	52
표 33. 응답자의 연령별 이직 또는 이직 고민 여부	53
표 34. 응답자의 역할별 이직 또는 이직 고민 여부	53
표 35. 응답자의 역할별 이직 또는 이직 고민 이유	54
표 36. 응답자의 근무지(거주지)별 자격증 취득 기여도	56
표 37.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자격증 취득 기여도 (세부항목)	58
표 38.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취득 시기	59
표 39. 응답자의 자격증 취득 후 자격급수별 취업기관	60
표 40.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희망 취업기관	62
표 41.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상위 등급 자격증 취득 의향	63
표 42. 응답자의 역할별 상위 등급 자격증 취득 의향	63
표 43.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상위 등급 자격증 취득 예정일	64
표 44.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상위등급 자격증 취득 이유	65
표 45. 응답자의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참여 여부	66
표 46.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67
표 47.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상담경력	69
표 48.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평균 상담경력	70
표 49. 응답자의 소속 기관별 상담경력	71
표 50.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내담자 연령층	72
표 51.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내담자 호소문제	74
표 52. 응답자의 내담자 연령별 호소문제	74
표 53.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상담진행에서의 어려움	75
표 54.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상담진행에서의 어려움	76
표 55.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 후 수퍼비전 여부	77
표 56.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 후 수퍼비전 평균 주기와 횟수	78
표 57. 응답자의 소속 기관별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 후 수퍼비전 평균 주기와 횟수	79
표 58. 응답자의 역할별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 후 수퍼비전 평균 주기와 횟수	80

표 59. 응답자의 자격취득현황	119
표 60. 응답자의 연령별 자격취득 이유	119
표 61. 응답자의 연도별 자격취득 이유	120
표 62. 응답자의 급수별 복수 자격취득 이유	120
표 63.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현 근무지역	121
표 64. 응답자의 연령별 현 근무지역	122
표 65.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현 소속기관	123
표 66. 응답자의 연령별 현 소속기관	124
표 67. 응답자의 연령별 미취업 이유	125
표 68. 응답자의 연령별 근무형태	125
표 69.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주당근무시간	126
표 70.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평균근무시간	126
표 71. 응답자의 연령별 주당근무시간	127
표 72. 응답자의 연령별 평균근무시간	127
표 73. 응답자의 역할별 주당근무시간	128
표 74. 응답자의 역할별 평균근무시간	128
표 75.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업무비율	129
표 76. 응답자의 연령별 업무비율	129
표 77.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주요 역할	129
표 78. 응답자의 연령별 주요 역할	130
표 79. 응답자의 최종 학력별 월평균 소득	131
표 80.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월평균 소득	131
표 81. 응답자의 연령별 월평균 소득	132
표 82. 응답자의 주요 역할별 월평균 소득	133
표 83.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월 희망 소득	134
표 84. 응답자의 연령별 월평균 소득	134
표 85. 응답자의 최종학력별 월 희망 소득	135
표 86.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처우 개선 희망 내용	136
표 87.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처우 개선 희망 내용	136
표 88. 응답자의 최종 학력별 처우 개선 희망 내용	137
표 89. 응답자의 역할별 처우 개선 희망 내용	138
표 90.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취업 경로	138
표 91. 응답자의 연령별 희망 배치확대기관	139

표 92.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희망 배치확대기관	139
표 93. 응답자의 최종 학력별 배치 확대 기관	140
표 94.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이직 고민	140
표 95.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이직 고민	141
표 96.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이직 고민 이유	141
표 97. 응답자의 연령별 이직 고민 이유	142
표 98.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이직 고민 이유	143
표 99.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취업 기여 인식	144
표 100. 응답자의 연령별 취업 기여 인식	144
표 101.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취업 기여 인식	145
표 102.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취업기관	146
표 103. 응답자의 연령별 취업 기관	147
표 104.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취업 희망 기관	148
표 105. 응답자의 연령별 취업 희망 기관	149
표 106.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상위 급수 취득 의향	150
표 107. 응답자의 연령별 상위 급수 취득 의향	150
표 108.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상위 급수 취득 이유	151
표 109. 응답자의 연령별 상위 급수 취득 이유	151
표 110.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평균 상담경력 1	152
표 111.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평균 상담경력 2	152
표 112. 응답자의 연령별 평균 상담경력 1	153
표 113. 응답자의 연령별 평균 상담경력 2	153
표 114. 응답자의 근무 기관별 대표 호소문제	154
표 115. 응답자의 연령별 상담 어려움	155
표 116. 응답자의 역할별 상담 어려움	156
표 117. 응답자의 역할별 수퍼비전 여부	157
표 118. 응답자의 근무 기관별 수퍼비전 주기	158
표 119. 응답자의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희망 교육 주제_ 1급	159
표 120. 응답자의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희망 교육 주제_ 2급	160
표 121. 응답자의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희망 교육 주제_ 3급	162



그림 목 차



그림 1. 응답자의 성별 분포	25
그림 2. 응답자의 자격취득 현황	28
그림 3. 응답자의 복수 자격취득 이유	2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영역
3.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3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된 이후 청소년 문제에 대한 상담사의 사회적 역할과 전문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이해를 위한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연구가 시행되어 왔다.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 연구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의해 총 4회(2006년, 2008년, 2011년, 2013년) 진행되었으며, 청소년상담사의 기초 정보 뿐 아니라 업무 특성, 상담 경력, 교육 및 수련 경험, 자격의 기여도, 직무 적합도 및 수행 빈도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의 역할을 해 왔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제에 대한 청소년상담사의 사회적 역할과 전문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청소년상담사가 실제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현황 파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사의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영역의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정책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5차년도 연구를 통해 2003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 시행 이후, 청소년상담사의 직무와 전문성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는지 확인·평가해 봄으로써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청소년상담사제도가 더욱 발전하는데 필요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상담사의 취업 현황, 기초 정보, 취업 실태, 자격증 활용관련 영역, 보수교육관련 영역, 상담관련 영역으로 나누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상담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 청소년상담사 취업 현황 전수조사

취업 현황에서는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자들이 어느 기관에 취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소속 기관을 조사하였다.

나. 청소년상담사 기초 정보

기초 정보에서는 성별, 연령, 취득급수와 취득년도,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취득 이유, 최종 학력과 최종 학과명, 청소년상담사 외 취득 자격증 등 총 10문항을 조사하였다.

다. 청소년상담사 취업 실태

취업관련 영역에서는 현재 소속기관에서의 근무형태와 평균 근로시간, 현재 소속기관에서의 주요역할, 월 평균 소득, 처우개선과 관련된 질문 등 총 16문항을 조사하였다.

라.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활용관련 영역

자격증 활용관련 영역에서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진로개발 기여 여부와 정도, 취득 시기 및 상위 자격증 취득 의향 등 8문항을 조사하였다.

마.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관련 영역

보수교육관련 영역에서는 보수교육 참여 경험, 보수교육 과정에 개설되기를 희망하는 과목, 보수교육을 듣지 않는 이유에 관한 3문항을 조사하였다.

바. 청소년상담사 상담관련 영역

상담관련 영역에서는 상담경력, 내담자의 주 연령층, 내담자의 주 호소문제, 상담 진행 중 겪는 어려움, 수퍼비전 경험 등에 관한 6문항을 조사하였다.

가. 2006년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 연구

2006년 현황 조사는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자격증을 취득한 청소년상담사 1,241명 중 조사에 응한 1,038명(83.6%)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분석은 기초적인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학력과 전공, 직업 현황,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기여도 및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이루어졌다. 현황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상담사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10.3%, 여성이 89.7%로 나타나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급수에 따른 분포는 1급이 12.1%, 2급이 45.5%, 3급이 42.4%로 나타났으며, 30대가 51.3%로 가장 많았다. 또한 거주 지역을 살펴본 결과, 서울과 경기 지방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55%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보다 서울·경기지역에 청소년상담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청소년상담사의 최종학력 분포를 살펴본 결과, 1급은 박사학위 취득자가 가장 높았고, 2급은 석사 취득, 3급은 학사 취득 순으로 나타나 급수에 따른 학력 차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상담사의 전공 분포를 살펴본 결과, 심리학 전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육학, 사회복지(사업)학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1,038명을 대상으로 현직 여부, 소속기관 및 직책을 살펴본 결과,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 80.3%, 휴직 상태 9.5%, 한 번도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경우가 약 10%를 차지하였다. 급수별로 살펴보면 2급의 경우 응답자의 6.6%, 3급의 경우 응답자의 16.1%가 직업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3급 일자리 창출 대책이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상담사의 직책을 살펴본 결과, 1급은 상담원/치료사, 상담관리직, 교수 등의 전문적이고 관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2급은 중간급으로 실무와 상담을 담당하는 상담원/치료사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3급의 경우, 상담원/치료사가 가장 많았지만 2급에 비해 그 수는 절반정도였으며 이 외에 교사/상담교사, 아르바이트, 공무원 등의 다양한 직책이 포함되어 아직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직책 수행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증의 기여도를 알아보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50%이상이 자격증 소지에 따른 성취감을 느낀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수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청

소년상담사 1급의 경우, 자격증 소지에 따른 성취감 외에 청소년상담사로서의 대내외적인 인정을 자격증의 주요 기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2급과 3급의 경우에는 전문자격증 소지에 따른 성취감 외에 청소년상담에 대한 지식 및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아 자격증이 개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성취감을 획득하는 주요 수단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2급의 경우, '다양한 기관에 지원할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었음'에 다른 급수보다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청소년상담사 2급 자격증이 현장에서 가장 활용성이 높은 급수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나. 2008년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 연구

2008년 현황 조사는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자격증을 취득한 청소년상담사 2,122명 중 설문에 응한 1,518명(71.5%)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분석은 기초적인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학력과 전공, 직업 현황,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기여도, 청소년상담사 활동영역 및 확대 분야, 교육 확대 분야, 취득 후 변동사항, 인력뱅크 구축 정보, 2006년도와 2008년도 현황 비교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이루어졌다. 현황 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조사를 통해 기존 청소년상담사들이 진출하고 있는 영역과 새로운 영역이 제시되었다. 청소년상담사들이 이미 진출하고 있는 영역은 아동·청소년상담기관, 학교, 민간상담기관, 대학상담센터 등이었으며, 새롭게 제시된 영역으로는 군 관련 기관(군, 경찰), 지역사회기관(도서관, 공부방, 사회교육원 등), 방송기관(교육방송 등), 사설 교육기관(학원, 유학원 등) 등이었다. 청소년상담사들의 다양한 일자리 욕구를 살펴볼 때 향후 청소년상담사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기관에 청소년상담사를 홍보하고, 청소년상담사들에게도 새로운 일자리 영역을 제시하여 이들이 익숙한 영역 외에도 새로운 영역을 자신의 일자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졌다.

둘째, 청소년상담사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기본적인 청소년상담관련 교육과 대상별 특화된 교육, 기관 운영 및 행정 등 청소년상담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교육 등이 제안되었다. 희망하는 교육과정 중 새롭게 요구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새터민 대상' '다문화 가정' 등의 대상별 교육이 있었으며, '영성상담' '명상' '모래치료' 등 특성화된 상담교육, '회계, 예산' 등 실무 영역 등이 있었다.

셋째, 본 조사를 통해 청소년상담사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한 사람들의 인력뱅크를 구축하였다. 응답자 중 많은 청소년상담사들이 인력뱅크 구축에 동의하였으며, 이는 청소년상담사의 일자리창출과 자신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데 많은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다. 2011년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 연구

2011년 현황조사에서는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자격증을 취득한 청소년상담사 4,070명 중 본 현황조사에 응한 2,013명(49.5%)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분석은 기초적인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기여도, 업무 특성,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수련, 상담 경력, 청소년상담사 소진, 인력뱅크 구축 정보, 시계열 비교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이루어졌다. 현황 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 및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적인 고용모델 개발 및 적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조사 결과, 청소년상담사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단 35.9%로 나타나 대부분 불안정한 고용상태임이 확인 되었다. 즉, 약 74%의 청소년상담사가 비정규직이나 기타 다른 형태로 고용이 되어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불안정한 고용은 잦은 이직으로 연결되어 지속적인 업무과약과 현장 노하우 전수 및 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이는 청소년상담사의 낮은 임금 수준과도 비교될 수 있는데, 2010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른 학사 학위 평균 임금의 65% 수준에 준하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수퍼비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청소년상담사들이 상담 회기 중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수퍼바이저 부재’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수퍼비전 기회 부족’이 나타났다. 실제로 현재 수퍼비전 진행 빈도를 분석한 결과, 3급의 약 60%가 6개월 이상에 한 번씩 수퍼비전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실제로 청소년상담사 3급이 1급과 2급에 비해 ‘무능감’을 자주 느끼며 심리적 소진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청소년상담기관 종사자 및 기타 청소년상담사에게 수퍼비전의 기회 제공 확대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보수교육 시스템 및 교육비 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함이 나타났다.

셋째, 2011년 조사는 이전 인력현황조사와 달리 청소년상담사의 현황 파악 뿐 아니라 전문가로써 역량 강화를 막는 방해요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청소년상담사의 소진에 대한 설문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업무 특성에 따라 소진의 유형이 다름이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상담사의 후속조치에 교육적 측면의 지원뿐 아니라 개인의 역량이 개발되고 그것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휘 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사의 소진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라. 2013년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 연구

2013년 연구에서는 2003년도부터 2012년도 까지 자격증을 취득한 청소년상담사 6,097명 중에서 본 현황조사에 응한 1,924명(31.6%)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분석은 기초적인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기여도, 업무 특성,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수련, 상담 경력, 청소년상담사 직무 분석과 응시과목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청소년상담사의 소속지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이 501명(25.4%), 경기도 430명(21.8%), 경상남도 130명(6.6%), 대구광역시 118명(6.0%) 순으로 나타나 청소년상담사들이 서울, 경기 지역에서 근무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별 순으로 살펴보면 1, 2, 3급 모두 서울, 경기도에 많은 청소년 상담자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충북, 강원, 울산, 대전, 제주 등은 3%수준에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상담사 부족에 따라 청소년에게 전문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상담사의 지역 편중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에 국가자격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함께 필기시험 및 보수교육의 지역 실시, 상담전문가 양성과정의 활성화 지원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청소년상담사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29.1%이며, 비정규직(전일제)이 37.4%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사는 대부분 '아동·청소년상담센터'나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상담사의 주요 소속기관인 '아동·청소년상담센터'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비정규직이나 전일제 일자리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상담사 역할의 중요성이 학교현장에서도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약 70%의 청소년상담사가 비정규직이나 기타 다른 형태로 고용이 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청소년문제를 다루는 청소년상담사의 업무효율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불안정한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정적 고용모델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청소년상담사의 주 업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주로 주 10회 내외의 상담을 수행하며, 대부분이 청소년 중 '중학생' 내담자이면서 비자발적 내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담자의 주 호소문제는 대인관계와 가족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상담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상담의 기본적인 개입방법에서의 유능성이 요구되며, 청소년위기 문제 외에도 대인관계, 학업, 진로, 가족문제 등 일상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사의 3개 급간에는 ‘상담과 심리검사 실시하기’와 같은 상담영역에서 는 직무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3개 급간에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소속기관의 지위에 따라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 청소년상담을 실제 실행하는 인력이라는 점에 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의 1급은 상담행정이나 교육에서의 지도인력, 2급은 청소년상담의 실제 전문인력, 3급은 청소년상담의 실행인력 등 등급별 역할에 대한 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II

청소년상담사
취업현황 전수조사



청소년상담사의 취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2003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전원에게 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여러 번의 설문 요청 문자와 메일에도 취합된 설문 응답 자료는 3,148부에 불과하였다. 이에 연구진은 전수조사를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사들의 취업 현황관련 정보를 요청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기관 시스템에서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및 수료자, 전국 400여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종사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러닝교육 이수자 중 청소년상담사 자격취득자의 소속기관 정보를 확인하여 연구진에게 전달하였다. 연구진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취합된 자료를 청소년상담사 취업현황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본 취업현황 전수조사 대상은 2003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배출된 청소년상담사 11,774명이며, 이중 422명은 동일인이 상위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 현황에 대한 전체 조사 대상은 11,352명이며, 이중 현재 취업 현황이 확인된 4,853명(42.8%)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상담사들의 주요 취업 기관은 951명(19.6%)이 일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초·중·고등학교가 849명(17.5%), Wee 스킵·센터·클래스가 786명(16.2%) 등의 순이었다. 즉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자들의 주요 취업 기관은 공공성의 목적을 가지고 청소년 상담을 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 Wee 스킵·센터·클래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시설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정시설’, ‘다문화 및 노인 복지 시설’, ‘대학’, ‘장애인 시설’, ‘NGO 단체’ 등이 있었다.

급수별로 살펴보면, 1급 청소년상담사들의 주요 취업 기관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0.8%, 기타 시설 15.4%, 초·중·고등학교 8.3% 순이었다. 2급 청소년상담사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2.6%, 초·중·고등학교 15.3%, Wee 스킵·센터·클래스 15.2%의 순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급 청소년상담사들은 초·중·고등학교가 1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7.3%, Wee 스킵·센터·클래스 17.2%의 순이었다.

이를 정리하면, 1급과 2급 청소년상담사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급 청소년상담사들은 초·중·고등학교에 가장 많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청소년상담사 급수별 취업 현황

	급수			전체
	1급	2급	3급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9 (40.8%)	310 (22.6%)	572 (17.3%)	951 (19.6%)
청소년복지시설	4 (2.7%)	16 (1.2%)	71 (2.1%)	91 (1.9%)
아동기관	3 (1.8%)	16 (1.2%)	73 (2.2%)	92 (1.9%)
청소년단체·시설	5 (2.9%)	24 (1.7%)	82 (2.4%)	111 (2.3%)
초·중·고등학교	14 (8.3%)	210 (15.3%)	625 (18.9%)	849 (17.5%)
대학상담센터	3 (1.8%)	72 (5.2%)	45 (1.4%)	120 (2.5%)
Wee 스킴.센터.클래스	7 (4.1%)	208 (15.2%)	571 (17.2%)	786 (16.2%)
민간상담기관	13 (7.7%)	113 (8.2%)	132 (4.0%)	258 (5.3%)
종교단체	0 (0.0%)	4 (0.3%)	2 (0.1%)	6 (0.1%)
병원	1 (0.5%)	35 (2.5%)	39 (1.2%)	75 (1.5%)
정부산하 공공기관	11 (6.5%)	80 (5.8%)	156 (4.7%)	247 (5.1%)
군 상담기관	5 (2.9%)	17 (1.2%)	12 (0.4%)	34 (0.7%)
연구기관	1 (0.5%)	5 (0.4%)	10 (0.3%)	16 (0.3%)
기업체 상담 기관	1 (0.5%)	20 (1.5%)	9 (0.3%)	30 (0.6%)
기타 시설	26 (15.4%)	139 (10.1%)	425 (12.8%)	590 (12.2%)
없음	6 (3.6%)	104 (7.6%)	487 (14.7%)	597 (12.3%)
합계	169 (100.0%)	1,373 (100.0%)	3,311 (100.0%)	4,853 (100.0%)

청소년상담사들의 취업 현황에 대한 변화를 2006년부터 총 5차에 걸쳐 실시된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우선 2006년 1차 조사에는 ‘소속기관 없음’이 1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민간상담기관(재단/사단법인 상담실, 개업상담소) 17.4%, 시도·시군구청소년지원센터 16.8% 순이었다. 2008년 2차 조사에서는 아동·청소년 상담기관 21.8%, ‘소속기관 없음’ 13.5%, 초·중·고등학교 12.3%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 3차 조사 때도 아동·청소년 상담기관 22.3%, ‘소속기관 없음’ 14.9%, 초·중·고등학교 14.8%로 2008년 조사결과와 동일한 순서를 보였다. 2013년 4차 조사에서는 아동·청소년상담센터 25.3%, 초·중·고등학교 22.7%, 청소년 단체·시설 9%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할만한 것은 ‘소속기관 없음’의

비율이 8.6%로 현저히 낮아졌다는 점이다. 2016년 5차 조사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 19.6%, 초·중·고등학교 17.5%, Wee스쿨·센터·클래스 16.2% 순으로,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상담기관 비율이 3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급의 주요 취업 기관 중 학교의 비율이 2006년 10.7%에서 2013년 27.3%, 2016년에는 초·중·고등학교와 Wee스쿨·센터·클래스 근무자가 36.1%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학교에 상담자를 많이 채용하고 있어, 학교 및 교육청이 청소년상담사들의 주요 취업 기관으로 부상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16년에는 ‘소속기관 없음’이 12.3%로, 2013년보다 다소 상승하였다. 급수별로 살펴보면, ‘소속기관 없음’이 1급(3.6%), 2급(7.6%)과 비교해 3급이 14.7%로 상대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 2. 연도별 청소년상담사 취업 현황

	2006년	2008년	2011년	2013년	2016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76 (16.8%)	331 ** (21.8%)	448 ** (22.3%)	499 ** (25.3%)	951 (19.6%)
청소년복지시설	59 (5.6%)	61 (4.0%)	57 (2.8%)	56 (2.8%)	91 (1.9%)
아동기관	0 (0.0%)	0 (0.0%)	0 (0.0%)	0 (0.0%)	92 (1.9%)
청소년단체·시설	45 (4.3%)	117 (7.7%)	167 (8.3%)	178 (9.0%)	111 (2.3%)
초·중·고등학교	106 (10.1%)	187 (12.3%)	298 (14.8%)	449 (22.7%)	849 (17.5%)
대학상담센터	42 (4.0%)	76 (5.0%)	93 (4.6%)	82 (4.1%)	120 (2.5%)
Wee 스쿨·센터·클래스	25 (2.4%)	0 (0.0%)	0 (0.0%)	0 (0.0%)	786 (16.2%)
민간상담기관	183 (17.4%)	82 (5.4%)	122 (6.1%)	130 (6.6%)	258 (5.3%)
종교단체	0 (0.0%)	64 (4.2%)	67 (3.3%)	69 (3.5%)	6 (0.1%)
병원	22 (2.1%)				75 (1.5%)
정부산하 공공기관	21 (2.0%)	88 (5.8%)	133 (6.6%)	156 (7.9%)	247 (5.1%)
군 상담기관	0 (0.0%)	8 (0.5%)	12 (0.6%)	25 (1.3%)	34 (0.7%)
연구기관(대학)	49 (4.7%)	116 (7.7%)	122 (6.0%)	89 (4.5%)	16 (0.3%)
기업체 상담 기관	0 (0.0%)	29 (1.9%)	38 (1.9%)	23 (1.2%)	30 (0.6%)
기타 시설	117 (11.1%)	154 (10.1%)	156 (7.7%)	49 (2.5%)	590 (12.2%)
없음	205 (19.5%)	205 (13.5%)	300 (14.9%)	169 (8.6%)	597 (12.3%)
합계	1,050 * (100.0%)	1,518 (100.0%)	2,013 (100.0%)	1,974 (100%)	4,853 (100.0%)

* 2006년 조사 대상은 1,038명이나 일부 중복응답으로 1,050명으로 분석

** 아동, 청소년 상담기관으로 분류

Ⅲ

설문조사

1. 설문조사 대상
2. 설문조사 절차

1

설문조사 대상

본 조사는 2003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11,77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문자와 이메일로 참여를 유도하였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에 설문 URL을 공지하여 2016년 상반기 취득자가 설문에 일부 반영되었다. 이 중 3,880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성실하게 응답한 3,148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148명은 총 설문 대상 인원의 26.7%였다. 분석된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는 310명(9.8%), 여자는 2,838명(90.2%)이었다. 한편, 1급 자격증 취득자는 99명(3.2%)이었으며, 2급 취득자는 895명(28.4%), 3급 취득자는 2,154명(68.4%)이었다. 전체 설문 대상자 분포와 본 연구 참여자 분포를 비교하면 다음 표 3, 표 4와 같다.

표 3. 성별에 따른 전체 설문 대상과 설문 참여자 분포 비교

성별	설문 대상	설문 참여자
남자	1,034 (8.8%)	310 (9.8%)
여자	10,740 (91.2%)	2,838 (90.2%)
합계	11,774 (100.0%)	3,148 (100.0%)

전체 설문 대상과 설문 참여자의 성별 비율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참여자가 설문 대상을 잘 대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hi-square 검정을 실시한 결과 설문 참여자의 분포는 전체 설문 대상의 분포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자격증 급수에 따른 전체 설문 대상과 설문 참여자 분포 비교

성별	설문 대상	설문 참여자
1급	383 (3.3%)	99 (3.2%)
2급	3,390 (28.8%)	895 (28.4%)
3급	8,001 (67.9%)	2,154 (68.4%)
합계	11,774 (100.0%)	3,148 (100.0%)

전체 설문 대상과 설문 참여자의 자격증 급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참여자가 설문 대상을 잘 대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hi-square 검정을 실시한 결과, 설문 참여자의 분포는 전체 설문 대상 분포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설문조사 절차

본 연구를 위해 선행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설문 문항을 분석하여 2016년 인력현황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설문 문항을 토대로 온라인 설문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온라인 설문 시스템을 통한 설문조사는 2016년 6월 1일부터 2016년 7월 15일까지 진행되었다. 이러한 설문 과정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문헌 연구

본 설문조사를 위해 이전에 실시되었던 총 4회(2006년, 2008년, 2011년, 2013년)의 인력현황조사 결과와 설문문항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2016년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 연구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였고, 설문지 개발을 위한 기초 틀을 마련하였다.

나. 설문지 개발

앞에서 언급한 문헌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조사의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기존 인력현황조사 연구의 설문 문항 중 불필요한 문항은 삭제하고, 새롭게 요구되는 조사 내용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최종 설문 문항은 총 44문항이었으며, 문항의 구성 내용은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최종 설문 문항 구성 내용

구 분	내 용
청소년상담사 기본 정보	. 성별, 연령, 취득년도, 급수 . 현재 소속기관 및 직책
청소년상담사 취업실태	. 근무형태 . 업무영역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활용관련	. 자격증 기여도 . 전직 희망 기관 . 청소년상담사의 활동영역 확대 분야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 보수교육 참여 유무 . 보수교육 개설 희망 과목
청소년상담사 상담내용	. 상담경력 . 내담자 특성

다. 온라인 설문 시스템 개발

온라인 설문 시스템 개발을 위해 온라인 설문 웹사이트인 서베이 몽키(<http://ko.surveymonkey.com>)를 활용하였다. 서베이 몽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온라인 설문 개발 및 실시 사이트로서 전문적인 설문조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개발된 문항을 온라인 설문시스템으로 구축한 후에는 설문실시의 오류 및 문제점을 확인하고 수정하기 위하여 예비 설문조사를 2016년 5월 15일부터 2주간 실시를 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수정한 후에 2016년 6월 1일부터 설문조사를 시작하였다. 개발된 온라인 설문 시스템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라. 온라인 설문조사

온라인 설문조사는 2016년 6월 1일부터 2016년 7월 15일까지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를 위해 설문 대상 전체에게 설문조사 실시를 알리는 문자와 이메일 발송을 실시하였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에도 설문 내용을 공지하였다. 설문 대상의 설문 참여 독려를 위해 총 3번의 문자 발송을 실시하였으며, 3,880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가능한 응답자는 3,148명이었다.

IV

설문조사 결과

1. 청소년상담사 기본 정보
2. 청소년상담사 취업 실태
3.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활용
4.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5. 청소년상담사 상담내용

1

청소년상담사 기본 정보

가.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

문1) 성별은?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310명(9.8%), 여자 2,838명(90.2%)으로 나타났으며, 자격급수에 따른 성별은 1급의 경우 남성 14명(14.1%), 여성 85명(85.9%)이었으며, 2급의 경우 남성 90명(10.1%), 여성 805명(89.9%)이었고, 3급의 경우 남성 206명(9.6%), 여성 1,948명(90.4%)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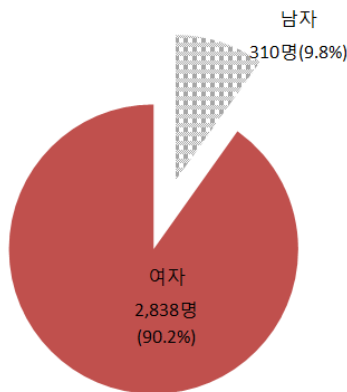


그림 1. 응답자의 성별 분포

표 6.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급수

		급 수			전체
		1급	2급	3급	
성별	남자	14 (14.1%)	90 (10.1%)	206 (9.6%)	310 (9.8%)
	여자	85 (85.9%)	805 (89.9%)	1,948 (90.4%)	2,838 (90.2%)
합계		99 (100.0%)	895 (100.0%)	2,154 (100.0%)	3,148 (100.0%)

문2) 출생년도는?

응답자의 출생년도를 통해 연령을 계산해 본 결과, 40대가 1,078명(34.2%)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은 30대로 1,042명(33.1%)이었다. 하지만 급수별로는 전체 응답자와 차이가 있었는데, 1급의 경우 40대가 가장 많은 반면(58명, 58.6%), 2급과 3급으로 갈수록 30대 이하의 비중이 높았다.

표 7. 응답자의 연령별 급수

	연령	급 수			전체
		1급	2급	3급	
	20대	2 (2.0%)	75 (8.4%)	588 (27.3%)	665 (21.1%)
	30대	15 (15.2%)	412 (46.0%)	615 (28.6%)	1,042 (33.1%)
	40대	58 (58.6%)	308 (34.4%)	712 (33.1%)	1,078 (34.2%)
	50대	23 (23.2%)	92 (10.3%)	222 (10.3%)	337 (10.7%)
	60대	1 (1.0%)	8 (0.9%)	17 (0.8%)	26 (0.8%)
합계		99 (100.0%)	895 (100.0%)	2,154 (100.0%)	3,148 (100.0%)

나. 응답자의 자격증 취득년도 및 취득 이유

문3)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년도와 급수는?

최근에 자격취득을 한 대상자일수록 조사에 많이 참여하였다. 2015년 취득자가 867명(25.9%)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2014년(616명, 18.4%), 2013년(413명, 12.3%)로 나타났다. 취득년도가 오래 될수록 응답자의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8과 같다.

표 8.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취득년도 (중복취득자 포함)

	급 수			전체
	1급	2급	3급	
2003	17 (17.2%)	49 (5.3%)	31 (1.3%)	97 (2.9%)
2004	3 (3.0%)	22 (2.4%)	10 (0.4%)	35 (1.0%)
2005	4 (4.0%)	26 (2.8%)	33 (1.4%)	63 (1.9%)
2006	4 (4.0%)	16 (1.7%)	25 (1.1%)	45 (1.3%)
2007	1 (1.0%)	41 (4.4%)	40 (1.7%)	82 (2.5%)
2008	12 (12.1%)	39 (4.2%)	89 (3.8%)	140 (4.2%)
2009	1 (1.0%)	39 (4.2%)	86 (3.7%)	126 (3.8%)
2010	7 (7.1%)	25 (2.7%)	113 (4.9%)	145 (4.3%)
2011	8 (8.1%)	61 (6.5%)	101 (4.4%)	170 (5.1%)
2012	12 (12.1%)	103 (11.1%)	275 (11.9%)	390 (11.7%)
2013	5 (5.1%)	83 (8.9%)	325 (14.0%)	413 (12.3%)
2014	5 (5.1%)	140 (15.0%)	471 (20.3%)	616 (18.4%)
2015	20 (20.2%)	241 (25.9%)	606 (26.2%)	867 (25.9%)
2016	0 (0.0%)	47 (5.0%)	110 (4.4%)	157 (4.7%)
합계	99 (100.0%)	932 (100.0%)	2,315 (100.0%)	3,346 (100.0%)

두 개 급수 이상의 자격증 취득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 중 3급 자격증만을 가진 수가 가장 많았고(2,154명, 78.4%), 그 다음으로는 2급 자격증만을 가진 응답자가 740명(23.5%), 2급과 3급을 모두 소지한 응답자가 155명(4.9%)으로 나타났다. 한 개 급수가 아닌 두 개 급수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응답자는 194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 6.1%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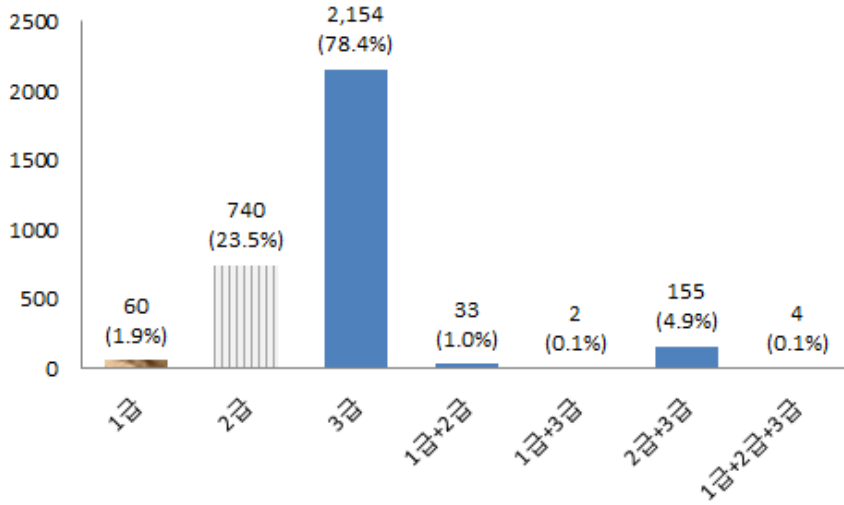


그림 2. 응답자의 자격취득 현황

문4)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자의 자격증 취득 이유를 살펴본 결과 취업에 도움이 되어서라는 응답이 1,327명 (42.2%)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자격취득 이유에는 급수별 차이가 있었다. 1급 취득자의 경우, 상담에 도움이 되어서 취득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53명, 53.5%), 2급과 3급 취득자는 취업에 도움이 되어서 취득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9.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자격취득 이유

	급수			전체
	1급	2급	3급	
취업에 도움이 되어서	16 (16.2%)	397 (44.4%)	914 (42.4%)	1,327 (42.2%)
상담에 도움이 되어서	53 (53.5%)	332 (37.1%)	842 (39.1%)	1,227 (39.0%)
승진에 도움이 되어서	3 (3.0%)	8 (0.9%)	8 (0.4%)	19 (0.6%)
일단 취득해 놓으려고	16 (16.2%)	137 (15.3%)	306 (14.2%)	459 (14.6%)
기타	11 (11.1%)	21 (2.3%)	84 (3.9%)	116 (3.7%)
합계	99 (100.0%)	895 (100.0%)	2,154 (100.0%)	3,148 (100.0%)

기타 의견으로는 ‘공인된 국가 자격증이라서’, ‘재직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관장의 요구로’, ‘상담 공부에 대한 흥미로’, ‘연수가 좋다고 해서’ 등이 있었다.

문5) (두 개 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 2개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복수 자격취득자들의 자격취득 이유에 대해 분석하였다. 복수 자격취득 응답자 194명 중 75명(38.7%)이 ‘상담에 도움이 되어서’ 취득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62명(32.0%)이 ‘취업에 도움이 되어서’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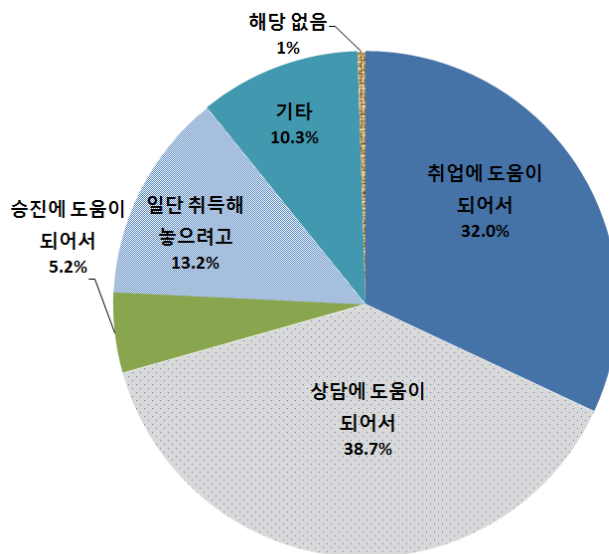


그림 3. 응답자의 복수 자격취득 이유

기타 응답으로는 ‘자격급수를 충족해서 상위 자격 취득’, ‘연수가 좋다고 해서’, ‘자기발전을 위해서’ 등이 있었다.

다. 학력 및 학과

문6)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응답자의 최종 학력은 석사 취득이 1,325명(42.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학사 취득이 878명(27.9%)이었다. 하지만 급수에 따라 최종 학력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1급의 경우 박사 취득이 44명(44.4%)으로 가장 많았고, 2급의 경우 석사 취득이 668명(74.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급의 경우, 학사 취득이 859명(27.3%)으로 가장 많았다.

표 10.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최종 학력

	급수			전체
	1급	2급	3급	
전문학사 취득	0 (0.0%)	0 (0.0%)	8 (0.4%)	8 (0.3%)
학사 재학, 휴학, 수료	0 (0.0%)	0 (0.0%)	2 (0.1%)	2 (0.1%)
학사 취득	2 (0.1%)	17 (0.5%)	859 (27.3%)	878 (27.9%)
석사 재학, 휴학, 수료	0 (0.0%)	15 (1.7%)	580 (26.9%)	595 (18.9%)
석사 취득	26 (26.3%)	668 (74.6%)	631 (29.3%)	1,325 (42.1%)
박사 재학, 휴학, 수료	27 (27.3%)	164 (18.3%)	71 (3.3%)	262 (8.3%)
박사 취득	44 (44.4%)	31 (3.5%)	3 (0.1%)	78 (2.5%)
합계	99 (100.0%)	895 (100.0%)	2,154 (100.0%)	3,148 (100.0%)

문7) 최종 학력의 학과명은 무엇입니까?

응답자의 최종 졸업 학과는 심리학과(21.9%)와 상담관련학과(27.9%)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수별로도 2급과 3급에서는 심리학과와 상담관련학과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1급에서는 교육학이 46.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11.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최종 졸업 학과명

	급수			전체
	1급	2급	3급	
청소년(지도)학	2 (2.0%)	11 (1.2%)	194 (9.0%)	207 (6.6%)
교육학	46 (46.5%)	184 (20.6%)	342 (16.9%)	572 (18.2%)
심리학	19 (19.2%)	192 (21.5%)	471 (21.9%)	682 (21.9%)
사회복지(사업)학	6 (6.1%)	57 (6.4%)	244 (11.3%)	307 (9.8%)
정신의학	1 (1.0%)	0 (0.0%)	0 (0.0%)	1 (0.0%)
아동(복지)학	9 (9.1%)	57 (6.4%)	85 (3.9%)	151 (4.8%)
상담관련학과	13 (13.1%)	303 (33.9%)	562 (26.1%)	878 (27.9%)
기타 학과	3 (3.0%)	91 (10.2%)	256 (11.9%)	350 (11.1%)
합계	99 (100.0%)	895 (100.0%)	2,154 (100.0%)	3,148 (100.0%)

기타 학과의 답변으로는 ‘가정교육과’, ‘가족복지학과’, ‘국어국문학’, ‘간호학’, ‘경영학’, ‘경제학’, ‘기독교 교육’, ‘미술사’, ‘문헌정보학’, ‘놀이치료학과’, ‘생물학’, ‘신학’, ‘언어 병리’, ‘역사 교육’, ‘연극치료학’, ‘음악과’, ‘이러닝학과’, ‘정치외교학’, ‘철학’, ‘한문교육’ 등의 다양한 답변이 있었다.

문7-1) ‘상담 관련학과’를 선택하신 경우, 정확한 학과명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관련학과’ 응답자의 정확한 학과명을 토대로 학과명을 유목화 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상담 및 임상관련학과가 60.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가족상담 관련학과, 아동·청소년 및 학교 관련학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응답자의 상담 관련학과

상담관련학과	빈도
가정 관련학과	3 (0.3%)
가족상담 관련학과	74 (8.4%)
교육대학원 및 교육 관련학과	64 (7.3%)
교정 관련학과	4 (0.5%)
종교 관련학과	62 (7.1%)
상담 및 임상관련학과	532 (60.6%)
심리치료 관련학과	8 (0.9%)
아동·청소년 및 학교 관련학과	69 (7.9%)
진로 및 직업 관련학과	8 (0.9%)
매체치료 관련학과	19 (2.2%)
사회복지 관련학과	8 (0.9%)
재활 관련학과	5 (0.6%)
산업 및 조직 관련학과	3 (0.3%)
특수 치료 관련학과	6 (0.7%)
기타 학과	9 (1.0%)
무응답	4 (0.5%)
합계	878 (100.0%)

상담 관련학과의 기타 학과는 ‘기독교가족상담학과’, ‘범죄심리학과’, ‘상담 코칭학’, ‘심리인지 치료’, ‘심리철학’, ‘심리치료교육’, ‘중독 상담’, ‘치유상담학과’, ‘커리어상담’ 등의 답변이 있었다.

라. 근무 지역

문8) 현재 근무지역은 어디입니까?

응답자의 현재 근무지역을 조사한 결과, 서울과 경기도에 근무하고 있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급수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표 13.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현 근무지역

	급수			전체
	1급	2급	3급	
강원도	2 (2.0%)	23 (2.6%)	67 (3.1%)	92 (2.9%)
경기도	21 (21.2%)	212 (23.7%)	422 (19.6%)	655 (20.8%)
경상남도	9 (9.1%)	39 (4.4%)	146 (6.8%)	194 (6.2%)
경상북도	4 (4.0%)	36 (4.0%)	128 (5.9%)	168 (5.3%)
광주광역시	5 (5.1%)	22 (2.5%)	90 (4.2%)	117 (3.7%)
대구광역시	5 (5.1%)	32 (3.6%)	122 (5.7%)	159 (5.1%)
대전광역시	4 (4.0%)	27 (3.0%)	79 (3.7%)	110 (3.5%)
부산광역시	7 (7.1%)	56 (6.3%)	117 (5.4%)	180 (5.7%)
서울특별시	18 (18.2%)	292 (32.6%)	473 (22.0%)	783 (24.9%)
세종특별자치시	2 (2.0%)	7 (0.8%)	20 (0.9%)	29 (0.9%)
울산광역시	2 (2.0%)	14 (1.6%)	49 (2.3%)	65 (2.1%)
인천광역시	3 (3.0%)	35 (3.9%)	83 (3.9%)	121 (3.8%)
전라남도	2 (2.0%)	19 (2.1%)	98 (4.5%)	119 (3.8%)
전라북도	3 (3.0%)	16 (1.8%)	70 (3.2%)	89 (2.8%)
제주특별자치도	2 (2.0%)	12 (1.3%)	32 (1.5%)	46 (1.5%)
충청남도	6 (6.1%)	32 (3.6%)	92 (4.3%)	130 (4.1%)
충청북도	4 (4.0%)	21 (2.3%)	66 (3.1%)	91 (2.9%)
합계	99 (100.0%)	895 (100.0%)	2,154 (100.0%)	3,148 (100.0%)

마. 기타 자격취득 정보

문9)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외에 취득한 자격증과 자격급수는?

표 14.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자격 취득 현황

		청소년 상담사			전체
		1급	2급	3급	
초중등교사	1급	4 (2.1%)	26 (2.1%)	16 (0.6%)	46 (1.1%)
	2급	34 (17.4%)	168 (13.4%)	308 (10.7%)	510 (11.8%)
전문상담교사	1급	7 (3.6%)	56 (4.8%)	31 (1.1%)	94 (2.2%)
	2급	8 (4.1%)	98 (7.8%)	212 (7.4%)	318 (7.3%)
전문상담사 및 상담심리사 (학회)	1급	10 (5.1%)	11 (0.9%)	4 (0.1%)	25 (0.6%)
	2급	15 (7.7%)	130 (10.4%)	123 (4.3%)	268 (6.2%)
	3급	2 (1.0%)	4 (0.3%)	21 (0.7%)	27 (0.6%)
임상심리사 (산업 인력공단)	1급	0 (0.0%)	12 (0.9%)	2 (0.1%)	14 (0.3%)
	2급	18 (9.2%)	229 (18.3%)	260 (9.0%)	507 (11.7%)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보건복지부)	1급	2 (1.0%)	13 (1.0%)	3 (0.1%)	18 (0.4%)
	2급	3 (1.5%)	30 (2.4%)	24 (0.8%)	57 (1.3%)
직업상담사 (산업 인력공단)	1급	0 (0.0%)	7 (0.6%)	7 (0.2%)	14 (0.3%)
	2급	9 (4.6%)	104 (8.3%)	322 (11.2%)	435 (10.0%)
	3급	0 (0.0%)	1 (0.9%)	15 (0.5%)	16 (0.4%)
사회복지사 (보건복지부)	1급	25 (12.8%)	164 (13.1%)	561 (19.5%)	750 (17.3%)
	2급	12 (6.2%)	80 (6.4%)	384 (13.3%)	476 (11.0%)
	3급	1 (0.5%)	2 (0.2%)	12 (0.4%)	15 (0.4%)
청소년지도사 (여성가족부)	1급	18 (9.2%)	12 (1.0%)	30 (1.0%)	60 (1.4%)
	2급	25 (12.8%)	98 (7.8%)	500 (17.3%)	623 (14.4%)
	3급	2 (1.0%)	9 (0.7%)	49 (1.7%)	60 (1.4%)
합계		195 (100.0%)	1,254 (100.0%)	2,884 (100.0%)	4,333 (100.0%)

응답자의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이외 취득 자격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회복지사(보건복지부) 1급이 750명(17.3%), 초중등교사 2급이 510명(11.8%), 산업인력공단의 임상심리사 2급이 507명(11.7%)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

청소년상담사 취업 실태

가. 현재 소속기관

문10) 현재 소속 기관은 어디입니까?

응답자의 현재 소속 기관은 없음이 597명(19.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Wee 스쿨, Wee 센터, Wee 클래스인 것으로 나타났다(533명, 16.9%). 그 다음은 490명(15.6%)이 응답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였다.

표 15.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현재 소속기관

	급수			전체
	1급	2급	3급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1 (31.3%)	163 (18.2%)	296 (13.7%)	490 (15.6%)
청소년복지시설	3 (3.0%)	5 (0.6%)	42 (1.9%)	50 (1.6%)
아동기관	3 (3.0%)	16 (1.8%)	73 (3.4%)	92 (2.9%)
청소년단체·시설	2 (2.0%)	16 (1.8%)	69 (3.2%)	87 (2.8%)
초·중·고등학교	5 (5.1%)	76 (8.5%)	236 (11.0%)	317 (10.1%)
대학상담센터	3 (3.0%)	72 (8.0%)	45 (2.1%)	120 (3.8%)
Wee 스쿨·센터·클래스	6 (6.1%)	140 (15.6%)	387 (18.0%)	533 (16.9%)
민간상담기관	13 (13.1%)	113 (12.6%)	132 (6.1%)	258 (8.2%)
종교단체	0 (0.0%)	4 (0.4%)	2 (0.1%)	6 (0.2%)
병원	1 (1.0%)	35 (3.9%)	39 (1.8%)	75 (2.4%)
정부산하 공공기관	8 (8.1%)	75 (8.4%)	153 (7.1%)	236 (7.5%)
군 상담기관	5 (5.1%)	17 (1.9%)	12 (0.6%)	34 (1.1%)
연구기관	1 (1.0%)	5 (0.6%)	10 (0.5%)	16 (0.5%)
기업체 상담 기관	1 (1.0%)	20 (2.2%)	9 (0.4%)	30 (1.0%)
기타	11 (11.1%)	34 (3.8%)	162 (7.5%)	207 (6.6%)
없음	6 (6.1%)	104 (11.6%)	487 (22.6%)	597 (19.0%)
합계	99 (100.0%)	895 (100.0%)	2,154 (100.0%)	3,148 (100.0%)

현재 소속 기관은 급수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1급과 2급의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31.3%, 18.2%로 가장 많았고, 3급의 경우 없음이 22.6%로 가장 많았다.

기타 답변으로는 'NGO 단체', '개인 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무원', '교정시설', '다문화 및 노인 복지 시설', '대학', '장애인 시설', '일반 회사' 등이 있었다.

문10-0) 현재 미취업 상태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소속기관이 없는 응답자 중 미취업 이유를 조사한 결과 '육아 및 가사를 위해서'란 응답이 145명(24.3%)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학업을 위해서(122명, 20.4%)'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수별로는 1급과 2급은 '육아 및 가사를 위해서'가 각각 50%(3명), 48.1%(50명)로 가장 많았고, 3급의 경우 '학업을 위해서(112명, 20.4%)'와 '기타(114명, 24.3%)'가 많았다.

표 16.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미취업 이유

	급수			전체
	1급	2급	3급	
학교 졸업 후 구직활동 중이라서	0 (0.0%)	7 (6.7%)	53 (10.9%)	60 (10.1%)
이직을 위한 구직활동 중이라서	0 (0.0%)	22 (21.2%)	95 (19.5%)	117 (19.6%)
학업을 위해서	2 (33.3%)	8 (7.7%)	112 (23.0%)	122 (20.4%)
육아 및 가사를 위해서	3 (50.0%)	50 (48.1%)	93 (19.1%)	145 (24.3%)
상위자격 취득을 위해서	0 (0.0%)	1 (1.0%)	20 (4.1%)	21 (3.5%)
기타	1 (16.7%)	16 (15.4%)	114 (23.4%)	130 (21.8%)
합계	6 (100.0%)	104 (100.0%)	487 (100.0%)	597 (100.0%)

미취업 이유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자의 경우 '학업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47.5%로 가장 많았던 반면, 여자는 '육아 및 가사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25.9%로 가장 많았다.

표 17.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미취업 이유

	성별		전체
	남자	여자	
학교 졸업 후 구직활동 중이라서	0 (0.0%)	60 (10.8%)	60 (10.1%)
이직을 위한 구직활동 중이라서	9 (22.5%)	108 (19.4%)	117 (19.6%)
학업을 위해서	19 (47.5%)	103 (18.5%)	122 (20.5%)
육아 및 가사를 위해서	1 (2.5%)	144 (25.9%)	145 (24.3%)
상위자격 취득을 위해서	3 (7.5%)	18 (3.2%)	21 (3.5%)
기타	8 (20.0%)	122 (21.9%)	130 (21.8%)
합계	40 (100.0%)	557 (100.0%)	597 (100.0%)

기타 답변으로는 ‘3급만으로는 취업이 안 돼서’, ‘개인사정’, ‘건강상의 이유’, ‘경력이 없어서’,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요구해서’, ‘다른 업무 종사’, ‘보수가 너무 적어서’, ‘취업이 되지 않아서’ 등이 있었다.

나. 채용 우대 자격증

문10-1) 현재 소속기관에 취업 시 채용 우대 조건이 되었던 자격증은?

응답자의 채용 우대 조건이 되었던 자격증은 ‘청소년상담사’가 45.6%(1,16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기타자격증’, ‘상담심리사 및 전문상담사 자격증’,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급수별로 차이가 없었다.

기타 답변으로는 ‘성폭력 상담사’, ‘간호사 면허증’, ‘사회복지사’, ‘놀이심리상담사’, ‘보육교사’, ‘사회조사 분석사’ 등의 자격증이 있었고, 자격증이 아닌 ‘공채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경력’ 등의 응답도 있었다.

표 18.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채용 우대 자격증

	최종급수			전체
	1급	2급	3급	
청소년상담사	36 (38.7%)	313 (39.6%)	814 (48.8%)	1,163 (45.6%)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23 (24.7%)	177 (22.4%)	102 (6.1%)	302 (11.8%)
전문상담교사	6 (6.5%)	94 (11.9%)	176 (10.6%)	276 (10.8%)
초·중등교사	3 (3.2%)	21 (2.7%)	55 (3.3%)	79 (3.1%)
임상심리사(산업인력공단)	3 (3.2%)	48 (6.1%)	80 (4.8%)	131 (5.1%)
정신보건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2 (2.2%)	25 (3.2%)	31 (1.9%)	58 (2.3%)
직업상담사	0 (0.0%)	7 (0.9%)	54 (3.2%)	61 (2.4%)
기타	20 (21.5%)	106 (13.4%)	355 (21.3%)	481 (18.9%)
합계	93 (100.0%)	791 (100.0%)	1,667 (100.0%)	2,551 (100.0%)

다. 근무 형태 및 시간

문10-2) 현재 소속기관에서의 근무형태는?

응답자의 근무형태는 비정규직(전일제)이 40.8%로 가장 많았고, 정규직이 32.7%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급수별로는 근무형태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급수가 높을수록 정규직의 비율이 높고, 급수가 낮아질수록 비정규직(전일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19.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근무형태

	급수			전체
	1급	2급	3급	
정규직	66 (71.0%)	285 (36.0%)	482 (28.9%)	833 (32.7%)
비정규직(전일제)	13 (14.0%)	276 (34.9%)	751 (45.1%)	1,040 (40.8%)
비정규직(시간제)	8 (8.6%)	206 (26.0%)	319 (19.1%)	533 (20.9%)
아르바이트(일용직)	0 (0.0%)	8 (1.0%)	19 (1.1%)	27 (1.1%)
자원봉사	2 (2.2%)	7 (0.9%)	66 (4.0%)	75 (2.9%)
기타	4 (4.3%)	9 (1.1%)	30 (1.8%)	43 (1.7%)
합계	93 (100.0%)	791 (100.0%)	1,667 (100.0%)	2,551 (100.0%)

성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 남자의 정규 정규직의 비율이 50.7%, 비정규직(전일제)이 32.2%로 나타난 반면, 여자의 경우 비정규직(전일제)이 41.8%, 정규직 30.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0.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근무형태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정규직	137 (50.7%)	696 (30.5%)	833 (32.7%)
비정규직(전일제)	87 (32.2%)	953 (41.8%)	1,040 (40.8%)
비정규직(시간제)	37 (13.7%)	496 (21.7%)	533 (20.9%)
아르바이트(일용직)	1 (0.4%)	26 (1.1%)	27 (1.1%)
자원봉사	4 (1.5%)	71 (3.1%)	75 (2.9%)
기타	4 (1.5%)	39 (1.7%)	43 (1.7%)
합계	270 (100.0%)	2,281 (100.0%)	2,551 (100.0%)

역할에 따른 근무형태의 차이도 나타났다. 관리직일수록 정규직의 비율 80.3%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직의 경우도 정규직의 비율이 42.7%로 높았다. 하지만 상담직이나 연구직, 행정직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전일제)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21. 응답자의 역할별 근무형태

	주요 역할							전체
	상담	연구	관리	교육	임상	행정	기타	
정규직	345 (22.1%)	11 (27.5%)	163 (80.3%)	97 (42.7%)	39 (46.4%)	118 (45.4%)	60 (34.5%)	833 (32.7%)
비정규직 (전일제)	704 (45.0%)	17 (42.5%)	24 (11.8%)	63 (27.8%)	29 (34.5%)	122 (46.9%)	81 (46.6%)	1,040 (40.8%)
비정규직 (시간제)	425 (27.2%)	6 (15.0%)	12 (5.9%)	47 (20.7%)	12 (14.3%)	13 (5.0%)	18 (10.3%)	533 (20.9%)
아르바이트 (일용직)	18 (1.2%)	0 (0.0%)	1 (0.5%)	6 (2.6%)	0 (0.0%)	1 (0.4%)	1 (0.6%)	27 (1.1%)
자원봉사	51 (3.3%)	0 (0.0%)	1 (0.5%)	10 (4.4%)	1 (1.2%)	3 (1.2%)	9 (5.2%)	75 (2.9%)
기타	20 (1.3%)	6 (15.0%)	2 (10.0%)	4 (1.8%)	3 (3.6%)	3 (1.2%)	5 (2.9%)	43 (1.7%)
합계	1,563 (100.0%)	40 (100.0%)	203 (100.0%)	227 (100.0%)	84 (100.0%)	260 (100.0%)	174 (100.0%)	2,551 (100.0%)

기타 답변으로는 상담직이나 교육직의 경우 ‘교육생(인턴, 레지던트 등)’, ‘무기계약직’, ‘프리랜서’, ‘강사’ 등이 있었고, 연구직이나 임상, 행정직에는 ‘무기계약직’, ‘교육생(인턴, 레지던트 등)’, ‘위촉직’ 등이 있었으며, 관리직에는 ‘개인 사업자’가 있었다.

문10-3)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의 주 당 평균 근로시간은?

응답자의 대부분인 65.3%가 40~49시간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11.7%가 응답한 10~19시간이었고, 10시간 미만의 답변도 10.6%로 나타났다.

표 22.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주당근무시간

	급수			전체
	1급	2급	3급	
10시간 미만	3 (3.2%)	84 (10.6%)	183 (11.0%)	270 (10.6%)
10~19시간	6 (6.5%)	105 (13.3%)	187 (11.2%)	298 (11.7%)
20~29시간	3 (3.2%)	38 (4.8%)	81 (4.9%)	122 (4.8%)
30~39시간	5 (5.4%)	35 (4.4%)	39 (2.3%)	79 (3.1%)
40~49시간	68 (73.1%)	500 (63.2%)	1,099 (65.9%)	1,667 (65.3%)
50~59시간	8 (8.6%)	27 (3.4%)	56 (3.4%)	91 (3.6%)
60시간 이상	0 (0.0%)	2 (0.3%)	18 (1.1%)	20 (0.8%)
결측*	0 (0.0%)	0 (0.0%)	4 (0.2%)	4 (0.2%)
합계	93 (100.0%)	791 (100.0%)	1,667 (100.0%)	2,551 (100.0%)

* 결측: 소속기관이 있음에도 근무시간이 0시간이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근무시간일 경우 결측치로 처리함.

급수별 평균근무시간에서는 1급 응답자의 평균이 37.18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3.06시간인 3급 응답자의 근무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평균근무시간

급수	평균	N	표준편차
1급	37.18	93	10.20
2급	32.20	791	13.79
3급	33.06	1,663	14.20
합계	32.95	2,547*	13.98

* 주당근무시간의 결측값인 4명을 제외한 2,547명을 분석에 사용함.

라. 업무 내용

문10-4) 현재 소속기관에서의 업무 비율은? (100% 기준)

응답자의 업무 영역 중 행정과 상담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행정 43.7%, 상담 56.3%로 나타나 상담이 행정에 비해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속기관에서의 업무 내용을 자격 급수에 따라 살펴보면, 1급 취득자의 업무는 행정 50.9%, 상담 49.1%로 나타나 행정 업무의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2급 취득자의 경우 행정 40.2%, 상담 59.8%로 나타나 상담 영역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급 역시 행정 45.0%, 상담 55.0%로 나타나 상담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표 24.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업무 비율

	급수			전체
	1급	2급	3급	
행정	50.9%	40.2%	45.0%	43.7%
상담	49.1%	59.8%	55.0%	56.3%
표준편차	28.16	28.02	27.04	27.50

문10-5) 현재 소속기관에서의 주요 역할은?

현재 소속기관에서의 주요 역할이 ‘상담’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563명(61.3%)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 260명(10.2%), ‘교육’ 227명(8.9%), ‘관리’ 203명(8.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답변으로는 ‘사회복지’, ‘사업 및 프로그램 기획’ 등이 있었다.

이어서 자격 급수에 따른 주요 역할을 살펴보면 1급의 경우 ‘관리(팀장, 소장 등)’ 42명(45.2%), ‘상담’ 29명(31.2%), ‘교육’ 11명(11.8%) 순으로 나타났고, 2급은 ‘상담’ 506명(64.0%), ‘관리’ 78명(9.9%), ‘행정’ 68명(8.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3급의 경우는 ‘상담’ 1,028명(61.7%), ‘행정’ 187명(11.2%), ‘교육’ 156명(9.4%) 순으로 나타나 1급은 주로 관리직에 2급과 3급은 주로 상담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5.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주요 역할

	급수			전체
	1급	2급	3급	
상담	29 (31.2%)	506 (64.0%)	1,028 (61.7%)	1,563 (61.3%)
연구	2 (2.2%)	10 (1.3%)	28 (1.7%)	40 (1.6%)
관리	42 (45.2%)	78 (9.9%)	83 (5.0%)	203 (8.0%)
교육	11 (11.8%)	60 (7.6%)	156 (9.4%)	227 (8.9%)
임상	3 (3.2%)	35 (4.4%)	46 (2.8%)	84 (3.3%)
행정	5 (5.4%)	68 (8.6%)	187 (11.2%)	260 (10.2%)
기타	1 (1.1%)	34 (4.3%)	139 (8.3%)	174 (6.8%)
합계	93 (100.0%)	791 (100.0%)	1,667 (100.0%)	2,551 (100.0%)

마. 교육 지원

문10-6) 현재 직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내용은? (중복 응답)

응답자의 현재 직장의 교육 지원 사항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교육 지원이 없다’는 응답이 24.5%(865명)로 나타났으며, 교육 지원 내용은 ‘직장 내 전문성 향상 교육’ 849명(24.0%), ‘교육비 지원’ 663명(18.8%), ‘슈퍼비전 및 공개사례발표지원’ 657명(18.6%) 순으로 나타났다.

표 26.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교육 지원 내용

	급수			전체
	1급	2급	3급	
공가처리	23 (14.5%)	130 (11.4%)	223 (10.0%)	376 (10.6%)
교육비 지원	37 (23.3%)	231 (20.3%)	395 (17.7%)	663 (18.8%)
직장 내 전문성 향상 교육	42 (26.4%)	256 (22.5%)	551 (24.7%)	849 (24.0%)
수퍼비전 및 공개사례발표 지원	28 (17.6%)	228 (20.0%)	401 (18.0%)	657 (18.6%)
교육지원 없음	26 (16.4%)	272 (23.9%)	567 (25.4%)	865 (24.5%)
기타	3 (1.9%)	23 (2.0%)	96 (4.3%)	122 (3.5%)
합계	159 (100.0%)	1,140 (100.0%)	2,233 (100.0%)	3,532 (100.0%)

이를 자격 급수에 따라 살펴보면, 1급의 경우 ‘교육지원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6.4%(26명)에 그쳤으나 2급과 3급의 경우 각각 23.9%(272명), 25.4%(567명)로 나타나 교육 지원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기타 의견으로는 교육청 주관 직무 연수, 소진 예방 프로그램, 교육 참여에 대한 출장 처리, 교통비 지급 등이 있었다.

문10-7)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 연간 교육비 지원 한도액은?

응답자들의 연간 교육비 지원 한도액을 살펴본 결과, 교육비 지원 ‘없음’이라는 응답이 62.1%(158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교육비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한도액은 ‘1~10만원’(236명, 9.2%)과 ‘10~20만원’(236명, 9.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27.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교육비 지원 한도액

	급수			전체
	1급	2급	3급	
없음	45 (48.4%)	460 (58.2%)	1,079 (64.7%)	1,584 (62.1%)
1만원~10만원	10 (10.8%)	88 (11.1%)	138 (8.3%)	236 (9.2%)
11만원~20만원	10 (10.8%)	69 (8.7%)	157 (9.4%)	236 (9.2%)
21만원~30만원	14 (15.1%)	63 (7.9%)	98 (5.9%)	175 (6.9%)
31만원~40만원	2 (2.2%)	27 (3.4%)	38 (2.3%)	67 (2.6%)
41만원~50만원	5 (5.4%)	17 (2.1%)	26 (1.6%)	48 (1.9%)
51만원~60만원	1 (1.1%)	6 (0.8%)	12 (0.7%)	19 (0.7%)
61만원~70만원	0 (0.0%)	1 (0.1%)	3 (0.2%)	4 (0.2%)
71만원~80만원	0 (0.0%)	1 (0.1%)	2 (0.1%)	3 (0.1%)
81만원~90만원	1 (1.1%)	1 (0.1%)	1 (0.1%)	3 (0.1%)
91만원~100만원	1 (1.1%)	6 (0.8%)	11 (0.7%)	18 (0.7%)
101만원 이상	0 (0.0%)	3 (0.4%)	7 (0.4%)	10 (0.4%)
무응답	4 (4.3%)	49 (6.2%)	95 (5.7%)	148 (5.8%)
합계	93 (100.0%)	791 (100.0%)	1,667 (100.0%)	2,551 (100.0%)

바. 월 평균 소득

문11) 본인의 현재 월 평균 소득은?

응답자들의 현재 월 평균 소득을 살펴본 결과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2.9%(1349명)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소득 없음’ 포함)’ 29.9%(941명), ‘200만원 이

상~300만원 미만' 19.9%(625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취업' 상태라고 응답한 597명을 제외하더라도 절반 이상의 응답자의 소득이 '무급 ~ 200만원 이하'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 급수에 따른 월 평균 소득을 살펴본 결과, 급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1급의 경우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의 응답이 32.3%(32명)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5.3%(25명),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8.2%(18명)로 나타났으며, 2급의 경우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5.5%(318명),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9.7%(266명)로 나타났다. 한편, 3급 취득자의 47.4%(1,022명)는 월평균 소득을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고, 33.8%(729명)는 '100만원 미만(소득 없음 포함)'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전체 1급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에, 2급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급 응답자의 대부분은 '소득 없음~200만원 미만'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8.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월 평균 소득

	급수			전체
	1급	2급	3급	
100만원 미만	6 (6.1%)	206 (23.0%)	729 (33.8%)	941 (29.9%)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9 (9.1%)	318 (35.5%)	1,022 (47.4%)	1,349 (42.9%)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25 (25.3%)	266 (29.7%)	334 (15.5%)	625 (19.9%)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32 (32.3%)	78 (8.7%)	44 (2.0%)	154 (4.9%)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8 (18.2%)	14 (1.6%)	12 (0.6%)	44 (1.4%)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5 (5.1%)	8 (0.9%)	6 (0.3%)	19 (0.6%)
600만원 이상	4 (4.0%)	5 (0.6%)	7 (0.3%)	16 (0.5%)
합계	99 (100.0%)	895 (100.0%)	2,154 (100.0%)	3,148 (100.0%)

문12) 본인의 희망 월 평균 소득은?

현재 월 평균 소득과 함께 희망하는 월 평균 소득을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1급 응답자의 대부분은 '3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을, 2급 응답자와 3급 응답자의 70% 이상은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표 29에 제시하였다.

표 29.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희망 월 평균 소득

	급수			전체
	1급	2급	3급	
100만원 미만	0 (0.0%)	2 (0.2%)	16 (0.7%)	18 (0.6%)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0 (0.0%)	59 (6.6%)	255 (11.8%)	314 (10.0%)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6 (6.1%)	371 (41.5%)	1,355 (62.9%)	1,732 (55.0%)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31 (31.3%)	307 (34.3%)	407 (18.9%)	745 (23.7%)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3 (23.2%)	96 (10.7%)	63 (2.9%)	182 (5.8%)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4 (24.2%)	36 (4.0%)	28 (1.3%)	88 (2.8%)
600만원 이상	15 (15.2%)	24 (2.7%)	30 (1.4%)	69 (2.2%)
합계	99 (100.0%)	895 (100.0%)	2,154 (100.0%)	3,148 (100.0%)

사. 처우 개선 사항

문13) 청소년상담사의 처우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응답자들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문해보았다. 전체 응답 중 ‘연봉수준의 정상화(동일 학력의 연봉 수준)’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고, ‘비정규직 최소화 및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가 27.2%, ‘업무내용의 합리적 조정’이 10.1%로 뒤를 이었다. 한편 기타 의견으로는 ‘열정 페이(pay)가 만연한 근무 환경 개선’, ‘학사 졸업자, 초보 상담자, 3급 취득자 등이 일할 수 있는 고용 시장 확대’ 등이 있었다.

뒤이어 응답자들의 연령에 따라 처우 개선 희망 내용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반적인 분포는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몇 가지 응답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복지 강화(탁아시설, 휴게실, 운동 및 교육 지원 등)’의 경우 40대~60대에서는 2.5%~4.2%의 응답을 보인 반면, 20대~30대에서는 약 8.7%의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휴가(안식년 혹은 안식월 포함) 및 휴직(육아휴직 등)제도의 활성화’ 역시 40대~60대의 응답보다 20대~30대의 응답이 약 두 배 정도 높았는데, 이는 20대~30대의 발달 과업 중 하나인 ‘출산 및 육아’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정규직 최소화 및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의 응답률은 40대~60대의 응답(30.8%~35.8%)이 20대~30대의 응답(21.2%~23.4%)에 비해 약 10%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상담사의 필요에 맞는 처우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층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0. 응답자의 연령별 처우 개선 희망 내용

	연령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연봉수준의 정상화	511 (39.2%)	773 (39.6%)	762 (40.8%)	231 (41.5%)	14 (35.9%)	2,291 (40.0%)
근무시간의 정상화	125 (9.6%)	124 (6.3%)	92 (4.9%)	24 (4.3%)	2 (5.1%)	367 (6.4%)
직장 내 복지 강화	113 (8.7%)	170 (8.7%)	79 (4.2%)	14 (2.5%)	1 (2.6%)	377 (6.6%)
업무내용의 합리적 조정	132 (10.1%)	211 (10.8%)	184 (9.8%)	45 (8.1%)	5 (12.8%)	577 (10.1%)
휴가 및 휴직제도의 활성화	117 (9.0%)	195 (10.0%)	96 (5.1%)	27 (4.9%)	2 (5.1%)	437 (7.6%)
비정규직 최소화 및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277 (21.2%)	458 (23.4%)	613 (32.8%)	199 (35.8%)	12 (30.8%)	1,559 (27.2%)
기타	29 (2.2%)	23 (1.2%)	43 (2.3%)	16 (2.9%)	3 (7.7%)	114 (2.0%)
합계	1,304 (100.0%)	1,954 (100.0%)	1,869 (100.0%)	556 (100.0%)	39 (100.0%)	5,722 (100.0%)

아. 취업 정보 취득 경로

문14) 청소년상담사가 취업 가능한 취업관련 정보를 알게 된 주요 경로는?

응답자들의 취업 정보 취득 경로를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43.4%(1,366명)는 주로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관련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회 홈페이지’나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는 ‘지인의 소개’가 가장 많았고, 이 외에도 ‘워크넷 등 취업 포털 사이트’, ‘카운피아’, ‘학교 홈페이지’등이 있었다.

표 31.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취업 정보 취득 경로

	급수			전체
	1급	2급	3급	
리플렛	1 (1.0%)	12 (1.3%)	26 (1.2%)	39 (1.2%)
해당 기관 홈페이지	39 (39.4%)	293 (32.7%)	1,034 (48.0%)	1,366 (43.4%)
자격연수 수업 또는 안내	8 (8.1%)	46 (5.1%)	157 (7.3%)	211 (6.7%)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14 (14.1%)	103 (11.5%)	361 (16.8%)	478 (15.2%)
학회 홈페이지	27 (27.3%)	326 (36.4%)	253 (11.7%)	606 (19.3%)
기타	10 (10.1%)	115 (12.8%)	323 (15.0%)	448 (14.2%)
합계	99 (100.0%)	895 (100.0%)	2,154 (100.0%)	3,148 (100.0%)

한편, 취득 급수에 따라 정보 취득 경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1급 취득자의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39명, 39.4%)’, ‘학회 홈페이지(27명, 27.3%)’,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14명, 14.1%)’순으로 나타난 반면, 2급은 ‘학회 홈페이지(326명, 36.4%)’, ‘해당 기관 홈페이지(293명, 32.7%)’, ‘기타(115명, 12.8%)’ 순으로 나타났고, 3급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1,034명, 48.0%)’,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361명, 16.8%)’, ‘기타(323명, 15.0%)’ 순이었다.

자. 배치 확대 희망 기관

문15) 청소년상담사 배치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기관 또는 분야는?

어떤 기관 또는 분야에 청소년상담사 배치가 확대되었으면 하는지 물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2.7%)이 ‘교육관련 기관’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뒤를 ‘복지 기

관(14.3%)’, ‘법무관련 기관(13.6%)’, ‘군관련 기관(6.2%)’이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법무관련 기관’과 ‘군관련 기관’에 응답한 비율이 각각 18.1%(56명), 13.5%(42명)인 반면, 여성은 각각 13.1%(373명), 5.4%(154명)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표 32.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배치 확대 희망 기관

	성별		전체
	남성	여성	
교육관련 기관	130 (41.9%)	1,530 (53.9%)	1,660 (52.7%)
법무관련 기관	56 (18.1%)	373 (13.1%)	429 (13.6%)
복지 기관	34 (11.0%)	416 (14.7%)	450 (14.3%)
군관련 기관	42 (13.5%)	154 (5.4%)	196 (6.2%)
기업	18 (5.8%)	126 (4.4%)	144 (4.6%)
민간상담 기관	9 (2.9%)	107 (3.8%)	116 (3.7%)
연구 기관	7 (2.3%)	45 (1.6%)	52 (1.7%)
기타	14 (4.5%)	87 (3.1%)	101 (3.2%)
합계	310 (100.0%)	2,838 (100.0%)	3,148 (100.0%)

문15-1) 응답하신 분야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관명을 적어주십시오.

배치가 확대되기를 희망하는 기관의 명을 각 분야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교육관련 기관’에는 초·중·고등학교, Wee센터 및 Wee 클래스, 대학상담센터 등이 있었으며, ‘법무관련 기관’은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의 교정 시설과 법무부, 법원, 보호관찰소 등이 있었다. 그리고 ‘복지 기관’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등이 있었으며, ‘군관련 기관’에는 군부대, 군병원, 병무청, 방위산업체 등이 포함되었다. ‘기업’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등의 구체적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라는 응답이 나타났고, ‘민간상담 기관’에는 개인상담소, 로컬 신경정신과 등의 응답이 주를 이뤘다. 또 구체적인 ‘연구 기관’으로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학 및 기업 내 연구소 등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타’ 응답으로는 동사무소, 구청, 시청 등의 공공 기관, 직업훈련기관, 취약계층을 위한 기관 등이 있었다.

차. 이직

문16) 지난 1년 이내에 이직하거나 이직을 고민한 경험은?

지난 1년 이내 이직하거나 이직을 고민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본 결과, 이직 또는 이직 고민은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59.7%(1878명), ‘없다’는 응답이 40.3%(1270명)로 나타나 이직 또는 이직 고민을 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직을 하거나 고민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33. 응답자의 연령별 이직 또는 이직 고민 여부

	연령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있다	453 (68.1%)	646 (62.0%)	611 (56.7%)	160 (47.5%)	8 (30.8%)	1,878 (59.7%)
없다	212 (31.9%)	396 (38.0%)	467 (43.3%)	177 (52.5%)	18 (69.2%)	1,270 (40.3%)
합계	665 (100.0%)	1,042 (100.0%)	1,078 (100.0%)	337 (100.0%)	26 (100.0%)	3,148 (100.0%)

한편, 이와 함께 직장 내 역할에 따른 이직 및 이직 고민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행정직, 상담직은 각각 71.2%(185명), 62.0%(969명)로 전체 평균에 비해 이직 또는 이직 고민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직, 관리직(팀장, 소장 등), 임상직은 평균에 비해 이직 또는 이직 고민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응답자의 역할별 이직 또는 이직 고민 여부

	역할								전체
	상담	연구	관리	교육	임상	행정	기타	없음 (무직)	
있다	969 (62.0%)	21 (52.5%)	112 (55.2%)	139 (61.2%)	47 (56.0%)	185 (71.2%)	115 (66.1%)	290 (48.6%)	1,878 (59.7%)
없다	594 (38.0%)	19 (47.5%)	91 (44.8%)	88 (38.8%)	37 (44.0%)	75 (28.8%)	59 (33.9%)	307 (51.4%)	1,270 (40.3%)
합계	1,563 (100.0%)	40 (100.0%)	203 (100.0%)	227 (100.0%)	84 (100.0%)	260 (100.0%)	174 (100.0%)	597 (100.0%)	3,148 (100.0%)

문16-1) 이직하거나 이직을 고민한 이유는? (중복 응답)

이직 또는 이직 고민을 한 이유로는 ‘연봉이 희망하는 수준에 비해 적어서’라는 응답이 974회(31.2%)로 가장 많았고, 뒤 이어 ‘비정규직이라 안정감이 없어서(680회, 21.8%)’, ‘직장 내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407회, 13.0%)’, ‘직장의 복지수준이 낮아서(240회, 7.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의견으로는 ‘업무량이 많아서’, ‘지역 이동’, ‘소진(burn-out)’등이 있었다.

표 35. 응답자의 역할별 이직 또는 이직 고민 이유

	역할								전체
	상담	연구	관리	교육	임상	행정	기타	없음 (무직)	
연봉이 희망하는 수준에 비해 적어서	574 (34.8%)	8 (26.7%)	53 (29.4%)	59 (26.1%)	26 (31.3%)	87 (29.8%)	50 (26.7%)	117 (26.9%)	974 (31.2%)
직장 내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173 (10.5%)	8 (26.7%)	28 (15.6%)	35 (15.5%)	14 (16.9%)	65 (22.3%)	31 (16.6%)	53 (12.2%)	407 (13.0%)
직장이 영세하여 미래가 불안해서	50 (3.0%)	1 (3.3%)	17 (9.4%)	13 (5.8%)	3 (3.6%)	13 (4.5%)	6 (3.2%)	12 (2.8%)	115 (3.7%)
비정규직이라 안정감이 없어서	397 (24.0%)	6 (20.0%)	15 (8.3%)	52 (23.0%)	17 (20.5%)	61 (20.9%)	38 (20.3%)	94 (21.6%)	680 (21.8%)
직장의 복지수준이 낮아서	126 (7.6%)	2 (6.7%)	19 (10.6%)	15 (6.6%)	12 (14.5%)	28 (9.6%)	10 (5.3%)	28 (6.4%)	240 (7.7%)
직장 내 대인관계 문제 때문에	64 (3.9%)	1 (3.3%)	20 (11.1%)	11 (4.9%)	1 (1.2%)	12 (4.1%)	6 (3.2%)	17 (3.9%)	132 (4.2%)
학업(진학)을 위해서	85 (5.1%)	3 (10.0%)	8 (4.4%)	12 (5.3%)	4 (4.8%)	7 (2.4%)	13 (7.0%)	33 (7.6%)	165 (5.3%)
계약만료	107 (6.5%)	0 (0.0%)	3 (1.7%)	17 (7.5%)	2 (2.4%)	18 (6.2%)	16 (8.6%)	62 (14.3%)	225 (7.2%)
기타	75 (4.5%)	1 (3.3%)	17 (9.4%)	12 (5.3%)	4 (4.8%)	1 (0.3%)	17 (9.1%)	19 (4.4%)	182 (5.8%)
합계	1,651 (100.0%)	30 (100.0%)	180 (100.0%)	226 (100.0%)	83 (100.0%)	292 (100.0%)	187 (100.0%)	435 (100.0%)	3,120 (100.0%)

응답자의 역할별 이직 및 이직 고민 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담직의 경우 ‘연봉’(574명, 34.8%)이나 ‘신분 안정’(397명, 24.0%)을 이유로 이직 또는 이직 고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직은 ‘연봉’(8명, 26.7%)과 ‘신분 안정’(6명, 20.0%)뿐 아니라 ‘직장 내 업무 불만족’(8명, 26.7%) 및 ‘학업(진학)’(3명, 10.0%)을 위해 이직 또는 이직 고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활용

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기여

문17)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이 진로개발(취업, 승진)에 기여하였는가?

표 36. 응답자의 근무지(거주지)별 자격증 취득 기여도

	기여도				전체
	기여하지 않았다	약간 기여하였다	꽤 기여하였다	매우 기여하였다	
강원도	22 (23.9%)	36 (39.1%)	21 (22.8%)	13 (14.1%)	92 (100.0%)
경기도	134 (20.5%)	313 (47.8%)	138 (21.1%)	70 (10.7%)	655 (100.0%)
경상남도	41 (21.1%)	77 (39.7%)	49 (25.3%)	27 (13.9%)	194 (100.0%)
경상북도	28 (16.7%)	68 (40.5%)	46 (27.4%)	26 (15.5%)	168 (100.0%)
광주광역시	20 (17.1%)	55 (47.0%)	31 (26.5%)	11 (9.4%)	117 (100.0%)
대구광역시	37 (23.3%)	69 (43.4%)	36 (22.6%)	17 (10.7%)	159 (100.0%)
대전광역시	20 (18.2%)	45 (40.9%)	32 (29.1%)	13 (11.8%)	110 (100.0%)
부산광역시	40 (22.2%)	87 (48.3%)	37 (20.6%)	16 (8.9%)	180 (100.0%)
서울특별시	174 (22.2%)	394 (50.3%)	158 (20.2%)	57 (7.3%)	783 (100.0%)
세종특별자치시	11 (37.9%)	13 (44.8%)	4 (13.8%)	1 (3.4%)	29 (100.0%)
울산광역시	14 (21.5%)	24 (36.9%)	22 (33.8%)	5 (7.7%)	65 (100.0%)
인천광역시	24 (19.8%)	45 (37.2%)	36 (29.8%)	16 (13.2%)	121 (100.0%)
전라남도	15 (12.6%)	30 (25.2%)	45 (37.8%)	29 (24.4%)	119 (100.0%)
전라북도	20 (22.5%)	36 (40.4%)	24 (27.0%)	9 (10.1%)	89 (100.0%)
제주도특별자치도	7 (15.2%)	25 (54.3%)	9 (19.6%)	5 (10.9%)	46 (100.0%)
충청남도	22 (16.9%)	54 (41.5%)	36 (27.7%)	18 (13.8%)	130 (100.0%)
충청북도	26 (28.6%)	31 (34.1%)	23 (25.3%)	11 (12.1%)	91 (100.0%)
합계	655 (20.8%)	1,402 (44.5%)	747 (23.7%)	344 (10.9%)	3,148 (100.0%)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이 진로개발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살펴본 결과, ‘기여하지 않았다.’ 655명(20.8%), ‘약간 기여하였다.’ 1,402명(44.5%), ‘꽤 기여하였다.’ 747명(23.7%), ‘매우 기여하였다.’ 344명(10.9%)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 중 약 80%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이 진로개발에 기여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17-1)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이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 다음 세부항목에 대하여 기여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이 각각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살펴보았다. 자격증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데 ‘꽤 기여하였다.’ 또는 ‘매우 기여하였다.’로 응답한 비율은 32.1%였고, 현 직장 내에서 법적인 신분보장을 받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데 ‘꽤 기여하였다.’ 또는 ‘매우 기여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24.2%였다. 그리고 자격증이 ‘다양한 기관에 지원할 자격요건을 갖추’고 ‘청소년상담전문가로서의 대내외적인 인정’에 ‘꽤’ 또는 ‘매우’ 기여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36.5%, 32.0%로 나타났다. 또한 자격증이 ‘청소년상담에 대한 지식 및 능력 향상’에 ‘꽤 기여하였다.’ 또는 ‘매우 기여하였다.’로 응답한 비율은 44.7%였으며, 자격증이 ‘청소년 분야의 전문자격증 소지에 따른 성취감’에 ‘꽤 기여하였다.’ 또는 ‘매우 기여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55.3%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이 ‘취업이나 근로 조건 개선’보다는 ‘지식 향상 및 성취감’에 기여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한 결과와 취득급수에 따른 기여도는 표 37에 제시하였다.

표 37.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자격증 취득 기여도 (세부항목)

	1급					2급					3급					전체				
	기여 하지 않았다	약간 기여 하였다	꽤 기여 하였다	매우 기여 하였다	무응 답	기여 하지 않았다	약간 기여 하였다	꽤 기여 하였다	매우 기여 하였다	무응 답	기여 하지 않았다	약간 기여 하였다	꽤 기여 하였다	매우 기여 하였다	무응 답	기여 하지 않았다	약간 기여 하였다	꽤 기여 하였다	매우 기여 하였다	무응 답
새로운 직장을 구함	13 (13.1%)	24 (24.2%)	16 (16.2%)	10 (10.1%)	36 (36.4%)	100 (11.2%)	319 (35.6%)	213 (23.8%)	73 (8.2%)	190 (21.2%)	271 (12.6%)	677 (31.4%)	450 (20.9%)	248 (11.5%)	508 (23.6%)	384 (12.2%)	1,020 (32.4%)	679 (21.6%)	331 (10.5%)	734 (23.3%)
현 직장 내에서 법적인 신분보장을 받도록 도움	22 (22.2%)	21 (21.2%)	13 (13.1%)	9 (9.1%)	34 (34.3%)	238 (26.6%)	265 (29.6%)	151 (16.9%)	52 (5.8%)	189 (21.2%)	553 (25.7%)	564 (26.2%)	371 (17.2%)	167 (7.8%)	499 (23.2%)	813 (25.8%)	850 (27.0%)	535 (17.0%)	228 (7.2%)	722 (22.9%)
다양한 기관에 지원할 자격요건을 갖추	5 (5.1%)	27 (27.3%)	22 (22.2%)	12 (12.1%)	33 (33.3%)	55 (6.1%)	318 (35.3%)	268 (29.9%)	77 (8.6%)	177 (19.8%)	158 (7.3%)	742 (34.4%)	585 (27.2%)	184 (8.5%)	485 (22.5%)	218 (6.9%)	1,087 (34.5%)	875 (27.8%)	273 (8.7%)	695 (22.1%)
청소년상담전문가 로서의 대내외적인 인정	4 (4.0%)	16 (16.2%)	32 (32.3%)	13 (13.1%)	34 (34.3%)	85 (9.5%)	321 (35.9%)	234 (26.1%)	75 (8.4%)	180 (20.1%)	206 (9.6%)	819 (38.0%)	485 (22.5%)	167 (7.8%)	477 (22.1%)	295 (9.4%)	1,156 (36.7%)	751 (23.9%)	255 (8.1%)	691 (22.0%)
청소년상담에 대한 지식 및 능력 향상	0 (0.0%)	22 (22.2%)	34 (34.3%)	10 (10.1%)	33 (33.3%)	46 (5.1%)	281 (31.4%)	312 (34.9%)	81 (9.1%)	175 (19.6%)	73 (3.4%)	640 (29.7%)	730 (33.9%)	238 (11.0%)	473 (22.0%)	119 (3.8%)	943 (30.0%)	1,076 (34.2%)	329 (10.5%)	681 (21.6%)
청소년 분야의 전문자격증 소지에 따른 성취감	1 (1.0%)	10 (10.1%)	28 (28.3%)	27 (27.3%)	33 (33.3%)	20 (2.2%)	196 (21.9%)	340 (38.0%)	163 (18.2%)	176 (19.7%)	49 (2.3%)	450 (20.9%)	743 (34.5%)	441 (20.5%)	471 (21.9%)	70 (2.2%)	656 (20.8%)	1,111 (35.3%)	631 (20.0%)	680 (21.6%)
합계	99 (100.0%)					895 (100.0%)					2,154 (100.0%)					3,148 (100.0%)				

나. 청소년상담사 취득 시기

문18) 청소년상담사 취득 시기는?

청소년상담사 취득 시기를 ‘최초 취업 이전’, ‘취업 중(직장 다니면서)’, ‘재취업 이전 구직 중’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55.7%(1,752명)의 응답자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취업 중(직장 다니면서)’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초 취업 이전’에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응답자는 32.2%(1,015명), ‘재취업 이전 구직 중’ 취득한 응답자는 12.1%(38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득급수에 따른 취득 시기를 좀 더 살펴보면, 1급 응답자들은 ‘취업 중(직장 다니면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가 대다수(87명, 87.9%)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급 응답자들은 ‘취업 중’ 65.5%(586명) 외에도 ‘최초 취업 이전(232명, 25.9%)’에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양상은 3급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38.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취득 시기

	급수			전체
	1급	2급	3급	
최초 취업 이전	10 (10.1%)	232 (25.9%)	773 (35.9%)	1,015 (32.2%)
취업 중	87 (87.9%)	586 (65.5%)	1,079 (50.1%)	1,752 (55.7%)
재취업 이전 구직 중	2 (2.0%)	77 (8.6%)	302 (14.0%)	381 (12.1%)
합계	99 (100.0%)	895 (100.0%)	2,154 (100.0%)	3,148 (100.0%)

다. 청소년상담사 취득 후

문19) 청소년상담사 취득 후 (재)취업(또는 개업)을 하셨을 경우 그 기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재)취업 또는 개업을 한 2,180명을 대상으로 취업기관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562명(17.9%)으로 가장 많았으며, Wee스쿨·Wee센터·

Wee 클래스가 464명(14.9%), 초·중·고등학교 256명(8.1%), 민간상담기관 193명(6.1%), 정부 산하 공공기관 148명(4.7%)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정신건강증진 센터, 장애인복지관, 여성단체, 대학교 등이 있었다.

표 39. 응답자의 자격증 취득 후 자격급수별 취업기관

	급수			전체
	1급	2급	3급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 (20.2%)	188 (21.0%)	354 (16.4%)	562 (17.9%)
청소년복지시설	1 (1.0%)	8 (0.9%)	49 (2.3%)	58 (1.8%)
아동기관	0 (0.0%)	13 (1.5%)	61 (2.8%)	74 (2.4%)
청소년 단체·시설	2 (2.0%)	17 (1.9%)	53 (2.5%)	72 (2.3%)
초·중·고등학교	4 (4.1%)	65 (7.2%)	187 (8.7%)	256 (8.1%)
대학상담센터	6 (6.1%)	52 (5.8%)	38 (1.8%)	96 (3.0%)
Wee 스쿨.센터.클래스	6 (6.1%)	110 (12.3%)	348 (16.1%)	464 (14.9%)
민간상담기관	8 (8.1%)	78 (8.7%)	107 (5.0%)	193 (6.1%)
종교단체	0 (0.0%)	0 (0.0%)	8 (0.4%)	8 (0.3%)
병원	0 (0.0%)	23 (2.6%)	32 (1.5%)	55 (1.7%)
정부산하 공공기관	4 (4.0%)	44 (4.9%)	100 (4.6%)	148 (4.7%)
군 상담기관	3 (3.0%)	11 (1.2%)	9 (0.4%)	23 (0.7%)
연구기관	1 (1.0%)	5 (0.6%)	10 (0.5%)	16 (0.5%)
기업체 상담 기관	1 (1.0%)	10 (1.1%)	8 (0.4%)	19 (0.6%)
기타	9 (9.1%)	25 (2.8%)	102 (4.7%)	136 (4.3%)
없음	34 (34.3%)	246 (27.5%)	688 (31.9%)	968 (30.7%)
합계	99 (100.0%)	895 (100.0%)	2,154 (100.0%)	3,148 (100.0%)

자격급수별 (재)취업기관을 살펴보면 1급의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명(20.2%)으로 가장 많았고, 민간상담기관 8명(8.1%), 대학상담센터와 Wee스쿨·Wee센터· Wee클래스가 각각 6명(6.1%) 순으로 나타났으며, 2급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88명(21.0%), Wee스쿨·Wee센터· Wee클래스 110명(12.3%), 민간상담기관 78명(8.7%), 초·중·고등학교 65명(7.2%) 순으로 나타났다. 3급의 경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54명(16.4%), Wee스쿨·Wee센터· Wee클래스 348명(16.1%), 초·중·고등학교 187명(8.7%), 민간상담기관 107명(5.0%) 순으로 나타났다.

문20) 향후 취업(또는 개업)하기를 원하는 기관은?

향후 취업 희망 기관을 살펴본 결과, 초·중·고등학교가 410명(14.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학상담센터 402명(13.8%), 정부산하 공공기관 377명(12.9%), Wee스쿨·Wee센터· Wee클래스 359명(12.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01명(10.3%), 민간상담기관 282명(9.7%) 순으로 나타났다.

자격급수별로 살펴보면 1급의 경우 정부산하 공공기관이 17명(17.2%)으로 가장 많았고, 민간상담기관 15명(15.2%)순이었으며, 2급은 대학상담센터 166명(18.5%), 정부산하 공공기관 131명(14.6%), 3급은 초·중·고등학교 339명(15.7%), Wee스쿨·Wee센터· Wee클래스 309명(14.4%) 순으로 나타나 급수에 따라 취업희망기관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응답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대학교, 대안학교, 개인센터 개업, 가족상담 기관 등의 응답결과가 나타났다.

표 40.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희망 취업기관

	자격증급수			전체
	1급	2급	3급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 (4.0%)	66 (7.4%)	231 (10.7%)	301 (9.6%)
청소년복지시설	0 (0.0%)	15 (1.7%)	97 (4.5%)	112 (3.6%)
아동기관	1 (1.0%)	16 (1.8%)	60 (2.8%)	77 (2.4%)
청소년 단체·시설	5 (5.1%)	8 (0.9%)	52 (2.4%)	65 (2.1%)
초·중·고등학교	2 (2.0%)	69 (7.7%)	339 (15.7%)	410 (13.0%)
대학상담센터	10 (10.1%)	166 (18.5%)	226 (10.5%)	402 (12.8%)
Wee 스킴.센터.클래스	1 (1.0%)	49 (5.5%)	309 (14.4%)	359 (11.3%)
민간상담기관	15 (15.2%)	126 (14.1%)	141 (6.5%)	282 (9.0%)
종교단체	0 (0.0%)	9 (1.0%)	18 (0.8%)	27 (0.9%)
병원	0 (0.0%)	26 (2.9%)	57 (2.6%)	83 (2.6%)
정부산하 공공기관	17 (17.2%)	131 (14.6%)	229 (10.6%)	377 (12.0%)
군 상담기관	1 (1.0%)	21 (2.3%)	75 (3.6%)	97 (3.1%)
연구기관	11 (11.1%)	35 (3.9%)	46 (2.1%)	92 (2.9%)
기업체 상담 기관	3 (3.0%)	78 (8.7%)	87 (4.1%)	168 (5.3%)
기타	9 (9.1%)	15 (1.7%)	46 (2.2%)	70 (2.2%)
없음	20 (20.2%)	65 (7.3%)	141 (6.5%)	226 (7.2%)
합계	99 (100.0%)	895 (100.0%)	2,154 (100.0%)	3,148 (100.0%)

라. 청소년상담사의 상위 등급 자격증 취득 의향

문21) 2급, 3급 취득자인 경우, 청소년상담사의 상위 등급 자격증을 취득할 의향은?

2급, 3급 취득자의 청소년상담사 상위 등급 자격증을 취득할 의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상위등급 자격증을 취득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470명(78.5%)이었으며,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576명(18.3%)으로 나타났다. 자격급수별로 살펴보면, 2급의 경우 있다고 응답

한 사람이 635명(70.9%),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257명(28.8%)으로 나타났고, 3급의 경우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835명(85.2%),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319명(14.8%)으로 나타났다. 주요역할별로 살펴보면, 임상직(84.5%)과 상담직(81.3%) 업무를 하고 있는 응답자가 모두 80% 이상 상위 등급의 자격증을 취득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상위 등급 자격증 취득 의향

	자격증급수			전체
	1급	2급	3급	
1급 취득자임	99 (97.0%)	0 (0.0%)	0 (0.0%)	99 (3.0%)
없다	0 (0.0%)	257 (28.8%)	319 (14.8%)	576 (18.3%)
있다	0 (0.0%)	635 (70.9%)	1,835 (85.2%)	2,470 (78.5%)
결측*	0 (0.0%)	3 (0.3%)	0 (0.0%)	3 (0.2%)
합계	99 (100.0%)	895 (100.0%)	2,154 (100.0%)	3,148 (100.0%)

* 결측값은 2급 취득자임에도 불구하고, 1급 취득자임에 응답한 사람임

표 42. 응답자의 역할별 상위 등급 자격증 취득 의향

	주요 역할								전체
	상담	연구	관리	교육	임상	행정	기타	없음 (무직)	
1급 취득자	29 (1.9%)	2 (5.0%)	42 (20.7%)	11 (4.8%)	3 (3.6%)	5 (1.9%)	1 (0.6%)	6 (1.0%)	99 (3.0%)
없다	263 (16.8%)	8 (20.0%)	31 (15.3%)	46 (20.3%)	10 (11.9%)	51 (19.6%)	38 (21.8%)	129 (21.6%)	577 (18.3%)
있다	1,270 (81.3%)	30 (75.0%)	130 (64.0%)	169 (74.4%)	71 (84.5%)	203 (78.1%)	135 (77.6%)	462 (77.4%)	2,470 (78.6%)
결측*	1 (0.1%)	0 (0.0%)	0 (0.0%)	1 (0.4%)	0 (0.0%)	1 (0.4%)	0 (0.0%)	0 (0.0%)	3 (0.1%)
합계	1,563 (100.0%)	40 (100.0%)	203 (100.0%)	227 (100.0%)	84 (100.0%)	260 (100.0%)	174 (100.0%)	597 (100.0%)	3,148 (100.0%)

* 결측값은 2급 취득자임에도 불구하고, 1급 취득자임에 응답한 사람임

문21-1) 의향이 있다면 언제 취득할 예정입니까?

상위등급을 취득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언제 취득할 예정인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2급 취득자의 경우 3년 이후가 209명(32.9%)으로 가장 많았으며, 3년 이내는 196명(30.8%), 2년 이내는 148명(23.4%), 1년 이내는 82명(12.9%) 순으로 나타났다. 3급 취득자의 경우는 2년 이내에 취득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613명(33.4%)으로 가장 많았으며, 1년 이내 532명(29.0%), 3년 이내 421명(22.9%), 3년 이후 269명(14.8%) 순이었다. 2급 취득자의 경우 60% 이상이 3년 이내 혹은 3년 이후에 취득할 예정인 반면, 3급 취득자의 경우 50% 이상이 1년 혹은 2년 이내에 취득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상위 등급 자격증 취득 예정일

	급수		전체
	2급	3급	
1년 이내	82 (12.9%)	532 (29.0%)	614 (24.9%)
2년 이내	148 (23.4%)	613 (33.4%)	761 (30.7%)
3년 이내	196 (30.8%)	421 (22.9%)	617 (25.0%)
3년 이후	209 (32.9%)	269 (14.8%)	478 (19.4%)
합계	635 (100.0%)	1,835 (100.0%)	2,470 (100.0%)

문21-2) 상위 등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위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이유에 대해 ‘자기 발전을 위해’라고 응답한 사람은 1,485명(60.2%)이었고, ‘더 나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라고 응답한 사람은 690명(28.1%), ‘일단 취득해 놓으려고’라고 응답한 사람은 206명(8.4%), ‘직장에서 요구하므로’라고 응답한 사람은 58명(2.3%)이었다. 급수별로 살펴보면, 2급과 3급 취득자 모두 ‘자기 발전을 위해서’ 취득하려고 하는 이유가 각각 400명(62.9%), 1,085명(5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더 나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가 각각 156명(24.7%), 534명(29.2%)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보수교육과정에서의 교육이 좋아서, 전문성을 보다 인정받고 싶어서, 일 할 기회 폭을 넓히기 위해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44.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상위등급 자격증 취득 이유

	급수		전체
	2급	3급	
일단 취득해 놓으려고	70 (11.0%)	136 (7.4%)	206 (8.4%)
더 나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156 (24.7%)	534 (29.2%)	690 (28.1%)
자기 발전을 위해	400 (62.9%)	1,085 (59.3%)	1,485 (60.2%)
직장에서 요구하므로	4 (0.6%)	54 (3.0%)	58 (2.3%)
기타	5 (0.8%)	19 (1.0%)	24 (2.3%)
무응답	0 (0.0%)	7 (0.1%)	7 (0.0%)
합계	635 (100.0%)	1,835 (100.0%)	2,070 (100.0%)

가.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문22)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참여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1,712명(54.4%)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1,436명(45.6%)이었다. 자격 급수별로 보수교육에 대한 참여 여부를 살펴보면, 1급의 경우 64명(64.6%)이 참여 경험이 있었으며, 35명(35.4%)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급의 경우는 553명(61.8%)이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42명(38.2%)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3급의 경우는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1,095명(50.8%)이었으며, 없는 응답자는 1,059명(49.2%)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1급과 2급의 경우 60% 이상이 보수교육에 참여했으며, 3급의 경우 50% 이상이 보수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5. 응답자의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참여 여부

	급수			전체
	1급	2급	3급	
없다	35 (35.4%)	342 (38.2%)	1,059 (49.2%)	1,436 (45.6%)
있다	64 (64.6%)	553 (61.8%)	1,095 (50.8%)	1,712 (54.4%)
합계	99 (100.0%)	895 (100.0%)	2,154 (100.0%)	3,148 (100.0%)

문22-1)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과정을 듣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을 듣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보수교육 의무 대상기관에 해당되지 않아서’가 757명(52.7%)으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

로 '보수교육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가 158명(11.0%), '소속 기관의 보수교육 참여에 대한 협조가 없어서'가 124명(8.6%)으로 나타났다.

자격 급수별에 따른 이유를 살펴보면, 1급의 경우, '보수교육 의무대상기관에 해당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4.3%로 가장 높았으며, '보수교육 과정에 원하는 주제가 개설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8.6%, '소속 기관의 보수교육 참여에 대한 협조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7% 순으로 나타났다. 2급과 3급의 경우는 '보수교육 의무대상기관에 해당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3.5%와 52.4%로 가장 높았으며, '보수교육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8.5%, 12.2%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모든 급수별로 '보수교육 의무대상기관에 해당되지 않아서' 보수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1급의 경우는 정보를 몰라서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으나, 2급과 3급의 경우 정보를 몰라서 보수교육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두 번째로 많았다. 기타 응답으로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가장 많이 나왔으며 그 외에 '일정이 맞지 않아서', '교육 장소가 한정되어 있어서', '원하는 교육이 마감되어서' 등의 응답을 하였다.

표 46.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급수			전체
	1급	2급	3급	
보수교육 과정에 원하는 주제가 개설되지 않아서	3 (8.6%)	24 (7.0%)	27 (2.5%)	54 (3.8%)
보수교육 의무대상기관에 해당되지 않아서	19 (54.3%)	183 (53.5%)	555 (52.4%)	757 (52.7%)
보수교육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0 (0.0%)	29 (8.5%)	129 (12.2%)	158 (11.0%)
소속 기관의 보수교육 참여에 대한 협조가 없어서	2 (5.7%)	21 (6.1%)	101 (9.5%)	124 (8.6%)
현재 소속된 기관의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1 (2.9%)	16 (4.7%)	27 (2.5%)	44 (3.1%)
기타	10 (28.6%)	69 (20.2%)	220 (20.8%)	299 (20.8%)
합계	35 (100.0%)	342 (100.0%)	1,059 (100.0%)	1,436 (100.0%)

문23)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과정에 개설되었으면 하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과정에 개설되었으면 하는 주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상담자, 상담 실무, 심리검사, 슈퍼비전, 위기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수요가 확인되었고, 자격 급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자격 급수별로 살펴보면, 1급의 경우 ‘상담자 윤리(8회)’, ‘슈퍼비전(8회)’, ‘최신상담경향 및 실제적인 상담 기법 실습(8회)’ 관련 교육을 바란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2급의 경우에는 ‘슈퍼비전 및 사례개념화’라는 응답이 66회로 가장 많았고, ‘심리검사(35회)’, ‘부모상담 및 교육(30회)’, ‘자해 자살의 예방 및 개입(30회)’, ‘미술, 모래 놀이, 인형, 음악, 사진, 영화, 독서 등의 매체상담(28회)’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3급 역시 2급과 마찬가지로 ‘슈퍼비전 및 사례개념화(132회)’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심리검사(123회)’, ‘미술, 모래 놀이, 인형, 음악, 사진, 영화, 독서 등의 매체상담(97회)’, ‘상담의 실제, 시연 및 실습(89회)’라는 응답이 뒤를 이어 2급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1급과 2~3급 간의 응답 차이는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급의 경우에는 주로 ‘관리, 교육’의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의 윤리적 갈등이나 상담자 교육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 반면, 2~3급의 경우에는 직접 청소년과 상담을 실시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이해 및 개입방법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결과는 표 119, 표 120, 표 121에 수록하였다.

5

청소년상담사 상담내용

가. 청소년상담사 상담경력

문24) 상담경력은?

상담경력 분포를 살펴본 결과, 2년~5년 이하가 1,162명(36.9%)으로 가장 많았으며, 5년~10년 이하 777명(24.7%), 2년 이하 692명(22.0%), 없음 277명(8.8%), 10년~15년 이하 162명(5.1%), 15년~20년 이하 56명(1.8%) 순으로 나타났다.

자격급수에 따른 상담경력을 살펴보면, 1급의 경우 평균 13년 9개월의 경력으로 나타났으며, 15년~20년 이하가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급의 경우 평균 경력은 6년으로 나타났고, 기간으로는 5년~10년 이하가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급의 경우 평균 경력은 3년 2개월로 나타났고, 2년~5년 이하가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자격급수가 증가할수록 상담경력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상담경력

	급수			전체
	1급	2급	3급	
없음	0 (0.0%)	10 (1.1%)	267 (12.4%)	277 (8.8%)
2년 이하	1 (1.0%)	67 (7.5%)	624 (29.0%)	692 (22.0%)
2년~5년	7 (7.1%)	351 (39.2%)	804 (37.3%)	1,162 (36.9%)
5년~10년	23 (23.2%)	358 (40.0%)	396 (18.4%)	777 (24.7%)
10년~15년	23 (23.2%)	89 (9.9%)	50 (2.3%)	162 (5.1%)
15년~20년	31 (31.3%)	13 (1.5%)	12 (0.6%)	56 (1.8%)
20년~25년	10 (10.1%)	7 (0.8%)	1 (0.0%)	18 (0.6%)
25년~30년	3 (3.0%)	0 (0.0%)	0 (0.0%)	3 (0.1%)
30년~35년	1 (1.0%)	0 (0.0%)	0 (0.0%)	1 (0.0%)
합계	99 (100.0%)	895 (100.0%)	2,154 (100%)	3,148 (100.0%)

표 48.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평균 상담경력

급수	평균 상담경력	N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급	13년 9개월	99	71.0	1년	31년 2개월
2급	6년 0개월	895	43.4	0	25년 0개월
3급	3년 2개월	2,154	34.7	0	25년 5개월
합계	4년 3개월	3,148	46.7	0	31년 2개월

소속기관에 따른 상담경력을 살펴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근무자의 38.2%, 아동기관 근무자의 33.7%, 초·중·고등학교 근무자의 41.3%, 대학상담센터 근무자의 39.2%, Wee 스쿨·Wee 센터·Wee클래스 근무자의 49.9%, 민간상담기관 근무자의 41.1%, 병원 근무자의 33.3%, 정부산하 공공기관 근무자의 36.4%가 2년~5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2년~5년 사이의 경력을 가진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년~10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근무자가 가장 많은 기관은 군 상담기관(52.9%)과 기업체 상담기관 (40.0%)으로 나타나, 군 상담기관과 기업체 상담기관에 대체로 경력이 많은 상담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응답자가 가장 많이 근무하는 곳은 연구기관(31.3%)이었다.

표 49. 응답자의 소속 기관별 상담경력

	상담경력									전체
	없음	2년 이하	2년~5년	5년~10년	10년~15년	15년~20년	20년~25년	25년~30년	30년~35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0.8%)	103(21.0%)	187(38.2%)	138(28.2%)	31(6.3%)	19(3.9%)	7(1.4%)	0(0.0%)	1(0.2%)	490(100.0%)
청소년복지시설	0(0.0%)	19(38.0%)	16(32.0%)	10(20.0%)	3(6.0%)	2(4.0%)	0(0.0%)	0(0.0%)	0(0.0%)	50(100.0%)
아동기관	10(10.9%)	28(30.4%)	31(33.7%)	19(20.7%)	4(4.3%)	0(0.0%)	0(0.0%)	0(0.0%)	0(0.0%)	92(100.0%)
청소년 단체·시설	17(19.5%)	26(29.9%)	25(28.7%)	15(17.2%)	3(3.4%)	1(1.1%)	0(0.0%)	0(0.0%)	0(0.0%)	87(100.0%)
초·중·고등학교	15(4.7%)	43(13.6%)	131(41.3%)	98(30.9%)	23(7.3%)	5(1.6%)	2(0.6%)	0(0.0%)	0(0.0%)	317(100.0%)
대학상담센터	1(0.8%)	28(23.3%)	47(39.2%)	34(28.3%)	8(6.7%)	1(0.8%)	0(0.0%)	1(0.8%)	0(0.0%)	120(100.0%)
Wee 스쿨·센터·클래스	1(0.2%)	75(14.1%)	266(49.9%)	170(31.9%)	18(3.4%)	2(0.4%)	1(0.2%)	0(0.0%)	0(0.0%)	533(100.0%)
민간상담기관	5(1.9%)	31(12%)	106(41.1%)	82(31.8%)	24(9.3%)	8(3.1%)	2(0.8%)	0(0.0%)	0(0.0%)	258(100.0%)
종교단체	0(0.0%)	2(33.3%)	1(16.7%)	3(50.0%)	0(0.0%)	0(0.0%)	0(0.0%)	0(0.0%)	0(0.0%)	6(100.0%)
병원	2(2.7%)	24(32.0%)	25(33.3%)	18(24%)	3(4.0%)	1(1.3%)	1(1.3%)	1(1.3%)	0(0.0%)	75(100.0%)
정부산하 공공기관	9(3.8%)	42(17.8%)	86(36.4%)	77(32.6%)	12(5.1%)	6(2.5%)	3(1.3%)	1(0.4%)	0(0.0%)	236(100.0%)
군 상담기관	0(0.0%)	0(0.0%)	11(32.4%)	18(52.9%)	3(8.8%)	2(5.9%)	0(0.0%)	0(0.0%)	0(0.0%)	34(100.0%)
연구기관	5(31.3%)	5(31.3%)	4(25.0%)	1(6.3%)	1(6.3%)	0(0.0%)	0(0.0%)	0(0.0%)	0(0.0%)	16(100.0%)
기업체 상담 기관	0(0.0%)	1(3.3%)	10(33.3%)	12(40.0%)	5(16.7%)	2(6.7%)	0(0.0%)	0(0.0%)	0(0.0%)	30(100.0%)
없음	173(29.0%)	206(34.5%)	149(25.0%)	57(9.5%)	9(1.5%)	3(0.5%)	0(0.0%)	0(0.0%)	0(0.0%)	597(100.0%)
기타	35(16.9%)	59(28.5%)	67(32.4%)	25(12.1%)	15(7.2%)	4(1.9%)	2(1.0%)	0(0.0%)	0(0.0%)	207(100.0%)
합계	277(8.8%)	692(22.0%)	1,162(36.9%)	777(24.7%)	162(5.1%)	56(1.8%)	18(0.6%)	3(0.1%)	1(0.0%)	3,148(100.0%)

나. 내담자의 연령층

문25) 내담자의 주 연령층은? (복수응답)

내담자의 주 연령층은 중학생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생이 23.8%, 고등학생이 22.7%, 성인이 12.6%, 대학생이 7.3%, 그리고 유아가 2.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자의 내담자 연령층은 주로 초,중,고등학생임을 알 수 있다.

자격급수에 따른 내담자의 주 연령층을 살펴보면, 1급의 경우 초등학생이 27.0%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이 24.0%로 두 번째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2급과 3급의 경우 모두 중학생이 각각 28.8%, 32.1%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이 각각 23.8%, 23.7%로 두 번째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1급은 대학생보다는 유아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2, 3급은 유아보다 대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0.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내담자 연령층

	자격증 급수			전체
	1급	2급	3급	
유아	23 (11.7%)	34 (2.2%)	94 (2.6%)	151 (2.8%)
초등학생	53 (27.0%)	370 (23.8%)	855 (23.7%)	1,278 (23.8%)
중학생	47 (24.0%)	448 (28.8%)	1,157 (32.1%)	1,652 (30.8%)
고등학생	36 (18.4%)	341 (21.9%)	841 (23.3%)	1,218 (22.7%)
대학생	12 (6.1%)	134 (8.6%)	243 (6.7%)	389 (7.3%)
성인	25 (12.8%)	228 (14.7%)	418 (11.6%)	671 (12.6%)
합계	196 (100.0%)	1,555 (100.0%)	3,608 (100.0%)	5,359 (100.0%)

다. 내담자의 호소문제

문26) 내담자의 대표적인 주 호소문제 유형은? (복수응답)

내담자의 주 호소문제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인관계 30.6%, 학업 및 진로 18.1%, 가족 15.6%, 정신건강 12.4%, 일탈 및 비행 8.8%, 성격 7.5%,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2.0%, 생활 습관/외모 1.4%, 성 1.1% 순으로 나타났다.

급수별 내담자의 호소 문제를 살펴보면, 모든 급에서 '대인관계'문제를 가장 많이 상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급: 30.6%, 2급: 31.6%, 3급: 30.2%). 그런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호소 문제는 다소 달랐다. 1급의 경우, '정신건강'이 17.0%로 두 번째로 높았으나, 2급과 3급에서는 '학업 및 진로문제'가 각각 17.6%와 18.6%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의 호소문제는 모든 급에서 '가족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청소년상담사들의 대표적인 상담내용은 '대인관계', '정신건강', '학업 및 진로', '가족문제'임을 알 수 있다. 기타로는 '발달상의 문제', '구치소 수용자 처우불만', '업무스트레스', '자살', '장애로 인한 발달지연', '주의산만', '과잉행동', '교우관계' 등으로 응답했다.

내담자의 연령에 따른 주 호소 문제를 살펴본 결과, 모든 연령층에서 '대인관계'가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유아의 경우는 '가족'과 '정신건강', 초등학교의 경우는 '가족'과 '학업 및 진로', 중학생과 고등학교의 경우는 모두 '학업 및 진로'와 '가족'을, 대학생의 경우는 '학업 및 진로'와 '정신건강', 성인의 경우는 '가족'과 '정신건강' 순으로 나타나 내담자의 발달단계에 따라 호소문제가 다소 다름을 알 수 있다.

표 51.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내담자 호소문제

	자격증급수			전체
	1급	2급	3급	
가족	32 (15.5%)	265 (15.2%)	658 (15.8%)	955 (15.6%)
일탈 및 비행	16 (7.8%)	150 (8.6%)	375 (9.0%)	541 (8.8%)
학업 및 진로	26 (12.6%)	307 (17.6%)	777 (18.6%)	1,110 (18.1%)
성	2 (1.0%)	14 (0.8%)	52 (1.2%)	68 (1.1%)
성격	14 (6.8%)	126 (7.2%)	321 (7.7%)	461 (7.5%)
정신건강	35 (17.0%)	251 (14.4%)	471 (11.3%)	757 (12.4%)
대인관계	63 (30.6%)	552 (31.6%)	1,262 (30.2%)	1,877 (30.6%)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4 (1.9%)	30 (1.7%)	90 (2.2%)	124 (2.0%)
생활습관/외모	6 (2.9%)	20 (1.1%)	60 (1.4%)	86 (1.4%)
기타	8 (3.9%)	34 (1.8%)	107 (2.6%)	146 (2.5%)
합계	206 (100.0%)	1,749 (100.0%)	4,173 (100.0%)	6,125 (100.0%)

표 52. 응답자의 내담자 연령별 호소문제

	내담자 연령 별						전체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가족	65 (19.9%)	430 (16.7%)	468 (14.0%)	364 (14.5%)	79 (9.6%)	266 (19.5%)	1,672 (15.3%)
일탈 및 비행	16 (4.9%)	193 (7.5%)	411 (12.3%)	302 (12.0%)	24 (2.9%)	91 (6.7%)	1,037 (9.5%)
학업 및 진로	26 (8.0%)	373 (14.5%)	629 (18.8%)	579 (23.0%)	173 (21.0%)	166 (12.2%)	1,946 (17.8%)
성	6 (1.8%)	27 (1.0%)	50 (1.5%)	22 (0.9%)	10 (1.2%)	14 (1.0%)	129 (1.2%)
성격	21 (6.4%)	210 (8.2%)	210 (6.3%)	163 (6.5%)	99 (12.0%)	110 (8.1%)	813 (7.4%)
정신건강	60 (18.3%)	290 (11.3%)	367 (11.0%)	295 (11.7%)	154 (18.7%)	228 (16.7%)	1,394 (12.7%)
대인관계	79 (24.2%)	884 (34.3%)	1,015 (30.4%)	654 (26.0%)	240 (29.2%)	413 (30.2%)	3,285 (30.0%)
컴퓨터 및 인터넷사용	13 (4.0%)	58 (2.3%)	101 (3.0%)	72 (2.9%)	12 (1.5%)	10 (0.7%)	266 (2.4%)
생활습관/ 외모	11 (3.4%)	44 (1.7%)	58 (1.7%)	40 (1.6%)	14 (1.7%)	6 (0.4%)	173 (1.6%)
기타	30 (9.2%)	65 (2.5%)	29 (0.9%)	24 (1.0%)	17 (2.1%)	62 (4.5%)	227 (2.1%)
합계	327 (100.0%)	2,574 (100.0%)	3,338 (100.0%)	2,515 (100.0%)	822 (100.0%)	1,366 (100.0%)	10,942 (100.0%)

라. 상담 관련

문27) 상담 진행 중 귀하께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격 급수별로 상담 진행 중에 겪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면, 1급의 경우, ‘통제 불가능한 외부환경(비협조적인 부모, 교사 등)’(28.2%)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잡하고 어려운 사례’(18.2%), ‘비자발적 내담자에 대한 개입’(18.2%)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급의 경우는 1급과 마찬가지로 ‘통제 불가능한 외부환경’(18.9%)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열악한 근무 조건’(15.8%), ‘복잡하고 어려운 사례’(14.7%)로 인한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급의 경우는 ‘상담 기술의 부족’(24.1%)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 불가능한 외부환경’(17.8%), ‘수퍼비전을 받을 수 없는 환경’(17.3%)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급과 2급 모두 ‘통제 불가능한 외부환경’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급의 경우는 ‘상담 기술의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였다. 기타의견으로는 ‘과도한 행정업무 및 사업으로 상담에 집중이 어려움’이란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상담사 소진’, ‘청소년 학부모 상담’, ‘직업적 안정성’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53.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상담진행에서의 어려움

	자격증급수			전체
	1급	2급	3급	
상담 기술의 부족	2 (2.0%)	121 (13.5%)	519 (24.1%)	642 (20.4%)
복잡하고 어려운 사례	18 (18.2%)	132 (14.7%)	216 (10.0%)	366 (11.6%)
통제 불가능한 외부환경	28 (28.2%)	169 (18.9%)	385 (17.8%)	582 (18.5%)
주변 사람들의 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	10 (10.1%)	54 (6.1%)	112 (5.2%)	176 (5.6%)
열악한 근무 조건	6 (6.1%)	141 (15.8%)	232 (10.8%)	379 (12.0%)
수퍼비전을 받을 수 없는 환경	10 (10.1%)	130 (14.5%)	372 (17.3%)	512 (16.3%)
비자발적 내담자에 대한 개입	18 (18.2%)	119 (13.3%)	204 (9.5%)	341 (10.8%)
기타	7 (7.1%)	29 (3.2%)	114 (5.3%)	150 (4.8%)
합계	99 (100.0%)	895 (100.0%)	2,154 (100.0%)	3,148 (100.0%)

성별에 따라 상담 진행 중에 겪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통제 불가능한 외부환경(비협조적인 부모, 교사 등)’(20.0%)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많았으며, ‘비자발적 내담자에 대한 개입’(17.7%), ‘상담 기술의 부족’(17.1%)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상담 기술의 부족’(20.8%)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 불가능한 외부환경’(18.3%), ‘수퍼비전을 받을 수 없는 환경’(17.0%)순으로 나타났다.

표 54.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상담진행에서의 어려움

	성별		전체
	남	여	
상담 기술의 부족	53 (17.1%)	589 (20.8%)	642 (20.4%)
복잡하고 어려운 사례	28 (9.0%)	338 (11.9%)	366 (11.6%)
통제 불가능한 외부환경	62 (20.0%)	520 (18.3%)	582 (18.5%)
주변 사람들의 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	19 (6.1%)	157 (5.5%)	176 (5.6%)
열악한 근무 조건	44 (14.2%)	335 (11.8%)	379 (12.0%)
수퍼비전을 받을 수 없는 환경	29 (9.4%)	483 (17.0%)	512 (16.3%)
비자발적 내담자에 대한 개입	55 (17.7%)	286 (10.1%)	341 (10.8%)
기타	20 (6.5%)	130 (4.6%)	150 (4.8%)
합계	310 (100.0%)	2,838 (100.0%)	3,148 (100.0%)

마. 청소년상담사 수퍼비전

문28)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 후 수퍼비전을 받은 적은?

자격증을 취득 한 후에 수퍼비전 경험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2.4%였으며,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7.6%로 나타났다. 자격급수별 수퍼비전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1급의 경우,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9.7%,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0.3%로 나타났고, 2급의 경우,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3%,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7.7%로 나타났다. 3급의 경우는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3.3%,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6.7%로 나타났다.

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1급과 2급의 경우 70% 정도가 수퍼비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에 반하여, 3급의 경우는 40% 정도만 수퍼비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5.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 후 수퍼비전 여부

	자격증급수			전체
	1급	2급	3급	
있다	69 (69.7%)	647 (72.3%)	933 (43.3%)	1,649 (52.4%)
없다	30 (30.3%)	248 (27.7%)	1,221 (56.7%)	1,499 (47.6%)
합계	99 (100.0%)	895 (100.0%)	2,154 (100.0%)	3,148 (100.0%)

문28-1)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 후 수퍼비전을 받은 평균 주기와 횟수는?

(최근 3개년 기준)

최근 3개년 동안에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 후 최근 수퍼비전 받은 주기와 횟수를 살펴본다. 그 결과를 보면, 6개월에 한번이 453명(27.5%), 한 달에 한번 431명(26.1%), 1년에 한번 412명(25.1%), 2주일에 한번 93명(5.6%), 1주일에 한번 69명(4.2%) 순으로 나타났다.

자격급수별 수퍼비전 주기와 횟수를 살펴보면, 1급과 3급의 경우 1년에 한번이 각각 23명(34.3%), 263명(28.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급의 경우 한 달에 한번 189명(29.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1. 2. 3급 모두 6개월에 한번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로는 ‘필요할 때마다’, ‘최근 3년간은 없음’, ‘수퍼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발생 시’, ‘2, 3개월에 한번’ 등으로 응답하였다.

표 56.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 후 수퍼비전 평균 주기와 횟수

	자격증급수			전체
	1급	2급	3급	
1주일에 한번	2 (2.9%)	25 (3.8%)	42 (4.5%)	69 (4.2%)
2주일에 한번	0 (0.0%)	51 (7.8%)	42 (4.5%)	93 (5.6%)
한 달에 한번	13 (18.6%)	189 (29.2%)	229 (24.5%)	431 (26.1%)
6개월에 한번	19 (27.1%)	184 (28.3%)	250 (26.9%)	453 (27.5%)
1년에 한번	23 (34.3%)	126 (19.5%)	263 (28.2%)	412 (25.1%)
기타	12 (17.1%)	72 (11.2%)	107 (11.4%)	191 (11.6%)
합계	69 (100.0%)	647 (100.0%)	933 (100.0%)	1,649 (100.0%)

소속기관 별 수퍼비전 평균횟수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관에서 ‘6개월에 한번’정도 수퍼비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1년에 한번’ 수퍼비전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역할별 수퍼비전 평균횟수를 살펴보면, 관리(팀장, 소장 등)와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응답자는 ‘1년에 한번’ 수퍼비전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상담, 연구, 임상 업무를 담당하는 응답자는 ‘6개월에 한번’ 수퍼비전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응답자는 ‘한 달에 한번’ 수퍼비전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7. 응답자의 소속 기관별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 후 수퍼비전 평균 주기와 횟수

	기관																전체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청소년 복지시설	아동기관	청소년 단체·시설	초·중· 고등학교	대학 상담센터	Wee스쿨 센터. 클래스	민간 상담기관	종교단체	병원	정부산하 공공기관	군 상담기관	연구기관	기업체 상담기관	없음	기타	
1주일에 한번	10 (2.8%)	1 (5.0%)	4 (10.3%)	0 (0.0%)	4 (2.9%)	2 (2.0%)	9 (2.9%)	8 (4.8%)	0 (0.0%)	7 (17.1%)	7 (5.1%)	1 (3.1%)	0 (0.0%)	5 (17.9%)	9 (4.9%)	2 (3.0%)	69 (4.2%)
2주일에 한번	17 (4.7%)	1 (5.0%)	1 (2.6%)	1 (4.0%)	4 (2.9%)	8 (8.1%)	8 (2.6%)	21 (12.5%)	0 (0.0%)	9 (22.0%)	3 (2.2%)	1 (3.1%)	0 (0.0%)	2 (7.1%)	15 (8.2%)	2 (3.0%)	93 (5.6%)
한 달에 한번	33 (9.2%)	1 (5.0%)	3 (7.7%)	1 (4.0%)	17 (12.4%)	12 (12.1%)	32 (10.4%)	22 (13.1%)	0 (0.0%)	2 (4.9%)	19 (14.0%)	6 (18.8%)	1 (16.7%)	1 (3.6%)	25 (13.7%)	16 (23.9%)	191 (11.6%)
6개월에 한번	105 (29.3%)	8 (40.0%)	10 (25.6%)	5 (20.0%)	33 (24.1%)	20 (20.2%)	100 (32.6%)	36 (21.4%)	4 (100.0%)	6 (14.6%)	48 (35.3%)	15 (46.9%)	2 (33.3%)	6 (21.4%)	41 (22.5%)	14 (20.9%)	453 (27.5%)
1년에 한번	93 (26.0%)	5 (25.0%)	11 (28.2%)	11 (44.0%)	44 (32.1%)	10 (10.1%)	101 (32.9%)	33 (19.6%)	0 (0.0%)	7 (17.1%)	28 (20.6%)	4 (12.5%)	1 (16.7%)	6 (21.4%)	42 (23.1%)	16 (23.9%)	412 (25.0%)
기타	100 (27.9%)	4 (20.0%)	10 (25.6%)	7 (28.0%)	35 (25.5%)	47 (47.5%)	57 (18.6%)	48 (28.6%)	0 (0.0%)	10 (24.4%)	31 (22.8%)	5 (15.6%)	2 (33.3%)	8 (28.6%)	50 (27.5%)	17 (25.4%)	431 (26.1%)
합계	358 (100.0%)	20 (100.0%)	39 (100.0%)	25 (100.0%)	137 (100.0%)	99 (100.0%)	307 (100.0%)	168 (100.0%)	4 (100.0%)	41 (100.0%)	136 (100.0%)	32 (100.0%)	6 (100.0%)	28 (100.0%)	182 (100.0%)	67 (100.0%)	1,649 (100.0%)

표 58. 응답자의 역할별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 후 수퍼비전 평균 주기와 횟수

	역할별								전체
	관리	교육	상담	연구	임상	행정	기타	없음 (무직)	
1주일에 한번	4 (2.9%)	5 (5.3%)	40 (4.0%)	0 (0.0%)	5 (11.6%)	5 (4.3%)	1 (1.6%)	9 (4.9%)	69 (4.2%)
2주일에 한번	5 (3.6%)	3 (3.2%)	61 (6.1%)	0 (0.0%)	4 (9.3%)	4 (3.5%)	1 (1.6%)	15 (8.2%)	93 (5.6%)
한 달에 한번	34 (24.5%)	21 (22.1%)	260 (26.2%)	1 (5.9%)	8 (18.6%)	39 (33.9%)	18 (28.1%)	50 (27.5%)	431 (26.1%)
6개월에 한번	37 (26.6%)	20 (21.1%)	288 (29.0%)	8 (47.1%)	14 (32.6%)	24 (20.9%)	21 (32.8%)	41 (22.5%)	453 (27.5%)
1년에 한번	42 (30.2%)	33 (34.7%)	236 (23.7%)	5 (29.4%)	10 (23.3%)	29 (25.2%)	15 (23.4%)	42 (23.1%)	412 (25.0%)
기타	17 (12.2%)	13 (13.7%)	109 (11.0%)	3 (17.6%)	2 (4.7%)	14 (12.2%)	8 (12.5%)	25 (13.7%)	191 (11.6%)
합계	139 (100.0%)	95 (100.0%)	994 (100.0%)	17 (100.0%)	43 (100.0%)	115 (100.0%)	64 (100.0%)	182 (100.0%)	1,649 (100.0%)

V

설문조사결과 요약

1. 청소년상담사 기본 정보
2. 청소년상담사 취업 실태
3.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활용
4.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5. 청소년상담사 상담내용
6. 청소년상담사 현황 변화

1

청소년상담사 기본 정보

본 설문 조사는 청소년상담사 11,77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중 설문에 응답한 3,880명(33.0%) 중 성실하게 응답한 3,148명(26.7%)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여 청소년 상담사의 취업실태, 자격증 활용, 보수교육, 그리고 상담내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2016년 6월 1일부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달 반 동안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설문 내용은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기본 정보와 청소년상담사의 취업현황, 그리고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기여도 및 활용현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참여현황과 청소년상담사의 상담현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상담사는 총 3,148명이었으며, 그 중에 여성은 90.2%이고, 1급은 99명, 2급은 895명, 그리고 3급은 2,154명이었다. 이러한 분포는 청소년상담사 모집단의 분포와 거의 일치하였다. 이들이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유는 ‘취업에 도움이 되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1급 취득자의 경우는 ‘상담에 도움이 되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1급 취득자는 자신의 상담능력개발을 위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지만 2급과 3급 취득자는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근무지역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1,43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5.7%를 차지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 밀집 현상이 청소년상담사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청소년상담사 취업 실태

가. 청소년상담사 취업 실태는 급수별로 차이가 있음

청소년상담사의 취업 실태를 살펴보면, 취업을 하지 않아 소속기관이 없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Wee 스쿨, Wee 센터, Wee 클래스 근무자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근무자가 많았다. 이러한 취업 실태는 급수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3급의 경우는 소속기관이 없는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1급과 2급의 경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근무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무엇보다도 청소년상담사 3급 취득자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또한 3급의 경우 ‘학업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았는데, 이는 3급 청소년상담사들이 대학원생인 경우가 많고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소속기관이 없는 자 중에서 취업을 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육아 및 가사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청소년상담사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청소년상담사에게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취업자도 대부분이 비정규직

취업자 중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상담사의 40.8%가 전일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간제 비정규직 근무 비율도 20.9%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61.7%)의 청소년상담사들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여성 취득자의 경우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는 63.5%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은 55.9%가 비정규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전히 여성 청소년상담사가 취업에 있어서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청소년상담사들이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청소년상담사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지만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으로 업무량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 청소년상담사의 교육수준에 비해 소득이 낮음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상담사들의 월 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100만원 미만(소득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대부분 청소년상담사들의 월 평균 소득이 높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상담사 중 석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50%가 넘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월평균 소득 수준은 교육수준과도 일치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불일치는 희망 월평균 소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청소년상담사들이 희망하는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다. 그런데 이러한 열악한 월급현황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에서의 교육비지원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2.1%의 응답자가 교육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나마 받고 있는 청소년상담사도 연간 '1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청소년상담사들은 다양한 개선사항을 요구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것은 '연봉수준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이밖에도 '업무내용의 합리적 조정', '휴가 및 휴직 제도의 활성화'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많은 청소년상담사들이 이직을 고민하고 있음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상담사의 60% 정도가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직에 대한 고민은 30대 이하의 청소년상담사들에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는 열악한 월급수준 때문이었으며, 비정규직이라는 것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취업 및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됨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구직과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청소년상담사들은 현재 소속기관에 채용될 때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가장 우대된 자격증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자격증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80% 정도의 청소년상담사들이 자신의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진로개발(취업, 승진)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응답자들은 자격증 취득이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자격증 취득으로 성취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취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문성 향상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청소년상담사들은 자신들의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앞으로 더 활용되기 원하는 기관으로 '교육관련 기관'을 뽑았다. 그리고 '복지 기관'이나 '법무관련 기관', '군 관련기관'에서도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대부분의 청소년상담사는 상위 등급 자격증 취득을 원하고 있음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대부분 직장에 다니면서 취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 후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Wee 스쿨, Wee 센터, Wee 클래스에 가장 많이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는 초·중·고등학교나 대학 상담센터, 그리고 정부산하 공공기관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급수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1급은 정부산하 공공기관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2급은 대학상담센터, 그리고 3급은 초·중·고등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청소년상담사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급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청소년상담사들은 대부분 상위 등급의 자격증을 취득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 3년 이내에 상위 등급의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상위등급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원하는 이유는 '자기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시 말해서 외부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상위 등급 자격증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설문에 응답한 45.6%의 청소년상담사들이 보수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보수교육 의무대상기관에 속하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도 ‘보수교육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보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에 대한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보수교육의 이점을 청소년상담사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 2년 ~ 10년 정도의 상담경력을 가진 청소년상담사가 가장 많음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2-5년 정도의 상담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5-10년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다음으로 많았다. 이러한 경향성은 자격증 급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1급의 경우는 15-20년 경력을 가진 상담자가 가장 많았으며, 2급은 5-10년, 3급은 2-5년 경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속기관별로도 다르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관은 2-5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청소년상담사가 가장 많았지만 군 상담기관과 기업체 상담기관의 경우에는 5-10년 경력 소유자가 많아 다른 기관에 비하여 경력이 많은 청소년상담사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 청소년상담사들이 상담하는 내담자는 대부분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이며, 주로 대인관계문제와 학업 및 진로문제를 상담하고 있음

청소년상담사의 내담자 연령층은 주로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내담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문제는 ‘대인관계문제’가 가장 많았으며, ‘학업 및 진로문제’와 ‘가족문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급 취득자의 경우는 ‘정신건강문제’도 상담에서 많이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많은 청소년상담사들이 ‘상담기술 부족’을 느끼고 있지만 슈퍼비전을 받지 않음

상담업무 진행 중 경험하는 어려움은 ‘상담기술의 부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외부환경’이나 ‘슈퍼비전을 받을 수 없는 환경’등이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기술의 부족’을 가장 많이 느끼는 자격증 급수는 3급이었으며, 이에 비하여 1급과 2급은 ‘통제 불가능한 외부환경’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그런데 3급 취득자들이 상담기술의 부족을 많이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6.7%가 자격증 취득 후 상담 슈퍼비전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급과 1급 취득자의 경우 각각 27.7%와 30.3%인 것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슈퍼비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6개월에

한번 또는 1년에 한번 정도 수퍼비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퍼비전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상담사의 비율이 Wee 스쿨, Wee 센터, Wee 클래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청소년상담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수퍼비전 제공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상담기술의 부족을 많이 느끼고 있는 3급 취득자들에 대한 수퍼비전 제공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청소년상담사 현황 변화

가. 소속기관이 없는 청소년상담사 비율의 증가

2013년 조사에서는 ‘소속기관 없음’에 응답한 비율이 8.6%이었으나 2016년 조사에서는 12.3%로 나타났다. 응답에서 급수별 미취업 이유를 살펴본 결과, 1급과 2급의 경우 ‘육아 및 가사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고, 3급의 경우 ‘기타’ 또는 ‘학업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급수에 따라 미취업 이유는 다를지라도 현재 자의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 청소년상담사의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급수에 따른 차별화된 취업 지원뿐 아니라 ‘일-가정 양립’ 또는 ‘일-학습 병행’이 가능한 환경 마련과 지원책이 필요해 보인다.

나. 청소년상담사 행정업무 증가

2013년의 조사에서는 청소년상담사의 주요역할이 행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2%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1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상담사의 주요 역할 중 행정 업무 비율이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상담사의 상담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며, 또한 청소년상담사의 행정업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다. 청소년상담사는 여전히 연봉과 직업 안정성 문제가 개선되기를 원함

2013년과 2016년 조사 모두 청소년상담사는 ‘연봉수준의 정상화’와 ‘비정규직 최소화 및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3년과 2016년 모두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로 연봉이 적거나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청소년상담사의 연봉과 직업안정성 문제는 검토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청소년상담사의 내담자 연령층이 변화함

2013년 조사에서는 내담자 주 연령층이 중학생(33.6%), 고등학생(21.9%), 초등학생(19.6%)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이번 연구에서는 중학생(30.8%), 초등학생(23.8%), 고등학생(22.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상담사의 내담자 연령층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상담사들이 연령이 낮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업무에 준비가 될 필요가 있다. 즉, 청소년 연령층 뿐 아니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VI

제언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청소년상담사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청소년상담사들의 원활한 취업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이 되고, 취업 비율이 자격제도 초기와 비교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취업을 하지 못한 청소년상담사들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상담사들이 일할 수 있는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소년상담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많은 청소년상담사들이 석사학위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그에 상응하는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 직업 안정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많은 청소년상담사들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상담사들은 자신들의 월급문제와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 해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이 청소년상담사들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상위등급 자격 취득을 지원할 뿐 아니라 보수교육의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상담사들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이 취업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전문성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청소년상담사들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상위 등급 자격증 취득을 지원할 뿐 아니라 보수교육을 활성화하여 청소년상담사들이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많은 청소년상담사들이 '상담기술의 부족'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슈퍼비전 및 다양한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슈퍼비전은 좋은 상담자가 되기 위한 핵심적인 교육활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상담사들은 슈퍼비전을 적극적으로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관별로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지원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청소년상담사들이 전문성을 향상시켜 보다 효과적인 상담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슈퍼비전과 보수교육에 대한 청소년상담사의 적극적인 태도와 기관의 관심이 함께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창대, 이은경, 김인규 (2013).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 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이창호, 이소엽, 조수연 (2011). 국가자격 청소년상담사 인력 현황 조사 연구, 2003~2010년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주영아, 이영선, 이수림, 임영선, 조은희 (2008). 청소년상담사 인력 현황 조사 연구, 2003년~2007년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



부록

1.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지
 2. 청소년상담사 연구 결과 표
- 

1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지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2003년에 시작한 청소년상담사 제도가 어느덧 14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청소년상담사 여러분의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 역할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상담사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6월 1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 기간 중 한번만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은 약 10분~15분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모바일과 PC 모두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참여하는 분의 자유에 의해 이루어지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서버에 보관되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및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설문을 통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청소년상담사 여러분들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 등 청소년상담사 제도 활성화 촉진에 활용될 것이며, 인력현황 조사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 조사 주관기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조사 대행기관 :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조사 내용 문의: ☎ 02-450-3298
✉ youthcoun@daum.net

* 기념품 수령에 동의하시는 모든 분들께 소정의 기념품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 다음은 청소년상담사 기본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성별은?

- 남
 여

* 2. 출생년도는?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3.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년도와 급수는? (두 개 급수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는 중복 응답가능, 해당하지 않는 급수에는 '해당없음'으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시 Tip : 취득연도는 자격증번호를 통해 확인 가능함

	취득연도
1급	<input type="text"/>
2급	<input type="text"/>
3급	<input type="text"/>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 4.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취업에 도움이 되어서
- 상담에 도움이 되어서
- 승진에 도움이 되어서
- 일단 취득해 놓으려고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 5. (두 개 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해당 없음(1개급 자격증만 소지)
- 취업에 도움이 되어서
- 상담에 도움이 되어서
- 승진에 도움이 되어서
- 일단 취득해 놓으려고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 6.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 고등학교 졸업
- 전문학사 취득
- 학사 재학, 휴학, 수료
- 학사 취득
- 석사 재학, 휴학, 수료
- 석사 취득
- 박사 재학, 휴학, 수료
- 박사 취득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 7. 최종 학력의 **학과명**은 무엇입니까? (예.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의 경우, '교육학' 선택)

- 청소년(지도)학
- 교육학
- 심리학
- 사회복지(사업)학
- 정신의학
- 아동(복지)학
- 상담관련학과
- 기타 학과 (정확한 학과명을 기재해 주세요)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 7-1. '상담 관련학과'를 선택하신 경우, 정확한 학과명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8. 현재 근무지역은 어디입니까? (※근무지가 없을 경우 거주지 기준으로 선택)

- 강원도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광주광역시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부산광역시
- 서울특별시
- 세종특별자치시
- 울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제주도특별자치도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해외

* 9.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외에 취득한 자격증과 자격급수는?

	1급	2급	3급	해당 없음
초중등 교사자격증(교육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전문상담교사(교육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임상심리사(한국산업인력공단)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정신보건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직업상담사(한국산업인력공단)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사회복지사(보건복지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청소년지도사(여성가족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 다음은 청소년상담사 자격취득 후 취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 10. 현재 소속 기관은 어디입니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아동기관(지역아동센터, 시설 등)
- 청소년 단체·시설
- 초·중·고등학교
- 대학상담센터
- Wee 스킴·Wee 센터· Wee 클래스
- 민간상담기관
- 종교단체
- 병원
- 정부산하 공공기관
- 군 상담기관
- 연구기관
- 기업체 상담 기관
- 없음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 10-0. 현재 미취업 상태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학교 졸업 후 구직활동 중이라서
- 이직을 위한 구직활동 중이라서
- 학업을 위해서
- 육아 및 가사를 위해서
- 상위자격 취득을 위해서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 10-1. 현재 소속기관에 취업 시 채용 우대 조건이 되었던 자격증은?

- 청소년상담사
-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 전문상담교사
- 초·중등교사
- 임상심리사(산업인력공단)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보건복지부)
- 직업상담사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 10-2. 현재 소속기관에서의 근무형태는?

- 정규직
- 비정규직(전일제)
- 비정규직(시간제)
- 아르바이트(일용직)
- 자원봉사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 10-3.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의 주 당 평균 근로시간은?(숫자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40)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 10-4. 현재 소속기관에서의 업무 비율은? (100% 기준. 예)행정 45, 상담 55)

행정 (%)

상담 (%)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 10-5. 현재 소속기관에서의 주요 역할은?

- 상담
- 연구
- 관리(팀장, 소장 등)
- 교육
- 임상
- 행정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 10-6. 현재 직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내용은? (해당 항목 모두 선택)

- 공개처리
- 교육비 지원
- 직장내 전문성 향상교육
- 슈퍼비전 및 공개사례발표 지원
- 교육 지원 없음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10-7.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 연간 교육비 지원 한도액은? (교육비 지원이 없는 경우, '없음'을 체크해주세요.)

원

연간 교육비 지원 한
도액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 11. **본인**의 현재 월 평균 소득은? (가계 소득이 아닌 본인 소득으로 응답바랍니다.)

- 100만원 미만 ('소득 없음' 포함)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 600만원 이상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 12. **희망** 월 평균 소득은?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 600만원 이상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 13. 청소년상담사의 처우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개까지 선택 가능)

- 연봉수준의 정상화(동일 학력의 연봉 수준)
- 근무시간의 정상화(법정근로시간 준수)
- 직장내 복지 강화(탁아시설, 휴게실, 운동 및 교육 지원 등)
- 업무내용의 합리적 조정
- 휴가(안식년 혹은 안식월 포함) 및 휴직(육아휴직 등)제도의 활성화
- 비정규직 최소화 및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 14. 청소년상담사가 취업 가능한 취업관련 정보를 알게 된 주요 경로는?

- 리플렛
- 해당 기관 홈페이지
- 자격연수 수업 또는 안내
-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학회 홈페이지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 15. 청소년상담사가 배치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기관 또는 분야는?

- 교육관련 기관
- 법무관련 기관
- 복지 기관
- 군 관련 기관
- 기업
- 민간상담 기관
- 연구 기관
- 기타

* 15-1. 응답하신 분야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관명을 적어주십시오.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 16. 지난 1년 이내에 이직하거나 이직을 고민한 경험은?

- 있다
- 없다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 16-1 이직하거나 이직을 고민한 이유는? (2개까지 선택 가능)

- 연봉이 희망하는 수준에 비해 적어서
- 직장 내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 직장이 영세하여 미래가 불안해서
- 비정규직이라 안정감이 없어서
- 직장의 복지수준이 낮아서
- 직장 내 대인관계 문제 때문에
- 학업(진학)을 위해서
- 계약만료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다음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및 활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 17.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이 진로개발(취업, 승진)에 기여하였는가?

- 기여하지 않았다
- 약간 기여하였다
- 꽤 기여하였다
- 매우 기여하였다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 17-1.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이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 다음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기여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기여하지 않았다	약간 기여하였다	꽤 기여하였다	매우 기여하였다
새로운 직장을 구함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현 직장 내에서 법적인 신분보장을 받도록 도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다양한 기관에 지원할 자격요건을 갖추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청소년상담 전문가로서의 대내외적인 인정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청소년상담에 대한 지식 및 능력 향상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 격중 소지에 따른 성취감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 18. 청소년상담사 취득 시기는?

- 최초 취업 이전
- 취업 중(직장 다니면서)
- 재취업 이전 구직 중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 19. 청소년상담사 취득 후 (재)취업(또는 개업)을 하셨을 경우 그 기관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아동기관(지역아동센터, 시설 등)
- 청소년 단체·시설
- 초·중·고등학교
- 대학상담센터
- Wee 스크, Wee 센터, Wee 클래스
- 민간상담기관
- 종교단체
- 병원
- 정부산하 공공기관
- 군 상담기관
- 연구기관
- 기업체 상담 기관
- 없음 (취득 후 취업, 재취업, 개업 경험 없음)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 20. 향후 취업(또는 개업)하기를 원하는 기관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아동기관(지역아동센터, 시설 등)
- 청소년 단체·시설
- 초·중·고등학교
- 대학상담센터
- Wee 스킴·Wee 센터, Wee 클래스
- 민간상담기관
- 종교단체
- 병원
- 정부산하 공공기관
- 군 상담기관
- 연구기관
- 기업체 상담 기관
- 없음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 21. 2급, 3급 취득자인 경우, 청소년상담사의 상위 등급 자격증을 취득할 의향은?

- 있다
- 없다
- 1급 취득자임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 21-1. 의향이 있다면 언제 취득할 예정입니까?

- 1년 이내
- 2년 이내
- 3년 이내
- 3년 이후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21-2. 상위 등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더 나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 자기 발전을 위해
- 직장에서 요구하므로
- 일단 취득해 놓으려고
- 기타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 다음은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 22.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있다
- 없다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 22-1.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과정을 듣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 보수교육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 보수교육 과정에 원하는 주제가 개설되지 않아서
- 소속 기관의 보수교육 참여에 대한 협조가 없어서
- 현재 소속된 기관의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 보수교육 의무대상기관에 해당되지 않아서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 23.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과정에 개설되었으면 하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 다음은 청소년상담사의 상담관련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 24. 상담경력은? (예 3년 8개월)

	년	개월
상담경력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25. 내담자의 주 연령층은? (2개까지 선택 가능)

- 유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
- 성인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 26. 내담자의 대표적인 주 호소문제 유형은? (2개까지 선택 가능)

- 가족
- 일탈 및 비행
- 학업 및 진로
- 성
- 성격
- 정신건강
- 대인관계
-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 생활습관/외모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 27. 상담 진행 중 귀하께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 상담 기술의 부족
- 복잡하고 어려운 사례
- 통제 불가능한 외부환경(비협조적인 부모, 교사 등)
- 주변 사람들의 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
- 열악한 근무 조건
- 수퍼비전을 받을 수 없는 환경
- 비자발적 내담자에 대한 개입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 28.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 후 수퍼비전을 받은 적은?

- 있다
- 없다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 28-1.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 후 수퍼비전을 받은 평균 주기와 횟수는? (최근 3개년 기준)

- 1주일에 한번
- 2주일에 한번
- 한 달에 한번
- 6개월에 한번
- 1년에 한번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 다음은 기념품 발송과 관련된 개인정보 공개 동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 본 설문에 응답하신 보답으로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기념품 발송을 위해 귀하의 핸드폰 번호가 기념품 발송 업체에 전달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아니오'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기념품 발송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 예
 아니오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 동의하시는 분께서는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십시오. (숫자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01023456789)

기념품 발송은 설문조사가 끝난 후 일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념품 발송 예정 기간 : 7월 ~ 8월 이내)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설문조사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청소년상담사 연구 결과 표

표 59. 응답자의 자격취득현황

급수	빈도
1급	60 (1.9%)
2급	740 (23.5%)
3급	2,154 (68.4%)
1급+2급	33 (1.0%)
1급+3급	2 (0.1%)
2급+3급	155 (4.9%)
1급+2급+3급	4 (0.1%)
합계	3,148 (100.0%)

표 60. 응답자의 연령별 자격취득 이유

	연령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취업에 도움이 되어서	326 (49.0%)	428 (41.1%)	456 (42.1%)	107 (31.8%)	10 (38.5%)	1,327 (42.2%)
상담에 도움이 되어서	218 (32.8%)	397 (38.1%)	446 (41.4%)	157 (46.6%)	9 (34.6%)	1,227 (39.0%)
승진에 도움이 되어서	2 (0.3%)	6 (0.6%)	8 (0.7%)	3 (0.9%)	0 (0.0%)	19 (0.6%)
일단 취득해 놓으려고	102 (15.3%)	183 (17.6%)	125 (11.6%)	46 (13.6%)	3 (11.5%)	459 (14.6%)
기타	17 (2.6%)	28 (2.7%)	43 (4.0%)	24 (7.1%)	4 (15.4%)	116 (3.7%)
합계	665 (100.0%)	1,042 (100.0%)	1,078 (100.0%)	337 (100.0%)	26 (100.0%)	3,148 (100.0%)

표 61. 응답자의 연도별 자격취득 이유

	최종취득년도															전체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취업에 도움이 되어서	28 (36.4%)	9 (32.1%)	15 (28.3%)	10 (27.3%)	22 (32.4%)	37 (30.6%)	36 (35.6%)	52 (43.0%)	67 (44.7%)	188 (51.4%)	176 (44.3%)	260 (42.8%)	367 (42.4%)	60 (38.2%)	1,327 (42.2%)	
상담에 도움이 되어서	31 (40.3%)	13 (46.4%)	21 (39.6%)	17 (42.7%)	32 (47.2%)	54 (44.6%)	48 (47.5%)	44 (36.4%)	51 (34.0%)	129 (35.2%)	137 (34.5%)	250 (41.2%)	335 (38.7%)	65 (41.4%)	1,227 (39.0%)	
승진에 도움이 되어서	1 (1.3%)	1 (3.6%)	0 (0.0%)	1 (2.8%)	0 (0.0%)	1 (0.8%)	0 (0.0%)	0 (0.0%)	0 (0.0%)	3 (0.8%)	2 (0.5%)	1 (0.2%)	9 (1.0%)	0 (0.0%)	19 (0.6%)	
일단 취득해 놓으려고	16 (20.8%)	5 (17.9%)	13 (24.5%)	7 (19.4%)	12 (17.6%)	22 (18.2%)	16 (15.8%)	24 (19.8%)	24 (16.0%)	35 (9.6%)	67 (16.9%)	79 (13.0%)	117 (13.5%)	22 (14.0%)	459 (14.6%)	
기타	1 (1.3%)	0 (0.0%)	4 (7.5%)	1 (2.8%)	2 (2.9%)	7 (5.8%)	1 (1.0%)	1 (0.8%)	8 (5.3%)	11 (3.0%)	15 (3.8%)	17 (2.8%)	38 (4.4%)	10 (6.4%)	116 (3.7%)	
합계	77 (100.0%)	28 (100.0%)	53 (100.0%)	36 (100.0%)	68 (100.0%)	121 (100.0%)	101 (100.0%)	121 (100.0%)	150 (100.0%)	366 (100.0%)	397 (100.0%)	607 (100.0%)	866 (100.0%)	157 (100.0%)	3,148 (100.0%)	

표 62. 응답자의 급수별 복수 자격취득 이유

	급수		전체
	1급	2급	
취업에 도움이 되어서	5 (12.8%)	56 (36.8%)	62 (32.0%)
상담에 도움이 되어서	19 (48.7%)	56 (36.1%)	75 (38.7%)
승진에 도움이 되어서	3 (7.7%)	7 (4.5%)	10 (5.2%)
일단 취득해 놓으려고	5 (12.8%)	21 (13.5%)	26 (13.4%)
기타	6 (15.4%)	14 (9.0%)	20 (10.3%)
해당 없음	1 (2.6%)	0 (0.0%)	1 (0.5%)
합계	39 (100.0%)	155 (100.0%)	194 (100.0%)

표 63.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현 근무지역

	성별		전체
	남자	여자	
강원도	13 (4.2%)	79 (2.8%)	92 (2.9%)
경기도	54 (17.4%)	601 (21.2%)	655 (20.8%)
경상남도	15 (4.8%)	179 (6.3%)	194 (6.2%)
경상북도	21 (6.8%)	147 (5.2%)	168 (5.3%)
광주광역시	21 (6.8%)	96 (3.4%)	117 (3.7%)
대구광역시	21 (6.8%)	138 (4.9%)	159 (5.1%)
대전광역시	8 (2.6%)	102 (3.6%)	110 (3.5%)
부산광역시	21 (6.8%)	159 (5.6%)	180 (5.7%)
서울특별시	60 (19.4%)	723 (25.5%)	783 (24.9%)
세종특별자치시	5 (1.6%)	24 (0.8%)	29 (0.9%)
울산광역시	4 (1.3%)	61 (2.1%)	65 (2.1%)
인천광역시	9 (2.9%)	112 (3.9%)	121 (3.8%)
전라남도	10 (3.2%)	109 (3.8%)	119 (3.8%)
전라북도	16 (5.2%)	73 (2.6%)	89 (2.8%)
제주특별자치도	4 (1.3%)	42 (1.5%)	46 (1.5%)
충청남도	13 (4.2%)	117 (4.1%)	130 (4.1%)
충청북도	15 (4.8%)	76 (2.7%)	91 (2.9%)
합계	310 (100.0%)	2,838 (100.0%)	3,148 (100.0%)

표 64. 응답자의 연령별 현 근무지역

	연령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강원도	14 (2.1%)	29 (2.8%)	36 (3.3%)	13 (3.9%)	0 (0.0%)	92 (2.9%)
경기도	98 (14.7%)	237 (22.7%)	241 (22.4%)	72 (21.4%)	7 (26.9%)	655 (20.8%)
경상남도	43 (6.5%)	50 (4.8%)	81 (7.5%)	18 (5.3%)	2 (7.7%)	194 (6.2%)
경상북도	39 (5.9%)	59 (5.7%)	47 (4.4%)	22 (6.5%)	1 (3.8%)	168 (5.3%)
광주광역시	37 (5.6%)	34 (3.3%)	35 (3.2%)	10 (3.0%)	1 (3.8%)	117 (3.7%)
대구광역시	53 (8.0%)	50 (4.8%)	41 (3.8%)	12 (3.6%)	3 (11.5%)	159 (5.1%)
대전광역시	31 (4.7%)	29 (2.8%)	30 (2.8%)	20 (5.9%)	0 (0.0%)	110 (3.5%)
부산광역시	35 (5.3%)	58 (5.6%)	63 (5.8%)	22 (6.5%)	2 (7.7%)	180 (5.7%)
서울특별시	157 (23.6%)	295 (28.3%)	236 (21.9%)	91 (27.0%)	4 (15.4%)	783 (24.9%)
세종특별자치시	5 (0.8%)	11 (1.1%)	12 (1.1%)	1 (0.3%)	0 (0.0%)	29 (0.9%)
울산광역시	14 (2.1%)	14 (1.3%)	31 (2.9%)	6 (1.8%)	0 (0.0%)	65 (2.1%)
인천광역시	29 (4.4%)	42 (4.1%)	41 (3.8%)	9 (2.7%)	0 (0.0%)	121 (3.8%)
전라남도	34 (5.1%)	22 (2.1%)	53 (4.9%)	7 (2.1%)	3 (11.5%)	119 (3.8%)
전라북도	21 (3.2%)	37 (3.6%)	24 (2.2%)	7 (2.1%)	0 (0.0%)	89 (2.8%)
제주특별자치도	5 (0.8%)	16 (1.5%)	22 (2.0%)	2 (0.6%)	1 (3.8%)	46 (1.5%)
충청남도	34 (5.1%)	35 (3.4%)	46 (4.3%)	14 (4.2%)	1 (3.8%)	130 (4.1%)
충청북도	16 (2.4%)	24 (2.3%)	39 (3.6%)	11 (3.3%)	1 (3.8%)	91 (2.9%)
합계	665 (100.0%)	1,042 (100.0%)	1,078 (100.0%)	337 (100.0%)	26 (100.0%)	3,148 (100.0%)

표 65.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현 소속기관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62 (20.0%)	428 (15.1%)	490 (15.6%)
청소년복지시설	13 (4.2%)	37 (1.3%)	50 (1.6%)
아동기관	9 (2.9%)	83 (2.9%)	92 (2.9%)
청소년 단체·시설	6 (1.9%)	81 (2.9%)	87 (2.8%)
초·중·고등학교	27 (8.7%)	290 (10.2%)	317 (10.1%)
대학상담센터	15 (4.8%)	105 (3.7%)	120 (3.8%)
Wee 스쿨·센터·클래스	29 (9.4%)	504 (17.8%)	533 (16.9%)
민간상담기관	19 (6.1%)	239 (8.4%)	258 (8.2%)
종교단체	2 (0.6%)	4 (0.1%)	6 (0.2%)
병원	5 (1.6%)	70 (2.5%)	75 (2.4%)
정부산하 공공기관	49 (15.8%)	187 (6.6%)	236 (7.5%)
군 상담기관	5 (1.6%)	29 (1.0%)	34 (1.1%)
연구기관	2 (0.6%)	14 (0.5%)	16 (0.5%)
기업체 상담 기관	4 (1.3%)	26 (0.9%)	30 (1.0%)
기타	23 (7.4%)	184 (6.5%)	207 (6.6%)
없음	40 (12.9%)	557 (19.6%)	597 (19.0%)
합계	310 (100.0%)	2,838 (100.0%)	3,148 (100.0%)

표 66. 응답자의 연령별 현 소속기관

	연령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1 (13.7%)	181 (17.4%)	171 (15.9%)	41 (12.2%)	6 (23.1%)	490 (15.6%)
청소년복지시설	19 (2.9%)	16 (1.5%)	12 (1.1%)	3 (0.9%)	0 (0.0%)	50 (1.6%)
아동기관	21 (3.2%)	33 (3.2%)	31 (2.9%)	7 (2.1%)	0 (0.0%)	92 (2.9%)
청소년 단체·시설	29 (4.4%)	27 (2.6%)	23 (2.1%)	8 (2.4%)	0 (0.0%)	87 (2.8%)
초·중·고등학교	26 (3.9%)	70 (6.7%)	145 (13.5%)	75 (22.3%)	1 (3.8%)	317 (10.1%)
대학상담센터	32 (4.8%)	55 (5.3%)	29 (2.7%)	4 (1.2%)	0 (0.0%)	120 (3.8%)
Wee 스쿨, 센터, 클래스	124 (18.6%)	133 (12.8%)	213 (19.8%)	63 (18.7%)	0 (0.0%)	533 (16.9%)
민간상담기관	41 (6.2%)	89 (8.5%)	98 (9.1%)	22 (6.5%)	8 (30.8%)	258 (8.2%)
종교단체	1 (0.2%)	1 (0.1%)	3 (0.3%)	1 (0.3%)	0 (0.0%)	6 (0.2%)
병원	29 (4.4%)	34 (3.3%)	10 (0.9%)	2 (0.6%)	0 (0.0%)	75 (2.4%)
정부산하 공공기관	29 (4.4%)	108 (10.4%)	71 (6.6%)	25 (7.4%)	3 (11.5%)	236 (7.5%)
군 상담기관	0 (0.0%)	17 (1.6%)	14 (1.3%)	2 (0.6%)	1 (3.8%)	34 (1.1%)
연구기관	5 (0.8%)	6 (0.6%)	5 (0.5%)	0 (0.0%)	0 (0.0%)	16 (0.5%)
기업체 상담 기관	4 (0.6%)	16 (1.5%)	8 (0.7%)	2 (0.6%)	0 (0.0%)	30 (1.0%)
기타	46 (6.9%)	64 (6.1%)	77 (7.1%)	19 (5.6%)	1 (3.8%)	207 (6.6%)
없음	168 (25.3%)	192 (18.4%)	168 (15.6%)	63 (18.7%)	6 (23.1%)	597 (19.0%)
합계	665 (100.0%)	1,042 (100.0%)	1,078 (100.0%)	337 (100.0%)	26 (100.0%)	3,148 (100.0%)

표 67. 응답자의 연령별 미취업 이유

	연령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학교 졸업 후 구직활동 중이라서	22 (13.2%)	13 (6.8%)	13 (7.8%)	12 (18.8%)	1 (16.7%)	60 (10.1%)
이직을 위한 구직활동 중이라서	34 (20.4%)	38 (19.8%)	32 (19.2%)	12 (18.8%)	1 (16.7%)	117 (19.6%)
학업을 위해서	69 (41.3%)	23 (12.0%)	26 (15.6%)	4 (6.3%)	0 (0.0%)	122 (20.5%)
육아 및 가사를 위해서	18 (10.8%)	90 (46.9%)	37 (22.2%)	0 (0.0%)	0 (0.0%)	145 (24.3%)
상위자격 취득을 위해서	5 (3.0%)	4 (2.1%)	5 (3.0%)	6 (9.4%)	1 (16.7%)	21 (3.5%)
기타	18 (10.8%)	24 (12.5%)	54 (32.3%)	30 (46.9%)	4 (66.7%)	130 (21.8%)
합계	166 (100.0%)	192 (100.0%)	167 (100.0%)	64 (100.0%)	6 (100.0%)	597 (100.0%)

표 68. 응답자의 연령별 근무형태

	연령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정규직	151 (30.4%)	339 (39.9%)	269 (29.6%)	69 (25.2%)	5 (25.0%)	833 (32.7%)
비정규직(전일제)	244 (49.1%)	284 (33.4%)	382 (42.0%)	125 (45.6%)	5 (25.0%)	1,040 (40.8%)
비정규직(시간제)	72 (14.5%)	197 (23.2%)	197 (21.6%)	60 (21.9%)	7 (35.0%)	533 (20.9%)
아르바이트 (일용직)	3 (0.6%)	11 (1.3%)	12 (1.3%)	1 (0.4%)	0 (0.0%)	27 (1.1%)
자원봉사	10 (2.0%)	10 (1.2%)	37 (4.1%)	17 (6.2%)	1 (5.0%)	75 (2.9%)
기타	17 (3.4%)	9 (1.1%)	13 (1.4%)	2 (0.7%)	2 (10.0%)	43 (1.7%)
합계	497 (100.0%)	850 (100.0%)	910 (100.0%)	274 (100.0%)	20 (100.0%)	2,551 (100.0%)

표 69.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주당근무시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10시간 미만	15 (5.6%)	255 (11.2%)	270 (10.6%)
10~19시간	27 (10.0%)	271 (11.9%)	298 (11.7%)
20~29시간	4 (1.5%)	118 (5.2%)	122 (4.8%)
30~39시간	4 (1.5%)	75 (3.3%)	79 (3.1%)
40~49시간	192 (71.1%)	1,475 (64.7%)	1,667 (65.3%)
50~59시간	24 (8.9%)	67 (2.9%)	91 (3.6%)
60시간 이상	4 (1.5%)	16 (0.7%)	20 (0.8%)
결측*	0 (0.0%)	4 (0.2%)	4 (0.2%)
합계	270 (100.0%)	2,281 (100.0%)	2,551 (100.0%)

* 결측: 소속기관이 있음에도 근무시간이 0시간이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근무시간일 경우 결측치로 처리함.

표 70.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평균근무시간

성별	평균	N	표준편차
남자	36.95	270	12.97
여자	32.47	2,277	14.02
전체	32.95	2,547	13.98

표 71. 응답자의 연령별 주당근무시간

	연령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0시간미만	33 (6.6%)	78 (9.2%)	115 (12.6%)	40 (14.6%)	4 (20.2%)	270 (10.6%)
10~19시간	41 (8.2%)	106 (12.5%)	114 (12.5%)	33 (12.0%)	4 (20.0%)	298 (11.7%)
20~29시간	22 (4.4%)	43 (5.1%)	47 (5.2%)	9 (3.3%)	1 (5.0%)	122 (4.8%)
30~39시간	16 (3.2%)	29 (3.4%)	26 (2.9%)	8 (2.9%)	0 (0.0%)	79 (3.1%)
40~49시간	355 (71.4%)	548 (64.5%)	575 (63.2%)	180 (65.7%)	9 (45.0%)	1,667 (65.3%)
50~59시간	23 (4.6%)	39 (4.6%)	26 (2.9%)	2 (0.7%)	1 (5.0%)	91 (3.6%)
60시간 이상	6 (1.2%)	6 (0.7%)	6 (0.7%)	1 (0.4%)	1 (5.0%)	20 (0.8%)
결측	1 (0.2%)	1 (0.1%)	1 (0.1%)	1 (0.4%)	0 (0.1%)	4 (0.2%)
합계	497 (100.0%)	850 (100.0%)	910 (100.0%)	274 (100.0%)	20 (100.0%)	2,551 (100.0%)

표 72. 응답자의 연령별 평균근무시간

연령	평균	N	표준편차
20대	35.80	496	12.09
30대	33.28	849	13.76
40대	31.68	909	14.62
50대	31.24	273	14.40
60대	28.55	20	19.23
전체	32.95	2,547	13.98

표 73. 응답자의 역할별 주당근무시간

	주요 역할							전체
	상담	연구	관리	교육	임상	행정	기타	
10시간 미만	199 (12.7%)	5 (12.5%)	4 (2.9%)	34 (15.0%)	2 (2.4%)	12 (4.6%)	14 (8.0%)	270 (10.6%)
10~19 시간	241 (15.4%)	1 (2.5%)	8 (3.9%)	23 (10.1%)	7 (8.3%)	8 (3.1%)	10 (5.7%)	298 (11.7%)
20~29 시간	86 (5.5%)	3 (7.5%)	5 (2.5%)	17 (7.5%)	3 (3.6%)	2 (0.8%)	6 (3.4%)	122 (4.8%)
30~39 시간	50 (3.2%)	2 (5.0%)	4 (2.0%)	9 (4.0%)	4 (4.8%)	6 (2.3%)	4 (2.3%)	79 (3.1%)
40~49 시간	954 (61.0%)	25 (62.5%)	160 (78.8%)	134 (59.0%)	59 (70.2%)	206 (79.2%)	129 (74.1%)	1,667 (65.3%)
50~59 시간	26 (1.7%)	3 (7.5%)	19 (9.4%)	8 (3.5%)	8 (9.5%)	19 (7.3%)	8 (4.6%)	91 (3.6%)
60시간 이상	5 (0.3%)	0 (0.0%)	3 (1.5%)	2 (0.9%)	1 (1.2%)	7 (2.7%)	2 (1.1%)	20 (0.8%)
결측	2 (0.1%)	1 (2.5%)	0 (0.0%)	0 (0.0%)	0 (0.0%)	0 (0.0%)	1 (0.6%)	4 (0.2%)
합계	1,563 (100.0%)	40 (100.0%)	203 (100.0%)	227 (100.0%)	84 (100.0%)	260 (100.0%)	174 (100.0%)	2,551 (100.0%)

표 74. 응답자의 역할별 평균근무시간

주요 역할	평균	N	표준편차
상담	30.64	1,561	14.34
연구	34.41	39	13.18
관리	39.59	203	9.17
교육	31.31	227	16.01
임상	37.98	84	10.71
행정	39.05	260	9.81
기타	36.13	173	13.00
합계	32.95	2,547	13.98

표 75.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업무비율

	성별		전체
	남성	여성	
행정	56.3%	42.2%	43.7%
상담	43.7%	57.8%	56.3%
표준편차	27.96	27.07	27.50

표 76. 응답자의 연령별 업무비율

	연령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행정	49.4%	45.7%	40.8%	37.7%	36.8%	43.7%
상담	50.6%	54.3%	59.2%	62.3%	63.3%	56.3%
표준편차	26.673	28.466	26.565	26.057	34.651	27.502

표 77.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주요 역할

	성별		전체
	남성	여성	
상담	105 (38.9%)	1,458 (63.9%)	1,563 (61.3%)
연구	8 (3.0%)	32 (1.4%)	40 (1.6%)
관리	51 (18.9%)	152 (6.7%)	203 (8.0%)
교육	27 (10.0%)	200 (8.8%)	227 (8.9%)
임상	13 (4.8%)	71 (3.1%)	84 (3.3%)
행정	43 (15.9%)	217 (9.5%)	260 (10.2%)
기타	23 (8.5%)	151 (6.6%)	174 (6.8%)
합계	270 (100.0%)	2,281 (100.0%)	2,551 (100.0%)

표 78. 응답자의 연령별 주요 역할

	연령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상담	282 (56.7%)	488 (57.4%)	589 (64.7%)	193 (70.4%)	11 (55.0%)	1,563 (61.3%)
연구	17 (3.4%)	15 (1.8%)	7 (0.8%)	1 (0.4%)	0 (0.0%)	40 (1.6%)
관리	7 (1.4%)	67 (7.9%)	93 (10.2%)	34 (12.4%)	2 (10.0%)	203 (8.0%)
교육	36 (7.2%)	82 (9.6%)	86 (9.5%)	21 (7.7%)	2 (10.0%)	227 (8.9%)
임상	36 (7.2%)	35 (4.1%)	10 (1.1%)	2 (0.7%)	1 (5.0%)	84 (3.3%)
행정	70 (14.1%)	105 (12.4%)	75 (8.2%)	8 (2.9%)	2 (10.0%)	260 (10.2%)
기타	49 (9.9%)	58 (6.8%)	50 (5.5%)	15 (5.5%)	2 (10.0%)	174 (6.8%)
합계	497 (100.0%)	850 (100.0%)	910 (100.0%)	274 (100.0%)	20 (100.0%)	2,551 (100.0%)

표 79. 응답자의 최종 학력별 월평균 소득

	학력							전체
	전문 학사 취득	학사 재학·휴 학수료	학사 취득	석사 재학·휴 학수료	석사 취득	박사 재학·휴 학수료	박사 취득	
100만원 미만 (‘소득 없음’ 포함)	4 (50.0%)	0 (0.0%)	289 (32.9%)	255 (42.9%)	322 (24.3%)	67 (25.6%)	4 (5.1%)	941 (29.9%)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3 (37.5%)	2 (100.0%)	437 (49.8%)	255 (42.9%)	573 (43.2%)	70 (26.7%)	9 (11.5%)	1,349 (42.9%)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 (12.5%)	0 (0.0%)	128 (14.6%)	76 (12.8%)	327 (24.7%)	75 (28.6%)	18 (23.1%)	625 (19.9%)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0 (0.0%)	0 (0.0%)	15 (1.7%)	5 (0.8%)	80 (6.0%)	33 (12.6%)	21 (26.9%)	154 (4.9%)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0 (0.0%)	0 (0.0%)	4 (0.5%)	2 (0.3%)	12 (0.9%)	12 (4.6%)	14 (17.9%)	44 (1.4%)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0 (0.0%)	0 (0.0%)	2 (0.2%)	1 (0.2%)	8 (0.6%)	2 (0.8%)	6 (7.7%)	19 (0.6%)
600만원 이상	0 (0.0%)	0 (0.0%)	3 (0.3%)	1 (0.2%)	3 (0.2%)	3 (1.1%)	6 (7.7%)	16 (0.5%)
합계	8 (100.0%)	2 (100.0%)	878 (100.0%)	595 (100.0%)	1,325 (100.0%)	262 (100.0%)	78 (100.0%)	3,148 (100.0%)

표 80.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월평균 소득

	성별		전체
	남성	여성	
100만원 미만 (‘소득 없음’ 포함)	53 (17.1%)	888 (31.3%)	941 (29.9%)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89 (28.7%)	1,260 (44.4%)	1,349 (42.9%)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05 (33.9%)	520 (18.3%)	625 (19.9%)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30 (9.7%)	124 (4.4%)	154 (4.9%)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4 (4.5%)	30 (1.1%)	44 (1.4%)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0 (3.2%)	9 (0.3%)	19 (0.6%)
600만원 이상	9 (2.9%)	7 (0.2%)	16 (0.5%)
합계	310 (100.0%)	2,838 (100.0%)	3,148 (100.0%)

표 81. 응답자의 연령별 월평균 소득

	연령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00만원 미만 ('소득 없음' 포함)	235 (35.3%)	294 (28.2%)	301 (27.9%)	100 (29.7%)	11 (42.3%)	941 (29.9%)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345 (51.9%)	371 (35.6%)	485 (45.0%)	143 (42.4%)	5 (19.2%)	1,349 (42.9%)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79 (11.9%)	328 (31.5%)	176 (16.3%)	37 (11.0%)	5 (19.2%)	625 (19.9%)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5 (0.8%)	37 (3.6%)	84 (7.8%)	26 (7.7%)	2 (7.7%)	154 (4.9%)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0 (0.0%)	9 (0.9%)	18 (1.7%)	17 (5.0%)	0 (0.0%)	44 (1.4%)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 (0.2%)	1 (0.1%)	9 (0.8%)	7 (2.1%)	1 (3.8%)	19 (0.6%)
600만원 이상	0 (0.0%)	2 (0.2%)	5 (0.5%)	7 (2.1%)	2 (7.7%)	16 (0.5%)
합계	665 (100.0%)	1,042 (100.0%)	1,078 (100.0%)	337 (100.0%)	26 (100.0%)	3,148 (100.0%)

표 82. 응답자의 주요 역할별 월평균 소득

	역할								전체
	상담	연구	관리	교육	임상	행정	기타	없음 (부직)	
100만원 미만 (‘소득 없음’ 포함)	332 (21.2%)	11 (27.5%)	9 (4.4%)	44 (19.4%)	14 (16.7%)	16 (6.2%)	27 (15.5%)	488 (81.7%)	941 (29.9%)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859 (55.0%)	10 (25.0%)	30 (14.8%)	85 (37.4%)	24 (28.6%)	164 (63.1%)	106 (60.9%)	71 (11.9%)	1,349 (42.9%)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99 (19.1%)	13 (32.5%)	100 (49.3%)	57 (25.1%)	35 (41.7%)	65 (25.0%)	34 (19.5%)	22 (3.7%)	625 (19.9%)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9 (3.1%)	3 (7.5%)	44 (21.7%)	25 (11.0%)	8 (9.5%)	10 (3.8%)	6 (3.4%)	9 (1.5%)	154 (4.9%)
400만원 이상- 500만원미만	14 (0.9%)	0 (0.0%)	11 (5.4%)	13 (5.7%)	1 (1.2%)	2 (0.8%)	0 (0.0%)	3 (0.5%)	44 (1.4%)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7 (0.4%)	2 (5.0%)	3 (1.5%)	2 (0.9%)	1 (1.2%)	2 (0.8%)	1 (0.6%)	1 (0.2%)	19 (0.6%)
600만원 이상	3 (0.2%)	1 (2.5%)	6 (3.0%)	1 (0.4%)	1 (1.2%)	1 (0.4%)	0 (0.0%)	3 (0.5%)	16 (0.5%)
합계	1,563 (100.0%)	40 (100.0%)	203 (100.0%)	227 (100.0%)	84 (100.0%)	260 (100.0%)	174 (100.0%)	597 (100.0%)	3,148 (100.0%)

표 83.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월 희망 소득

	성별		전체
	남성	여성	
100만원 미만 (‘소득 없음’ 포함)	0 (0.0%)	18 (0.6%)	18 (0.6%)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11 (3.5%)	303 (10.7%)	314 (10.0%)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01 (32.6%)	1,631 (57.5%)	1,732 (55.0%)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03 (33.2%)	642 (22.6%)	745 (23.7%)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37 (11.9%)	145 (5.1%)	182 (5.8%)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4 (7.7%)	64 (2.3%)	88 (2.8%)
600만원 이상	34 (11.0%)	35 (1.2%)	69 (2.2%)
합계	310 (100.0%)	2,838 (100.0%)	3,148 (100.0%)

표 84. 응답자의 연령별 월평균 소득

	연령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00만원 미만 (‘소득 없음’ 포함)	1 (0.2%)	5 (0.5%)	5 (0.5%)	4 (1.2%)	3 (11.5%)	18 (0.6%)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69 (10.4%)	66 (6.3%)	122 (11.3%)	53 (15.7%)	4 (15.4%)	314 (10.0%)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469 (70.5%)	535 (51.3%)	564 (52.3%)	156 (46.3%)	8 (30.8%)	1,732 (55.0%)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95 (14.3%)	332 (31.9%)	241 (22.4%)	71 (21.1%)	6 (23.1%)	745 (23.7%)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6 (2.4%)	59 (5.7%)	86 (8.0%)	21 (6.2%)	0 (0.0%)	182 (5.8%)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7 (1.1%)	22 (2.1%)	38 (3.5%)	19 (5.6%)	2 (7.7%)	88 (2.8%)
600만원 이상	8 (1.2%)	23 (2.2%)	22 (2.0%)	13 (3.9%)	3 (11.5%)	69 (2.2%)
합계	665 (100.0%)	1,042 (100.0%)	1,078 (100.0%)	337 (100.0%)	26 (100.0%)	3,148 (100.0%)

표 85. 응답자의 최종학력별 월 희망 소득

	학력							전체
	전문 학사 취득	학사 재학, 휴학, 수료	학사 취득	석사 재학, 휴학, 수료	석사 취득	박사 재학, 휴학, 수료	박사 취득	
100만원 미만 (‘소득 없음’ 포함)	1 (12.5%)	0 (0.0%)	5 (0.6%)	2 (0.3%)	10 (0.8%)	0 (0.0%)	0 (0.0%)	18 (0.6%)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 (25.0%)	1 (50.0%)	149 (17.0%)	60 (10.1%)	87 (6.6%)	13 (5.0%)	2 (2.6%)	314 (10.0%)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4 (50.0%)	1 (50.0%)	570 (64.9%)	381 (64.0%)	709 (53.5%)	61 (23.3%)	6 (7.7%)	1,732 (55.0%)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 (12.5%)	0 (0.0%)	122 (13.9%)	119 (20.0%)	376 (28.4%)	112 (42.7%)	15 (19.2%)	745 (23.7%)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0 (0.0%)	0 (0.0%)	15 (1.7%)	18 (3.0%)	86 (6.5%)	43 (16.4%)	20 (25.6%)	182 (5.8%)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0 (0.0%)	0 (0.0%)	9 (1.0%)	6 (1.0%)	34 (2.6%)	19 (7.3%)	20 (25.6%)	88 (2.8%)
600만원 이상	0 (0.0%)	0 (0.0%)	8 (0.9%)	9 (1.5%)	23 (1.7%)	14 (5.3%)	15 (19.2%)	69 (2.2%)
합계	8 (100.0%)	2 (100.0%)	878 (100.0%)	595 (100.0%)	1,325 (100.0%)	262 (100.0%)	78 (100.0%)	3,148 (100.0%)

표 86.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처우 개선 희망 내용

	성별		전체
	남성	여성	
연봉수준의 정상화	233 (40.1%)	2,058 (40.0%)	2,291 (40.0%)
근무시간의 정상화	39 (6.7%)	328 (6.4%)	367 (6.4%)
직장 내 복지 강화	50 (8.6%)	327 (6.4%)	377 (6.6%)
업무내용의 합리적 조정	64 (11.0%)	513 (10.0%)	577 (10.1%)
휴가 및 휴직제도의 활성화	32 (5.5%)	405 (7.9%)	437 (7.6%)
비정규직 최소화 및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153 (26.3%)	1,406 (27.3%)	1,559 (27.2%)
기타	10 (1.7%)	104 (2.0%)	114 (2.0%)
합계	581 (100.0%)	5,141 (100.0%)	5,722 (100.0%)

표 87.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처우 개선 희망 내용

	급수			전체
	1급	2급	3급	
연봉수준의 정상화	74 (43.0%)	697 (43.4%)	1,520 (38.5%)	2,291 (40.0%)
근무시간의 정상화	10 (5.8%)	77 (4.8%)	280 (7.1%)	367 (6.4%)
직장 내 복지 강화	12 (7.0%)	105 (6.5%)	260 (6.6%)	377 (6.6%)
업무내용의 합리적 조정	18 (10.5%)	177 (11.0%)	382 (9.7%)	577 (10.1%)
휴가 및 휴직제도의 활성화	19 (11.0%)	130 (8.1%)	288 (7.3%)	437 (7.6%)
비정규직 최소화 및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35 (20.3%)	396 (24.7%)	1,128 (28.6%)	1,559 (27.2%)
기타	4 (2.3%)	24 (1.5%)	86 (2.2%)	114 (2.0%)
합계	172 (100.0%)	1,606 (100.0%)	3,944 (100.0%)	5,722 (100.0%)

표 88. 응답자의 최종 학력별 처우 개선 희망 내용

	학력							전체
	전문 학사 취득	학사 재학, 휴학, 수료	학사 취득	석사 재학, 휴학, 수료	석사 취득	박사, 재학, 휴학, 수료	박사 취득	
연봉수준의 정상화	4 (28.6%)	0 (0.0%)	541 (34.3%)	452 (40.8%)	1,037 (42.5%)	204 (44.9%)	53 (41.1%)	2,291 (40.0%)
근무시간의 정상화	3 (21.4%)	0 (0.0%)	128 (8.1%)	81 (7.3%)	126 (5.2%)	21 (4.6%)	8 (6.2%)	367 (6.4%)
직장 내 복지 강화	0 (0.0%)	0 (0.0%)	105 (6.7%)	75 (6.8%)	160 (6.6%)	30 (6.6%)	7 (5.4%)	377 (6.6%)
업무내용의 합리적 조정	1 (7.1%)	1 (50.0%)	160 (10.2%)	99 (8.9%)	259 (10.6%)	45 (9.9%)	12 (9.3%)	577 (10.1%)
휴가 및 휴직제도의 활성화	1 (7.1%)	0 (0.0%)	115 (7.3%)	83 (7.5%)	192 (7.9%)	37 (8.1%)	9 (7.0%)	437 (7.6%)
비정규직 최소화 및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4 (28.6%)	1 (50.0%)	477 (30.3%)	300 (27.1%)	629 (25.8%)	112 (24.7%)	36 (27.9%)	1,559 (27.2%)
기타	1 (7.1%)	0 (0.0%)	49 (3.1%)	17 (1.5%)	38 (1.6%)	5 (1.1%)	4 (3.1%)	114 (2.0%)
합계	14 (100.0%)	2 (100.0%)	1,575 (100.0%)	1,107 (100.0%)	2,441 (100.0%)	454 (100.0%)	129 (100.0%)	5,722 (100.0%)

표 89. 응답자의 역할별 처우 개선 희망 내용

	역할								전체
	상담	연구	관리	교육	임상	행정	기타	없음 (무직)	
연봉수준의 정상화	1,180 (41.6%)	30 (41.1%)	158 (41.4%)	146 (37.6%)	66 (40.5%)	185 (38.4%)	119 (35.5%)	407 (38.3%)	2,291 (40.0%)
근무시간의 정상화	131 (4.6%)	6 (8.2%)	21 (5.5%)	31 (8.0%)	19 (11.7%)	28 (5.8%)	24 (7.2%)	107 (10.1%)	367 (6.4%)
직장 내 복지 강화	178 (6.3%)	7 (9.6%)	40 (10.5%)	33 (8.5%)	15 (9.2%)	36 (7.5%)	19 (5.7%)	49 (4.6%)	377 (6.6%)
업무내용의 합리적 조정	289 (10.2%)	8 (11.0%)	42 (11.0%)	42 (10.8%)	10 (6.1%)	62 (12.9%)	46 (13.7%)	78 (7.3%)	577 (10.1%)
휴가 및 휴직제도의 활성화	216 (7.6%)	4 (5.5%)	45 (11.8%)	19 (4.9%)	12 (7.4%)	33 (6.8%)	32 (9.6%)	76 (7.1%)	437 (7.6%)
비정규직 최소화 및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797 (28.1%)	17 (23.3%)	68 (17.8%)	108 (27.8%)	38 (23.3%)	131 (27.2%)	84 (25.1%)	316 (29.7%)	1,559 (27.2%)
기타	45 (1.6%)	1 (1.4%)	8 (2.1%)	9 (2.3%)	3 (1.8%)	7 (1.5%)	11 (3.3%)	30 (2.8%)	114 (2.0%)
합계	2,836 (100.0%)	73 (100.0%)	382 (100.0%)	388 (100.0%)	163 (100.0%)	482 (100.0%)	335 (100.0%)	1,063 (100.0%)	5,722 (100.0%)

표 90.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취업 경로

	성별		전체
	남성	여성	
리플렛	8 (2.6%)	31 (1.1%)	39 (1.2%)
해당 기관 홈페이지	124 (40.0%)	1,242 (43.8%)	1,366 (43.4%)
자격연수 수업 또는 안내	15 (4.8%)	196 (6.9%)	211 (6.7%)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50 (16.1%)	428 (15.1%)	478 (15.2%)
학회 홈페이지	61 (19.7%)	545 (19.2%)	606 (19.3%)
기타	52 (16.8%)	396 (14.0%)	448 (14.2%)
합계	310 (100.0%)	2,838 (100.0%)	3,148 (100.0%)

표 91. 응답자의 연령별 희망 배치확대기관

	연령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교육관련 기관	308 (46.3%)	558 (53.6%)	609 (56.5%)	173 (51.3%)	12 (46.2%)	1,660 (52.7%)
법무관련 기관	115 (17.3%)	145 (13.9%)	127 (11.8%)	40 (11.9%)	2 (7.7%)	429 (13.6%)
복지 기관	86 (12.9%)	117 (11.2%)	185 (17.2%)	56 (16.6%)	6 (23.1%)	450 (14.3%)
군 관련 기관	42 (6.3%)	58 (5.6%)	62 (5.8%)	31 (9.2%)	3 (11.5%)	196 (6.2%)
기업	36 (5.4%)	63 (6.0%)	34 (3.2%)	10 (3.0%)	1 (3.8%)	144 (4.6%)
민간상담 기관	28 (4.2%)	46 (4.4%)	25 (2.3%)	16 (4.7%)	1 (3.8%)	116 (3.7%)
연구 기관	19 (2.9%)	27 (2.6%)	6 (0.6%)	0 (0.0%)	0 (0.0%)	52 (1.7%)
기타	31 (4.7%)	28 (2.7%)	30 (2.8%)	11 (3.3%)	1 (3.8%)	101 (3.2%)
합계	665 (100.0%)	1,042 (100.0%)	1,078 (100.0%)	337 (100.0%)	26 (100.0%)	3,148 (100.0%)

표 92.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희망 배치확대기관

	급수			전체
	1급	2급	3급	
교육관련 기관	50 (50.5%)	465 (52.0%)	1,145 (53.2%)	1,660 (52.7%)
법무관련 기관	20 (20.2%)	145 (16.2%)	264 (12.3%)	429 (13.6%)
복지 기관	11 (11.1%)	103 (11.5%)	336 (15.6%)	450 (14.3%)
군 관련 기관	5 (5.1%)	39 (4.4%)	152 (7.1%)	196 (6.2%)
기업	6 (6.1%)	58 (6.5%)	80 (3.7%)	144 (4.6%)
민간상담 기관	2 (2.0%)	33 (3.7%)	81 (3.8%)	116 (3.7%)
연구 기관	0 (0.0%)	26 (2.9%)	26 (1.2%)	52 (1.7%)
기타	5 (5.1%)	26 (2.9%)	70 (3.2%)	101 (3.2%)
합계	99 (100.0%)	895 (100.0%)	2,154 (100.0%)	3,148 (100.0%)

표 93. 응답자의 최종 학력별 배치 확대 기관

	학력							전체
	전문 학사 취득	학사 재학,휴학 수료	학사 취득	석사 재학,휴학 수료	석사 취득	박사, 재학,휴학 수료	박사 취득	
교육관련 기관	5 (62.5%)	1 (50.0%)	469 (53.4%)	313 (52.6%)	699 (52.8%)	134 (51.1%)	39 (50.0%)	1,660 (52.7%)
법무관련 기관	1 (12.5%)	0 (0.0%)	87 (9.9%)	91 (15.3%)	187 (14.1%)	50 (19.1%)	13 (16.7%)	429 (13.6%)
복지 기관	2 (25.0%)	1 (50.0%)	169 (19.2%)	77 (12.9%)	167 (12.6%)	23 (8.8%)	11 (14.1%)	450 (14.3%)
군 관련 기관	0 (0.0%)	0 (0.0%)	60 (6.8%)	42 (7.1%)	76 (5.7%)	12 (4.6%)	6 (7.7%)	196 (6.2%)
기업	0 (0.0%)	0 (0.0%)	23 (2.6%)	23 (3.9%)	78 (5.9%)	19 (7.3%)	1 (1.3%)	144 (4.6%)
민간상담 기관	0 (0.0%)	0 (0.0%)	32 (3.6%)	18 (3.0%)	55 (4.2%)	10 (3.8%)	1 (1.3%)	116 (3.7%)
연구 기관	0 (0.0%)	0 (0.0%)	8 (0.9%)	10 (1.7%)	25 (1.9%)	6 (2.3%)	3 (3.8%)	52 (1.7%)
기타	0 (0.0%)	0 (0.0%)	30 (3.4%)	21 (3.5%)	38 (2.9%)	8 (3.1%)	4 (5.1%)	101 (3.2%)
합계	8 (100.0%)	2 (100.0%)	878 (100.0%)	595 (100.0%)	1,325 (100.0%)	262 (100.0%)	78 (100.0%)	3,148 (100.0%)

표 94.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이직 고민

	성별		전체
	남성	여성	
있다	170 (54.8%)	1,708 (60.2%)	1,878 (59.7%)
없다	140 (45.2%)	1,130 (39.8%)	1,270 (40.3%)
합계	310 (100.0%)	2,838 (100.0%)	3,148 (100.0%)

표 95.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이직 고민

	급수			전체
	1급	2급	3급	
있다	42 (42.4%)	555 (62.0%)	1,281 (59.5%)	1,878 (59.7%)
없다	57 (57.6%)	340 (38.0%)	873 (40.5%)	1,270 (40.3%)
합계	99 (100.0%)	895 (100.0%)	2,154 (100.0%)	3,148 (100.0%)

표 96.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이직 고민 이유

	성별		전체
	남성	여성	
연봉이 희망하는 수준에 비해 적어서	98 (33.3%)	876 (31.0%)	974 (31.2%)
직장 내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37 (12.6%)	370 (13.1%)	407 (13.0%)
직장이 영세하여 미래가 불안해서	16 (5.4%)	99 (3.5%)	115 (3.7%)
비정규직이라 안정감이 없어서	55 (18.7%)	625 (22.1%)	680 (21.8%)
직장의 복지수준이 낮아서	27 (9.2%)	213 (7.5%)	240 (7.7%)
직장 내 대인관계 문제 때문에	9 (3.1%)	123 (4.4%)	132 (4.2%)
학업(진학)을 위해서	17 (5.8%)	148 (5.2%)	165 (5.3%)
계약만료	21 (7.1%)	204 (7.2%)	225 (7.2%)
기타	14 (4.8%)	168 (5.9%)	182 (5.8%)
합계	294 (100.0%)	2,826 (100.0%)	3,120 (100.0%)

표 97. 응답자의 연령별 이직 고민 이유

	연령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연봉이 희망하는 수준에 비해 적어서	247 (30.8%)	331 (30.2%)	308 (31.7%)	84 (35.0%)	4 (40.0%)	974 (31.2%)
직장 내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114 (14.2%)	178 (16.2%)	92 (9.5%)	22 (9.2%)	1 (10.0%)	407 (13.0%)
직장이 영세하여 미래가 불안해서	31 (3.9%)	39 (3.6%)	37 (3.8%)	8 (3.3%)	0 (0.0%)	115 (3.7%)
비정규직이라 안정감이 없어서	150 (18.7%)	214 (19.5%)	252 (25.9%)	63 (26.3%)	1 (10.0%)	680 (21.8%)
직장의 복지수준이 낮아서	78 (9.7%)	92 (8.4%)	58 (6.0%)	12 (5.0%)	0 (0.0%)	240 (7.7%)
직장 내 대인관계 문제 때문에	29 (3.6%)	50 (4.6%)	45 (4.6%)	7 (2.9%)	1 (10.0%)	132 (4.2%)
학업(진학)을 위해서	76 (9.5%)	46 (4.2%)	35 (3.6%)	8 (3.3%)	0 (0.0%)	165 (5.3%)
계약만료	46 (5.7%)	72 (6.6%)	87 (9.0%)	17 (7.1%)	3 (30.0%)	225 (7.2%)
기타	31 (3.9%)	74 (6.8%)	58 (6.0%)	19 (7.9%)	0 (0.0%)	182 (5.8%)
합계	802 (100.0%)	1,096 (100.0%)	972 (100.0%)	240 (100.0%)	10 (100.0%)	3,120 (100.0%)

표 98.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이직 고민 이유

	급수			전체
	1급	2급	3급	
연봉이 희망하는 수준에 비해 적어서	17 (26.2%)	310 (33.5%)	647 (30.4%)	974 (31.2%)
직장 내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10 (15.4%)	129 (14.0%)	268 (12.6%)	407 (13.0%)
직장이 영세하여 미래가 불안해서	3 (4.6%)	29 (3.1%)	83 (3.9%)	115 (3.7%)
비정규직이라 안정감이 없어서	12 (18.5%)	189 (20.5%)	479 (22.5%)	680 (21.8%)
직장의 복지수준이 낮아서	4 (6.2%)	65 (7.0%)	171 (8.0%)	240 (7.7%)
직장 내 대인관계 문제 때문에	6 (9.2%)	43 (4.7%)	83 (3.9%)	132 (4.2%)
학업(진학)을 위해서	2 (3.1%)	40 (4.3%)	123 (5.8%)	165 (5.3%)
계약만료	2 (3.1%)	64 (6.9%)	159 (7.5%)	225 (7.2%)
기타	9 (13.8%)	55 (6.0%)	118 (5.5%)	182 (5.8%)
합계	65 (100.0%)	924 (100.0%)	2,131 (100.0%)	3,120 (100.0%)

표 99.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취업 기여 인식

	성별		전체
	남성	여성	
기여하지 않았다	71 (22.9%)	584 (20.6%)	655 (20.8%)
약간 기여하였다	131 (42.3%)	1,271 (44.8%)	1,402 (44.5%)
꽤 기여하였다	72 (23.2%)	675 (23.8%)	747 (23.7%)
매우 기여하였다	36 (11.6%)	308 (10.9%)	344 (10.9%)
합계	310 (100.0%)	2,838 (100.0%)	3,148 (100.0%)

표 100. 응답자의 연령별 취업 기여 인식

	연령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기여하지 않았다	122 (18.3%)	204 (19.6%)	238 (22.1%)	86 (25.5%)	5 (19.2%)	655 (20.8%)
약간 기여하였다	310 (46.6%)	498 (47.8%)	464 (43.0%)	121 (35.9%)	9 (34.6%)	1,402 (44.5%)
꽤 기여하였다	172 (25.9%)	242 (23.2%)	243 (22.5%)	84 (24.9%)	6 (23.1%)	747 (23.7%)
매우 기여하였다	61 (9.2%)	98 (9.4%)	133 (12.3%)	46 (13.6%)	6 (23.1%)	344 (10.9%)
합계	665 (100.0%)	1,042 (100.0%)	1,078 (100.0%)	337 (100.0%)	26 (100.0%)	3,148 (100.0%)

표 101. 응답자의 자격 급수별 취업 기여 인식

	급수			전체
	1급	2급	3급	
기여하지 않았다	33 (33.3%)	169 (18.9%)	453 (21.0%)	655 (20.8%)
약간 기여하였다	36 (36.4%)	431 (48.2%)	935 (43.4%)	1,402 (44.5%)
꽤 기여하였다	20 (20.2%)	214 (23.9%)	513 (23.8%)	747 (23.7%)
매우 기여하였다	10 (10.1%)	81 (9.1%)	253 (11.7%)	344 (10.9%)
합계	99 (100.0%)	895 (100.0%)	2,154 (100.0%)	3,148 (100.0%)

표 102.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취업기관

	성별		전체
	남	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73 (23.5%)	489 (17.2%)	562 (17.9%)
청소년복지시설	10 (3.2%)	48 (1.7%)	58 (1.8%)
아동기관	8 (2.6%)	66 (2.3%)	74 (2.4%)
청소년 단체·시설	6 (1.9%)	66 (2.3%)	72 (2.3%)
초·중·고등학교	9 (2.9%)	247 (8.7%)	256 (8.1%)
대학상담센터	13 (4.2%)	83 (2.9%)	96 (3.0%)
Wee 스쿨·센터·클래스	34 (11.1%)	430 (15.3%)	464 (14.9%)
민간상담기관	11 (3.5%)	182 (6.4%)	193 (6.1%)
종교단체	1 (0.3%)	7 (0.2%)	8 (0.3%)
병원	5 (1.6%)	50 (1.8%)	55 (1.7%)
정부산하 공공기관	26 (8.4%)	122 (4.3%)	148 (4.7%)
군 상담기관	4 (1.3%)	19 (0.7%)	23 (0.7%)
연구기관	1 (0.3%)	15 (0.5%)	16 (0.5%)
기업체 상담 기관	2 (0.6%)	17 (0.6%)	19 (0.6%)
기타	20 (6.5%)	116 (4.1%)	136 (4.3%)
없음	87 (28.1%)	881 (31.0%)	968 (30.7%)
합계	310 (100.0%)	2838 (100.0%)	3148 (100.0%)

표 103. 응답자의 연령별 취업 기관

	연령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6 (14.4%)	234 (22.5%)	177 (16.4%)	48 (14.2%)	7 (26.9%)	562 (17.9%)
청소년복지시설	21 (3.2%)	21 (2%)	13 (1.2%)	3 (0.9%)	0 (0.0%)	58 (1.8%)
아동기관	15 (2.3%)	26 (2.5%)	26 (2.4%)	7 (2.1%)	0 (0.0%)	74 (2.4%)
청소년 단체·시설	17 (2.6%)	31 (3%)	15 (1.4%)	9 (2.7%)	0 (0.0%)	72 (2.3%)
초·중·고등학교	25 (3.8%)	52 (5%)	122 (11.3%)	55 (16.1%)	2 (7.7%)	256 (8.1%)
대학상담센터	26 (3.9%)	37 (3.6%)	29 (2.7%)	4 (1.2%)	0 (0.0%)	96 (3.0%)
Wee 스킴.센터.클래스	119 (17.8%)	120 (11.3%)	179 (16.4%)	44 (13.1%)	2 (7.8%)	464 (14.9%)
민간상담기관	37 (5.6%)	73 (7.0%)	69 (6.4%)	12 (3.6%)	2 (7.7%)	193 (6.1%)
종교단체	0 (0%)	1 (0.1%)	5 (0.5%)	2 (0.6%)	0 (0.0%)	8 (0.3%)
병원	24 (3.6%)	23 (2.2%)	6 (0.6%)	2 (0.6%)	0 (0.0%)	55 (1.7%)
정부산하 공공기관	28 (4.2%)	58 (5.6%)	47 (4.4%)	14 (4.2%)	1 (3.8%)	148 (4.7%)
군 상담기관	0 (0.0%)	8 (0.8%)	10 (0.9%)	2 (0.6%)	3 (11.5%)	23 (0.7%)
연구기관	4 (0.6%)	6 (0.6%)	6 (0.6%)	0 (0.0%)	0 (0.0%)	16 (0.5%)
기업체 상담 기관	2 (0.3%)	11 (1.1%)	4 (0.4%)	2 (0.6%)	0 (0.0%)	19 (0.6%)
기타	28 (4.2%)	44 (4.2%)	47 (4.4%)	14 (4.2%)	3 (11.5%)	136 (4.3%)
없음	223 (33.5%)	297 (28.5%)	323 (30.0%)	119 (35.3%)	6 (23.1%)	968 (30.7%)
합계	665 (100.0%)	1,042 (100.0%)	1,078 (100.0%)	337 (100.0%)	26 (100.0%)	3,148 (100.0%)

표 104.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취업 희망 기관

	성별		전체
	남	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6 (11.6%)	265 (9.3%)	301 (9.6%)
청소년복지시설	15 (4.8%)	97 (3.4%)	112 (3.6%)
아동기관	5 (1.6%)	72 (2.5%)	77 (2.4%)
청소년 단체·시설	9 (2.9%)	56 (2.0%)	65 (2.1%)
초·중·고등학교	21 (6.8%)	389 (13.7%)	410 (13.0%)
대학상담센터	35 (11.3%)	367 (12.9%)	402 (12.8%)
Wee 스쿨·센터·클래스	18 (5.9%)	341 (12.1%)	359 (11.3%)
민간상담기관	34 (11.0%)	248 (8.7%)	282 (9.0%)
종교단체	1 (0.3%)	26 (0.9%)	27 (0.9%)
병원	6 (1.9%)	77 (2.7%)	83 (2.6%)
정부산하 공공기관	53 (17.1%)	324 (11.4%)	377 (12.0%)
군 상담기관	13 (4.2%)	84 (3.0%)	97 (3.1%)
연구기관	11 (3.5%)	81 (2.9%)	92 (2.9%)
기업체 상담 기관	16 (5.2%)	152 (5.4%)	168 (5.3%)
기타	9 (2.9%)	61 (2.1%)	70 (2.2%)
없음	28 (9.0%)	198 (7.0%)	226 (7.2%)
합계	310 (100.0%)	2,838 (100.0%)	3,148 (100.0%)

표 105. 응답자의 연령별 취업 희망 기관

	연령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67 (10.1%)	93 (8.9%)	107 (9.9%)	31 (9.2%)	3 (11.5%)	301 (9.6%)
청소년복지시설	22 (3.3%)	25 (2.4%)	46 (4.3%)	17 (5%)	2 (7.7%)	112 (3.6%)
아동기관	10 (1.5%)	28 (2.7%)	22 (2.0%)	15 (4.5%)	2 (7.7%)	77 (2.4%)
청소년 단체·시설	14 (2.1%)	17 (1.6%)	23 (2.1%)	10 (3.0%)	1 (3.8%)	65 (2.1%)
초·중·고등학교	68 (10.2%)	128 (12.3%)	174 (16.1%)	38 (11.3%)	2 (7.7%)	410 (13.0%)
대학상담센터	103 (15.5%)	148 (14.2%)	116 (10.8%)	34 (10.1%)	1 (3.8%)	402 (12.8%)
Wee 스킴.센터.클래스	111 (16.7%)	95 (9.3%)	130 (12.1%)	23 (6.6%)	0 (0.0%)	359 (11.3%)
민간상담기관	42 (6.3%)	90 (8.6%)	103 (9.6%)	44 (13.1%)	3 (11.6%)	282 (9.0%)
종교단체	4 (0.6%)	3 (0.3%)	12 (1.1%)	8 (2.4%)	0 (0.0%)	27 (0.9%)
병원	35 (5.3%)	26 (2.5%)	19 (1.8%)	3 (0.9%)	0 (0.0%)	83 (2.6%)
정부산하 공공기관	73 (11.0%)	137 (13.1%)	133 (12.3%)	33 (9.8%)	1 (3.8%)	377 (12.0%)
군 상담기관	18 (2.7%)	21 (2.0%)	33 (3.1%)	22 (6.5%)	3 (11.6%)	97 (3.1%)
연구기관	20 (3.0%)	42 (4.0%)	25 (2.3%)	4 (1.2%)	1 (3.8%)	92 (2.9%)
기업체 상담 기관	40 (6.0%)	72 (6.9%)	38 (3.5%)	15 (4.5%)	3 (11.6%)	168 (5.3%)
기타	14 (2.1%)	22 (2.1%)	19 (1.8%)	15 (4.5%)	0 (0.0%)	70 (2.2%)
없음	24 (3.6%)	95 (9.1%)	78 (7.2%)	25 (7.4%)	4 (15.4%)	226 (7.2%)
합계	665 (100.0%)	1,042 (100.0%)	1,078 (100.0%)	337 (100.0%)	26 (100.0%)	3,148 (100.0%)

표 106.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상위 급수 취득 의향

	성별		전체
	남	여	
1급 취득자임	14 (4.2%)	85 (2.9%)	99 (3.0%)
없다	60 (19.4%)	516 (18.2%)	576 (18.3%)
있다	236 (76.5%)	2,234 (78.7%)	2,470 (78.6%)
결측*	0 (0.0%)	3 (0.2%)	3 (0.2%)
합계	310 (100.0%)	2,838 (100.0%)	3,148 (100.0%)

* 결측값은 2급 취득자임에도 불구하고, 1급 취득자임에 응답한 사람임

표 107. 응답자의 연령별 상위 급수 취득 의향

	연령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급 취득자임	2 (0.1%)	15 (1.4%)	58 (5.2%)	23 (7.4%)	1 (3.8%)	99 (3.0%)
없다	77 (11.6%)	195 (18.7%)	206 (19.2%)	90 (26.7%)	8 (30.8%)	577 (18.3%)
있다	586 (88.4%)	832 (79.9%)	813 (75.6%)	222 (65.8%)	17 (65.4%)	2,470 (78.4%)
결측	0 (0.0%)	0 (0.0%)	1 (0.0%)	2 (0.1%)	0 (0.0%)	3 (0.2%)
합계	665 (100.0%)	1,042 (100.0%)	1,077 (100.0%)	335 (100.0%)	26 (100.0%)	3,148 (100.0%)

표 108.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상위 급수 취득 이유

	성별		전체
	남	여	
일단 취득해 놓으려고	16 (6.8%)	190 (8.5%)	206 (8.4%)
더 나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63 (26.7%)	627 (28.2%)	690 (28.1%)
자기 발전을 위해	150 (63.6%)	1,335 (59.8%)	1,485 (60.2%)
직장에서 요구하므로	4 (1.6%)	54 (2.4%)	58 (2.3%)
기타	2 (1.3%)	22 (1.0%)	24 (1.0%)
무응답	1 (0.0%)	6 (0.1%)	7 (0.0%)
합계	236 (100.0%)	2,228 (100.0%)	2,070 (100.0%)

표 109. 응답자의 연령별 상위 급수 취득 이유

	연령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일단 취득해 놓으려고	57 (9.7%)	86 (10.4%)	47 (5.9%)	15 (6.8%)	1 (5.9%)	206 (8.4%)
더 나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189 (32.3%)	228 (27.7%)	212 (26.1%)	58 (26.2%)	3 (17.6%)	690 (28.1%)
자기 발전을 위해	326 (55.8%)	497 (59.8%)	514 (63.1%)	135 (61.1%)	13 (76.5%)	1,485 (60.2%)
직장에서 요구하므로	7 (1.2%)	12 (1.4%)	31 (3.8%)	8 (3.6%)	0 (0.0%)	58 (2.3%)
기타	4 (0.9%)	6 (0.7%)	9 (1.1%)	5 (2.3%)	0 (0.0%)	24 (1.0%)
무응답	3 (0.1%)	3 (0.0%)	0 (0.0%)	1 (0.0%)	0 (0.0%)	7 (0.0%)
합계	586 (100.0%)	832 (100.0%)	813 (100.0%)	222 (100.0%)	17 (100.0%)	2,070 (100.0%)

표 110.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평균 상담경력 1

	성별		전체
	남	여	
없음	26 (8.4%)	251 (8.8%)	277 (8.8%)
2년 이하	68 (21.9%)	624 (22.0%)	692 (22.0%)
2년~5년	101 (32.6%)	1,061 (37.4%)	1,162 (36.9%)
5년~10년	79 (25.5%)	698 (24.6%)	777 (24.7%)
10년~15년	24 (7.7%)	138 (4.9%)	162 (5.1%)
15년~20년	8 (2.6%)	48 (1.7%)	56 (1.8%)
20년~25년	3 (1.0%)	15 (0.5%)	18 (0.6%)
25년~30년	1 (0.3%)	2 (0.1%)	3 (0.1%)
30년~35년	0 (0.0%)	1 (0.0%)	1 (0.0%)
합계	310 (100.0%)	2,838 (100.0%)	3,148 (100.0%)

표 111.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평균 상담경력 2

성별	평균 상담경력 (개월)	N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남	4년 10개월	310	52.8	0	25년 6개월
여	4년 3개월	2,838	45.9	0	31년 2개월
합계	4년 4개월	3,148	46.6	0	31년 2개월

표 112. 응답자의 연령별 평균 상담경력 1

	연령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없음	97 (14.5%)	74 (7.1%)	84 (7.9%)	21 (6.1%)	1 (3.9%)	277 (8.8%)
2년 이하	283 (42.6%)	189 (18.1%)	179 (16.6%)	37 (11.0%)	4 (15.4%)	692 (22.0%)
2년~5년	256 (38.5%)	391 (37.5%)	409 (37.9%)	99 (29.4%)	7 (26.9%)	1,162 (36.9%)
5년~10년	29 (4.4%)	329 (31.6%)	290 (26.9%)	119 (35.3%)	10 (38.5%)	777 (24.7%)
10년~15년	0 (0.0%)	57 (5.5%)	67 (6.2%)	35 (10.4%)	3 (11.5%)	162 (5.1%)
15년~20년	0 (0.0%)	2 (0.2%)	38 (3.5%)	15 (4.5%)	1 (3.8%)	56 (1.8%)
20년~25년	0 (0.0%)	0 (0.0%)	11 (1.0%)	7 (2.1%)	0 (0.0%)	18 (0.6%)
25년~30년	0 (0.0%)	0 (0.0%)	0 (0.0%)	3 (0.9%)	0 (0.0%)	3 (0.1%)
30년~35년	0 (0.0%)	0 (0.0%)	0 (0.0%)	1 (0.3%)	0 (0.0%)	1 (0.0%)
합계	665 (100.0%)	1,042 (100.0%)	1,078 (100.0%)	337 (100.0%)	26 (100.0%)	3,148 (100.0%)

표 113. 응답자의 연령별 평균 상담경력 2

연령	평균 상담경력 (개월)	N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0대	1년 11개월	665	19.1	0	6년 11개월
30대	4년 6개월	1,042	37.8	0	16년 6개월
40대	5년 1개월	1,078	51.9	0	25년
50대	6년 4개월	337	62.8	0	31년 2개월
60대	6년 2개월	26	51.5	0	16년 6개월
합계	4년 4개월	3,148	46.6	0	31년 2개월

표 114. 응답자의 근무 기관별 대표 호소문제

	주호소										전체
	가족	일탈 및 비행	학업 및 진로	성	성격	정신건강	대인관계	컴퓨터 및 인터넷 용	생활 습관 /외모	기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 (14.5%)	113 (20.9%)	185 (16.7%)	11 (16.2%)	67 (14.5%)	140 (18.5%)	285 (15.2%)	22 (17.7%)	14 (16.3%)	16 (11.0%)	991 (16.2%)
청소년복지시설	22 (2.3%)	12 (2.2%)	12 (1.1%)	0 (0.0%)	9 (2.0%)	7 (0.9%)	30 (1.6%)	3 (2.4%)	2 (2.3%)	2 (1.4%)	99 (1.6%)
아동기관	36 (3.8%)	18 (3.3%)	29 (2.6%)	8 (11.8%)	11 (2.4%)	18 (2.4%)	44 (2.3%)	6 (4.8%)	2 (2.3%)	5 (3.4%)	177 (2.9%)
청소년 단체·시설	21 (2.2%)	13 (2.4%)	38 (3.4%)	5 (7.4%)	5 (1.1%)	18 (2.4%)	47 (2.5%)	7 (5.6%)	0 (0.0%)	0 (0.0%)	154 (2.5%)
초·중·고등학교	101 (10.6%)	43 (7.9%)	109 (9.8%)	5 (7.4%)	48 (10.4%)	70 (9.2%)	196 (10.4%)	12 (9.7%)	6 (7.0%)	12 (8.2%)	602 (9.8%)
대학상담센터	38 (4.0%)	17 (3.1%)	39 (3.5%)	3 (4.4%)	25 (5.4%)	32 (4.2%)	75 (4.0%)	3 (2.4%)	8 (9.3%)	5 (3.4%)	245 (4.0%)
Wee 스킴.센터. 클래스	178 (18.6%)	83 (15.3%)	187 (16.9%)	8 (11.6%)	88 (19.1%)	130 (17.2%)	348 (18.7%)	16 (12.9%)	13 (15.1%)	19 (13.0%)	1,070 (17.5%)
민간상담기관	86 (9.0%)	45 (8.3%)	68 (6.1%)	6 (8.8%)	39 (8.5%)	75 (9.9%)	165 (8.8%)	13 (10.5%)	2 (2.3%)	13 (8.9%)	512 (8.4%)
종교단체	1 (0.1%)	1 (0.2%)	3 (0.3%)	0 (0.0%)	1 (0.2%)	2 (0.3%)	4 (0.2%)	0 (0.0%)	0 (0.0%)	2 (1.4%)	14 (0.2%)
병원	20 (2.1%)	15 (2.8%)	30 (2.7%)	1 (1.5%)	7 (1.5%)	28 (3.7%)	41 (2.2%)	2 (1.6%)	1 (1.2%)	4 (2.7%)	149 (2.4%)
정부산하 공공기관	60 (6.3%)	36 (6.7%)	82 (7.4%)	3 (4.4%)	35 (7.6%)	53 (7.0%)	143 (7.6%)	18 (14.5%)	8 (9.3%)	11 (7.5%)	449 (7.3%)
군 상담기관	6 (0.6%)	5 (0.9%)	11 (1.0%)	3 (4.4%)	9 (2.0%)	11 (1.5%)	25 (1.3%)	1 (0.8%)	1 (1.2%)	2 (1.4%)	74 (1.2%)
연구기관	4 (0.4%)	2 (0.4%)	7 (0.6%)	0 (0.0%)	2 (0.4%)	4 (0.5%)	10 (0.5%)	0 (0.0%)	0 (0.0%)	1 (0.7%)	30 (0.5%)
기업체 상담 기관	9 (0.9%)	1 (0.2%)	8 (0.7%)	0 (0.0%)	9 (2.0%)	10 (1.3%)	21 (1.1%)	0 (0.0%)	1 (1.2%)	1 (0.7%)	60 (1.0%)
없음	164 (17.2%)	108 (20.0%)	229 (20.6%)	14 (20.6%)	82 (17.8%)	112 (14.8%)	327 (17.4%)	16 (12.9%)	24 (27.9%)	33 (22.6%)	1,109 (18.1%)
기타	71 (7.4%)	29 (5.4%)	73 (6.6%)	1 (1.5%)	24 (5.1%)	47 (6.2%)	116 (6.2%)	5 (4.2%)	4 (4.6%)	20 (13.7%)	390 (6.4%)
합계	955 (100.0%)	541 (100.0%)	1,110 (100.0%)	68 (100.0%)	461 (100.0%)	757 (100.0%)	1,877 (100.0%)	124 (100.0%)	86 (100.0%)	146 (100.0%)	6,125 (100.0%)

표 115. 응답자의 연령별 상담 어려움

	연령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상담 기술의 부족	205 (30.8%)	195 (18.7%)	196 (18.2%)	44 (13.1%)	2 (7.7%)	642 (20.4%)
복잡하고 어려운 사례	82 (12.3%)	135 (13.0%)	109 (10.1%)	36 (10.7%)	4 (15.4%)	366 (11.6%)
통제 불가능한 외부환경	106 (15.9%)	195 (18.7%)	209 (19.4%)	68 (20.2%)	4 (15.4%)	582 (18.5%)
주변 사람들의 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	27 (4.1%)	49 (4.7%)	67 (6.2%)	26 (7.7%)	7 (26.9%)	176 (5.6%)
열악한 근무 조건	73 (11.0%)	154 (14.8%)	118 (10.9%)	32 (9.5%)	2 (7.7%)	379 (12%)
수퍼비전을 받을 수 없는 환경	93 (14.0%)	168 (16.1%)	187 (17.3%)	61 (18.1%)	3 (11.5%)	512 (16.3%)
비자발적 내담자에 대한 개입	39 (5.9%)	104 (10.0%)	140 (13%)	55 (16.3%)	3 (11.5%)	341 (10.8%)
기타	40 (6.0%)	42 (4.0%)	52 (4.9%)	15 (4.4%)	1 (3.9%)	150 (4.8%)
합계	665 (100.0%)	1,042 (100.0%)	1,078 (100.0%)	337 (100.0%)	26 (100.0%)	3,148 (100.0%)

표 116. 응답자의 역할별 상담 어려움

	역할								전체
	상담	연구	관리	교육	임상	행정	기타	없음 (무직)	
상담 기술의 부족	222 (14.2%)	9 (22.5%)	19 (9.4%)	50 (22.0%)	21 (25.0%)	72 (27.7%)	47 (27.0%)	202 (33.8%)	642 (20.4%)
복잡하고 어려운 사례	216 (13.8%)	3 (7.5%)	28 (13.8%)	21 (9.3%)	11 (13.1%)	21 (8.1%)	19 (10.9%)	47 (7.9%)	366 (11.6%)
통제 불가능한 외부환경	342 (21.9%)	4 (10.0%)	51 (25.1%)	40 (17.6%)	13 (15.5%)	39 (15.0%)	28 (16.1%)	65 (10.9%)	582 (18.5%)
주변 사람들의 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	100 (6.4%)	2 (5.0%)	12 (5.9%)	13 (5.7%)	3 (3.6%)	18 (6.9%)	7 (4.0%)	21 (3.5%)	176 (5.6%)
열악한 근무 조건	187 (12.0%)	8 (20.0%)	20 (9.9%)	30 (13.2%)	7 (8.3%)	37 (14.2%)	17 (9.8%)	73 (12.2%)	379 (12.0%)
수퍼비전을 받을 수 없는 환경	267 (17.1%)	6 (15.0%)	21 (10.3%)	37 (16.3%)	18 (21.4%)	39 (15.0%)	25 (14.4%)	99 (16.6%)	512 (16.3%)
비자발적 내담자에 대한 개입	189 (12.1%)	5 (12.5%)	37 (18.2%)	30 (13.2%)	7 (8.3%)	22 (8.5%)	11 (6.3%)	40 (6.7%)	341 (10.8%)
기타	40 (2.6%)	3 (7.5%)	15 (7.4%)	6 (2.6%)	4 (4.8%)	12 (4.6%)	20 (11.5%)	50 (8.4%)	150 (4.8%)
합계	1,563 (100.0%)	40 (100.0%)	203 (100.0%)	227 (100.0%)	84 (100.0%)	260 (100.0%)	174 (100.0%)	597 (100.0%)	3,148 (100.0%)

표 117. 응답자의 역할별 수퍼비전 여부

	수퍼비전		전체
	있다	없다	
상담	994 (60.3%)	569 (38.0%)	1563 (49.7%)
연구	17 (1.0%)	23 (1.5%)	40 (1.3%)
관리	139 (8.4%)	64 (4.3%)	203 (6.4%)
교육	95 (5.8%)	132 (8.8%)	227 (7.2%)
임상	43 (2.6%)	41 (2.7%)	84 (2.7%)
행정	115 (7.0%)	145 (9.7%)	260 (8.3%)
기타	64 (3.9%)	110 (7.3%)	174 (5.5%)
없음(무직)	182 (11.0%)	415 (27.7%)	597 (19.0%)
합계	1,649 (100.0%)	1,499 (100.0%)	3,148 (100.0%)

표 118. 응답자의 근무 기관별 수퍼비전 주기

	기관																전체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청소년 복지시설	아동 기관	청소년 단체 ·시설	초·중·고 등학교	대학 상담 센터	Wee 스쿨· 센터· 클래스	민간 상담 기관	종교 단체	병원	정부산하 공공기관	군 ·상당기관	연구기관	기업체 상담 기관	없음	기타	
1주일에 한번	10 (2.8%)	1 (5.0%)	4 (10.3%)	0 (0.0%)	4 (2.9%)	2 (2.0%)	9 (2.9%)	8 (4.8%)	0 (0.0%)	7 (17.1%)	7 (5.1%)	1 (3.1%)	0 (0.0%)	5 (17.9%)	9 (4.9%)	2 (3.0%)	69 (4.2%)
2주일에 한번	17 (4.7%)	1 (5.0%)	1 (2.6%)	1 (4.0%)	4 (2.9%)	8 (8.1%)	8 (2.6%)	21 (12.5%)	0 (0.0%)	9 (22.0%)	3 (2.2%)	1 (3.1%)	0 (0.0%)	2 (7.1%)	15 (8.2%)	2 (3.0%)	93 (5.6%)
한 달에 한번	33 (9.2%)	1 (5.0%)	3 (7.7%)	1 (4.0%)	17 (12.4%)	12 (12.1%)	32 (10.4%)	22 (13.1%)	0 (0.0%)	2 (4.9%)	19 (14.0%)	6 (18.8%)	1 (16.7%)	1 (3.6%)	25 (13.7%)	16 (23.9%)	191 (11.6%)
6개월에 한번	105 (29.3%)	8 (40.0%)	10 (25.6%)	5 (20.0%)	33 (24.1%)	20 (20.2%)	100 (32.6%)	36 (21.4%)	4 (100.0%)	6 (14.6%)	48 (35.3%)	15 (46.9%)	2 (33.3%)	6 (21.4%)	41 (22.5%)	14 (20.9%)	453 (27.5%)
1년에 한번	93 (26.0%)	5 (25.0%)	11 (28.2%)	11 (44.0%)	44 (32.1%)	10 (10.1%)	101 (32.9%)	33 (19.6%)	0 (0.0%)	7 (17.1%)	28 (20.6%)	4 (12.5%)	1 (16.7%)	6 (21.4%)	42 (23.1%)	16 (23.9%)	412 (25.0%)
기타	100 (27.9%)	4 (20.0%)	10 (25.6%)	7 (28.0%)	35 (25.5%)	47 (47.5%)	57 (18.6%)	48 (28.6%)	0 (0.0%)	10 (24.4%)	31 (22.8%)	5 (15.6%)	2 (33.3%)	8 (28.6%)	50 (27.5%)	17 (25.4%)	431 (26.1%)
합계	358 (100.0%)	20 (100.0%)	39 (100.0%)	25 (100.0%)	137 (100.0%)	99 (100.0%)	307 (100.0%)	168 (100.0%)	4 (100.0%)	41 (100.0%)	136 (100.0%)	32 (100.0%)	6 (100.0%)	28 (100.0%)	182 (100.0%)	67 (100.0%)	1,649 (100.0%)

표 119. 응답자의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희망 교육 주제 1급

분류	내용	빈도
상담자 관련	상담자윤리(윤리적 갈등)	8
	상담자소진(예방 및 회복)	5
	상담자 진로	2
	상담자 자기관리(스트레스관리)	2
	상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관리방법	1
실무 관련	관리자의 역할 (리더십, 팀 조직관리)	4
	정책개발 및 현장 실무능력 향상	2
	상담기관 운영 상담 관련 법 제정과 상담 정치학	1
	공적 상담서비스 종사자들을 위한 조직 심리, 대인 관계 기술 등	1
심리검사	심리검사 심화	5
상담이론	정신분석	1
	대상관계	1
진로상담	진로상담	1
수퍼비전	상담 수퍼비전	8
	사례개념화 및 사례연구	5
연구, 통계	통계, 상담연구	1
가족상담	가족상담(단계별, 청소년 대상)	2
매체상담	매체활용상담(미술, 음악, 놀이 등)	4
정신병리	정신병리(임상경험을 중심으로 한 교육)	2
	청소년 정신병리, 정신병리	1
	ADHD	1
위기상담	위기 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3
	자살자 가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1
집단상담	집단상담(부모 대상)	1
성 상담	성폭력 피해치료	2
중독상담	중독 상담(인터넷, 게임)	6
청소년상담	청소년대상 상담(동기강화)	3
	비행청소년 상담	1
	청소년 따돌림	1
기타	최신상담경향과기법교육,실제적인상담적용기법실습	8
	트라우마	2
	범죄 청소년의 상담과 처우	1
	유아, 청소년기 훈육태도가 청소년기 비행에 미치는 영향	1
	청소년과 사회문제	1

표 120. 응답자의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희망 교육 주제 2급

분류	내용	빈도
상담자 관련	소진 관리 및 예방	22
	상담자 윤리	7
	상담자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5
	상담자 진로, 자기계발	3
	상담자발달	2
	상담자를 위한 법적보호	2
실무 관련	행정서류작성법,사업계획서등보고서작성법	4
	상담실무	3
심리검사	심리검사(이해, 실습, 실시), 심리검사활용	35
	투사검사해석(예: 로샤, 그림검사)	7
	심리검사평가 및 평가보고서 작성	5
	지능검사	3
	청소년에게 적용 가능한 심리검사	2
상담실제	상담기법(청소년 대상, 단계별, 상담이론별)	22
	상담의 실제, 시연 및 실습	15
상담이론	대상관계	15
	단기상담	12
	인지행동치료실제	12
	계슈탈트	10
	최신 심리치료 이론	8
	정신분석	5
	해결중심 상담	4
	교류분석	4
	이야기치료	4
	현실치료실제	3
	수용전념치료	3
	개인심리학	3
	긍정심리학의 상담적용	3
	정서중심상담	1
수퍼비전	수퍼비전(사례개념화)	66
	상담사례연구, 사례관리	14
	심리검사 수퍼비전	3
	수퍼바이저 교육	3
연구, 통계	연구방법	6
	척도	1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1
	청소년용 검사 도구 개발	1
	설문조사와 통계관련 과목	1
	상담프로그램 개발	1
집단상담	집단상담	24
	청소년집단상담프로그램	3
	집단상담프로그램개발	1

분류	내용	빈도
학업상담	학습 코칭·상담, 학습 동기강화	14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지도방법	1
	학업중단예방	1
가족상담	가족상담	20
진로상담	진로상담	10
학교(관련) 상담	청소년부모상담/부모상담/부모교육	30
	학교폭력	7
	비행청소년	7
	학교상담의 실제/실무	7
	따돌림, 교우관계 상담	5
	학교 부적응 학생 상담	2
	학교 밖 상담/학교 밖 아이들과 범죄연루관련	2
	초등(저학년)학교적응향상상담기법	1
정신병리	DSM-5. 정신병리(청소년)	29
	PTSD	6
	적대적반항,반사회성,분노조절장애아동,청소년상담	4
	성격장애, 불안장애 상담	3
	발달장애 학생의 상담	2
	ADHD	2
위기상담	자해, 자살의 예방 및 개입	30
	위기상담, 청소년 위기 개입	27
	학대 및 폭력 상담	6
	성폭력 피해자 개입 및 상담	4
매체상담	매체상담(미술, 모래놀이, 인형, 음악, 사진, 영화, 독서 등)	28
중독상담	중독예방(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13
	중독상담(약물 외)	9
다문화상담	동성애	2
	특수아동(장애 아동·청소년)상담	4
	새터민 상담	1
	다문화가정의청소년상담	4
기타	성상담/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	25
	트라우마 치료	9
	핵심감정, 감정코칭, 감수성 훈련	7
	명상	6
	비자발적 내담자	5
	이혼가정 및 결손가정의 청소년 특징과 상담의 실제와 관련	5
	자존감 향상	4
	비폭력대화	4
	청소년이해(최근 청소년 문제 현황 등)	4
	청소년 상담 최근 이슈 및 대처	4
	애도상담(사별, 자살)	2
	최근 청소년 문제 관련 동향이 반영된 프로그램	1
	회복탄력성	1

표 121. 응답자의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희망 교육 주제 3급

분류	내용	빈도
상담자 관련	소진 관리, 예방	47
	상담자윤리, 상담 중 경험하는 윤리적 갈등	13
	상담자 발달(역량강화)	7
	상담자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7
	상담자 자기분석	5
	상담자를 위한 법적보호	1
심리검사	심리검사(이해, 실습, 실시), 심리검사활용	123
	투사검사해석(로샤, 그림검사 등)	18
	MMPI	15
	심리검사평가 및 평가 보고서 작성	6
	지능검사	3
	성격검사	3
	청소년 관련 심리검사	2
상담실제	상담의 실제, 시연 및 실습	89
	상담기법(청소년 대상, 단계별, 상담 이론별)	44
	상담 과정 전반에 대한 교육(초기면접/사례개념화/추수 상담 등)	22
	문제 상황별 개입방법	2
상담이론	대상관계	23
	계슈탈트	20
	단기상담(청소년대상)	16
	인지행동치료실제	14
	심리극/역할극	10
	해결중심 상담	8
	현실치료실제	7
	최신 심리치료, 이론	6
	이야기치료	6
	수용전념상담	6
	싸이코 드라마	5
	상담이론	4
	정서중심상담	4
	교류분석	3
	에니어그램	3
	청소년에게 적용가능한 이론	1
	정신분석	1
	개인심리학	1
	NLP	1
	애착이론상담	1
실존치료	1	

분류	내용	빈도
슈퍼비전	슈퍼비전(사례개념화)	132
	실제상담사례연구사례관리	23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이론을 개입한 과정	4
	슈퍼바이저 교육	2
	실제사례를 토대로 상담과정과 성공사례공유	2
	다양한 사례에 대한 이해/ 상담 유형별 사례	1
연구, 통계	연구방법	4
	실태조사	1
집단상담	집단상담 참여 및 운영	54
	청소년 집단상담	6
	집단상담 프로그램	1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1
학업상담	학습 코칭 및 학습 동기 강화 상담	15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지도방법	6
	학업 중단 예방	1
가족상담	가족상담(사티어 외)	37
진로상담	진로상담	60
학교(관련) 상담	학교폭력/사이버폭력	30
	학교상담의실제/실무	10
	따돌림, 대인관계 상담	7
	학교 밖 상담/학교 밖 아이들과 범죠평우관련	6
	학교부적응학생상담	3
	비행청소년	2
	초등저학년 상담기법	1
	학교상담프로그램	1
정신병리	DSM-5.정신병리(아동.청소년)	53
	적대적반항,반사회성,분노조절장애아동.청소년상담	15
	ADHD	10
	성격장애, 불안장애 상담	9
	PTSD	6
	발달장애 학생의 상담	2
	정신병리와 관련된 주제(약물치료, 병원연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보완되었으면 함)	1
	상담사로서청소년에대한약물치료관련정보를알수있는교육과정	1
위기상담	위기상담, 청소년 위기 개입	48
	자해, 자살 예방 및 개입	28
	학대 및 가정폭력 상담	10
	성폭력 피해자 개입 및 상담(대상별)	10

분류	내용	빈도
매체상담	매체상담(미술, 모래놀이, 인형, 음악, 사진, 영화, 독서, 원예 등)	97
중독상담	중독예방(스마트 폰, 인터넷, 게임)	34
	중독 상담 (청소년대상 외)	21
다문화상담	다문화가족 상담	9
	특수아동(장애아동, 청소년)상담	6
	동성애	5
기타	청소년부모상담/부모상담/부모교육	55
	성상담/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양성평등	51
	동기강화상담	17
	트라우마치료의 실제	14
	비폭력대화	12
	인성교육	12
	핵심감정, 감정코칭, 감수성 훈련	9
	비자발적 내담자	7
	명상	7
	청소년문화이해(최근 청소년 문제 현황 등)	6
	이혼가정 및 결손가정의 청소년 특징과 상담의 실제와 관련	4
	청소년 관련법	4
	뇌 발달	2
	사이버상담(온라인/게시판)	2
	아동, 청소년 상담	2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의 Q&A	2
	전화상담	1
	마음 챙김	1
	소년범처리절차및수감후생활과사회로복귀한후의생활	1
	청소년들과의 소통관련 주제	1
	자존감향상	1

Abstract

2016 The Present Situation Survey of National Qualification Youth Counselor Workforce

The youth counselor is the only professional counselor in the country that is released through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About 10,000 people were trained from 2003 to 2015. They are playing a pivotal role in the healthy growth of adolescents in the nation's youth counseling welfare centers, schools, welfare centers, universities, and public institutions. As the social role of youth counselors and the need to provide professional services for youth problems have increased in recent years, it is becoming more important to grasp the current situation. Therefore, the Korea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 periodically investigates and analyzes the status and status of employment of young counselors, basic information, job characteristics, job fitness, and the contribution of youth counselor qualifications every two to three year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missions targets 11,774 people by the first half of 2016, research content is largely divided into census and employment survey, two.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survey on the status of employment of youth counselors, a total of 4,853 persons were analyzed through the questionnaire respondents and the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Korean Youth Welfare Institute. The major employment agencies of youth counselors were youth counseling welfare centers,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s, dream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nd Wee schools, centers and classes. Second,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it is found that the majority of the respondents are irregular workers and have lower income than the education level. Third, the counselor 's qualifications helped to

improve professionalism as a job and counselor, and most young counselors wanted to obtain a higher - level qualification. Fourth, the primary counselors of youth counselors were school - aged children or adolescents, and major counseling contents were interpersonal problems and academic and career problem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firstly,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expand the institutions that young counselors can work as the number of qualified persons continues to increase. Second, appropriate institutions and policies should be set up to solve problems of non - regular workers and low salaries of young counselors. Third, it is important to provide various opportunities such as revitalization of the maintenance education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the youth counselor. In order to provide quality service to youth clients, counselors themselves need to be actively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counselors, as well as the interest and support of their organizat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provided basic data for the reflection and development of youth counseling qualification system policy in the future.